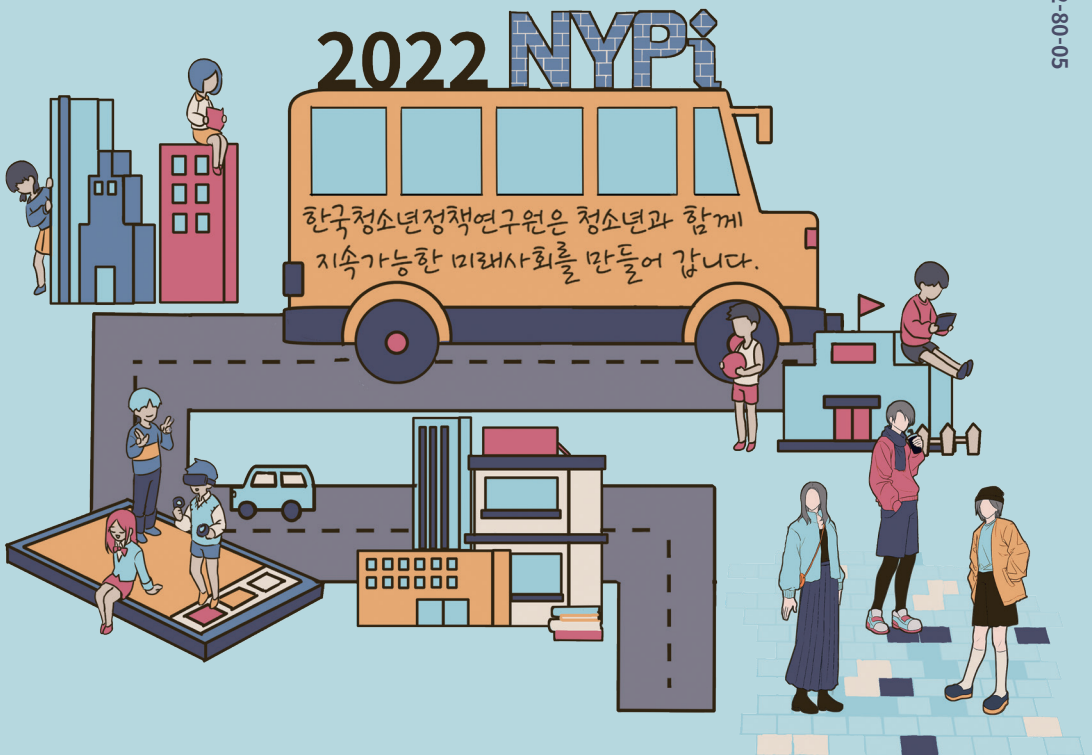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보고 22-일반08-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박광옥 · 이기연 · 이복실 · 안예지



협동연구총서 22-80-05

연구보고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저 자 박광옥,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연구진 연구책임자_박광옥(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공동연구원_이기연(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공동연구원_이복실(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_안예지(경일대학교 평생교육학부 교수)
연구보조원_양해만(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임)
_김상희(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_송기호(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종합연구 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2-80-01	청년종합연구 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통일연구원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소연(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이우태 연구위원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규빈(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장인숙(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위원) 박환보(충남대학교 교수) 최종학(통일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상정 부연구위원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하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박광옥 교수	이기연(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이복실(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안예지(경일대학교 교수) 양해만(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임) 김상희(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송기호(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보고서를 펴내며

이 연구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청년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소외계층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정책소외계층인 경계선지능청년은 낮은 인지 및 적응상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학업, 취업, 소득, 대인관계, 사회참여, 인권 보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간 이러한 어려움은 경계선지능청년 관련 지원 정책과 관련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화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부담은 점차 가중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동 청년의 생활 전반의 실태와 정책 접근 수준 및 지원 욕구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박광옥 교수의 책임 하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기연 교수,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 경일대학교 안예지 교수가 참여하여 추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과 정책 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실태에 근거하여 정책 개발 및 필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의 종사자와 부모님들의 수고로 완성되었다. 직접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실태와 지원욕구를 조사하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마음을 다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주신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현수 센터장, 경계선지능인연구소 박현숙 소장, 서울연구원 변금선 부연구

위원, 지울 S&C 이정민 변호사,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수현 센터장
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경계선지능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직무대행

박 광 택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필요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이 과정에서 기존 청년 및 장애인복지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정책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함

■ 연구내용

- 국내외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 및 지원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삶의 양상과 지원방안의 문제점 및 향후 고려해야 할 함의를 도출함
- 경계선지능청년의 진단, 일상, 학습, 직업, 주거, 인권침해, 서비스 이용 등 전반적인 자립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유사 정책대상자(예시: 일반청년, 발달장애청년)의 생활 실태 수준과 비교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생활 수준을 파악함
- 국내외 문헌고찰 및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생활실태 및 지원욕구를 조사하여 경계선 지능청년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분석: 경계선지능(청년), 국내외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함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 : 교육, 고용, 인권, 건강 등의 삶의 영역별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를 조사함. 주요 지표에 한해 유사 정책대상자(예: 일반청년,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관련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함
-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심층면접, 지원종사자 및 부모 등 가족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실시, 실태 및 지원욕구 등에 심층자료를 확보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경계선지능청년은 여러 삶의 영역에서 개인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용지원, 주거지원, 권익옹호지원, 평생교육 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시급하게 필요로 함
- 고용지원: 지원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48.4%). 단순 정보제공 및 취업 알선 중심의 지원이 아닌 개인별로 접근하고, 단계적 지원(직업교육, 현장배치, 직무지도, 근로 지원 등) 접근이 필요함
- 주거지원: 시설에서 자립한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임(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 48.4%), 청년 주거 정책을 인지한 비율이 낮게 나타남(39.9%), 주택 확보에서부터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함
- 권리구제 및 자산관리 지원: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협소한 관계망을 형성, 관계망 안에서 정서적 학대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14.8%) 사기, 성범죄 등에 연루(6.1%)되기도 함. 예방 및 전문적인 권리구제 접근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고, 그 과정에서 진술조력인 등 지원인력 배치가 필요함. 자립생활에 있어 금전 및 자산관리 지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 뿐만 아니라 관리 지원이 포함된 서비스가 필요함
- 평생교육 지원: 청년 시기 본격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학습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남. 생애주기별 필요한 학습 제공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함
- 정신건강 지원: 정신과 약을 복용한 비율(31.5%)과 최근 1년 내 자살을 생각한 비율(2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낮은 자기 효능감(낮음+매우 낮음; 90.0%)을 가지고 있었음. 정기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 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수시 상담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 지원의 방향
 - 경계선지능개념 정립 및 정책대상자 공식화
 - 청년기 접근 가능한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사례관리 지원
 - 보편적 지원, 개인별 전문 지원의 유연화
 - 보호기반(가정, 시설보호) 청년의 상황 및 욕구 반영
 -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법적 기반 강화
 - 본격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 확립을 위한 과업 수행:
경계선지능 개념 정립 및 공식적인 진단체계 마련
-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구분	주요 내용
1안 청년기본법개정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명시,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 진행 필요 -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
2안 경계선지능인지원법 (가칭) 제정	- 독립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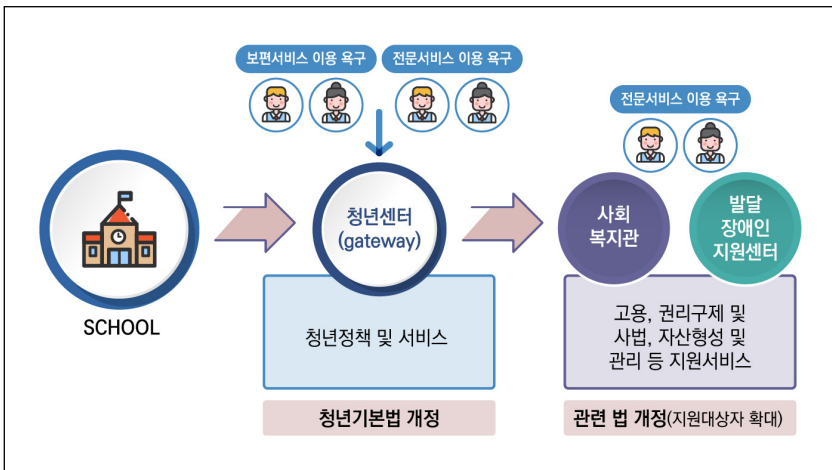
-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환경 조성
 - 지역 내 경계선지능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동시에 경계선지능청년과 가족 대상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정책지원에 대한 옹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제공
- 정책 리더러시 및 접근성 강화
 -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확충
 - (장애인복지정책 및 청년정책) 제도 재설계: 고용지원(장애인고용서비스 대상자 확대), 주거지원(청년정책에서 정책소외 청년대상 주거지원 재설계 등), 권리구제 및 사법지원(전문 권리구제 서비스, 진술조력인 제도 등),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청년정책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등)
 - (청년정책 내) 제도 신설 : 평생교육 지원(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평생교육센터 확대 필요), 정신건강 지원(정신과주치의제도 등), 관계망 지원(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동료지지자 양성 및 동료상담,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서비스 지원 등)
-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 총 3안을 제시함. 그 중 1안으로 학령기 이후 경계선지능청년의 서비스 진입 창구(gateway)를 청년센터로 하고, 전문 사례기관(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청년정책 외 타 정책 및 서비스 기관과 협업하는 체계 제안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협동연구총서 22-80-05
연구보고22-일반08-0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추진체계	8

II. 문헌고찰

1.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	11
2.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19
3. 국외 관련 정책 및 제도	37

III. 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

1. 조사개요	61
2. 조사결과	64
3. 소결	124

IV. 경계선지능청년 심층면접

1. 조사개요	135
2. 조사결과	137
3. 소결	168

V. 경계선지능청년 관계자 초점집단면접

1.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173
2. 부모 대상 초점집단면접	193
3. 소결	211

VI. 경계선지능청년 정책과제 및 지원체계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217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 과제	219
3.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229

참고문헌	235
-------------------	------------

부 록	243
------------------	------------

표 목차

표 II-1. 경계선지능인의 주요 어려움	16
표 II-2. 경계선지능청년/청년/ 발달장애인 성인 대상 지원 정책	20
표 II-3. 교육정책 및 지원	24
표 II-4. 재활, 건강, 의료정책 및 지원	25
표 II-5. 취업 정책 및 지원	27
표 II-6. 주거, 자립 정책 및 지원	29
표 II-7. 소득 정책 및 지원	31
표 II-8. 일상생활, 문화, 여가 정책 및 지원	32
표 II-9. 안전, 권익보장 정책 및 지원	33
표 II-10. 가족지원 정책	35
표 II-11. 경계선지능 성명서 개요	48
표 II-12. 발달단계별 경계선지능 의심 증상	50
표 II-13. 발달단계별 경계선지능 진단 도구 및 기준	52
표 II-14. 생활연령에 따른 경계선지능 지원 기관 및 내용	53
표 II-15. 성인기 지원을 위한 진단 기준	54
표 II-16. 국외 사례분석 결과 요약	57
표 III-1. 조사영역 및 내용	61
표 III-2. 조사 참여 기관 및 네트워크	62
표 III-3.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	63
표 III-4. 부모 동거 여부	64
표 III-5. 1인 가구 여부 및 동거인	65
표 III-6. 현 주거 유형 및 점유 형태	66
표 III-7. 주택비용 확보 방법	67
표 III-8. 향후 주거관련 주된 우려 사항	68
표 III-9. 향후 희망하는 동거인	68
표 III-10. 최종 학력	69
표 III-11. 중·고등학교 유형	70
표 III-12. 중퇴 여부 및 이유	71
표 III-13. 학교생활 어려움(다중응답)	72

표 III-14. 대학 진학 여부	73
표 III-15. 대학 진학 여부 및 대학 생활	74
표 III-16. 진로 및 취업 준비 현황	75
표 III-17. 성인기 교육 참여 현황	76
표 III-18. 성인기 교육 이용 욕구	78
표 III-19. 신체적 건강 수준	79
표 III-20. 만성질환 유무 및 진료 상황	79
표 III-21. 지난 1주간 우울수준	80
표 III-22. 최근 1년간 전문상담 및 진료(생각) 여부	81
표 III-23.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	81
표 III-24.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여부	82
표 III-25. 일상 운동 여부 및 현황	83
표 III-26. 일상생활 도움 필요 수준	84
표 III-27. 도움 내용 및 주 돌봄자	85
표 III-28. 여가시간에 주고 하는 활동	86
표 III-29. 의사 표현 수준 및 표현이 어려운 이유	87
표 III-30. 자기 효능감 수준	88
표 III-31. 일상생활 만족수준	90
표 III-32. 미래 우려 사항(1순위)	91
표 III-33. 수입원	92
표 III-34. 월 지출 현황	92
표 III-35. 채무 현황	94
표 III-36. 근로 경험 및 퇴사 이유	95
표 III-37. 현 취업 여부 및 경로	96
표 III-38. 현 취업자 근로 조건	98
표 III-39. 현 취업자 직업생활	99
표 III-40. 미취업자 구직 욕구	101
표 III-41. 미취업자 구직활동	102
표 III-42. 현 결혼 상태 및 연애 여부	104
표 III-43. 향후 결혼 의사	105
표 III-44. 결혼생활 및 자녀양육 시 어려움	106
표 III-45. 가족 간의 갈등 여부	106
표 III-46. 부모의 상황	107
표 III-47. 관계망 수준	108
표 III-48. 타인과의 갈등 이유	109
표 III-49. 외출 수준	110

표 III-50. 사회참여 수준	111
표 III-51. 군 생활 현황	112
표 III-52. 타인으로부터 괴롭힘 상황	113
표 III-53. 범죄 연루 상황	115
표 III-54. 차별 상황	116
표 III-55. 청년정책 인지 및 이용 수준	117
표 III-56. 청년정책 인지 및 이용 수준_계속	118
표 III-57. 정부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접근 수준	120
표 III-58.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욕구	121
표 III-59.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123
표 III-60.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현 거주 주택 유형	124
표 III-61.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우울감 수준	125
표 III-62.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평상 시 외출 수준	126
표 III-63. (경계선지능청년 vs 발달장애청년) 타인의 도움 필요 수준	126
표 III-64.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취업관련 현황	128
표 III-65.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	129
표 III-66.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타인의 괴롭힘 피해	130
표 III-67.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필요 정책 지원(3순위)	131
표 IV-1. 참여자 주요 정보	136
표 IV-2. 심층면접 분석 결과	138
표 V-1. 초점집단면접 종사자 일반적 정보	174
표 V-2.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174
표 V-3. 초점집단면접 부모 참여자 일반 정보	193
표 V-4. 부모의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194
표 VI-1.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221
표 VI-2. 기존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예시)	221
표 VI-3. 경계선지능청년의 주요 지원 욕구	222
표 VI-4. 주요 지원 영역별 제도 재설계 및 신설	227
표 VI-5. 청년정책 리더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229
표 VI-6.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230
표 VI-7.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화	231
표 VI-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사정책대상자 지원 확대	232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8
그림 II-1. 경계선지능 선별 및 진단 절차	51
그림 II-2.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재절차	55
그림 VI-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219
그림 VI-2.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233

○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연구추진체계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통해 청년(만19세~34세)이라는 특정 생애주기 정책대상¹⁾에 대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을 위한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정책소외계층인 경계선지능인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성이 부족하여 대부분이 학창시절부터 학교 부적응, 폭력 및 따돌림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어 성인이 되면 삶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일상생활, 대인관계, 정보 부족, 취업 진입 및 유지 어려움, 관계망, 미래계획 부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선희 외, 2018). 또한 학대, 범죄 등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연루되면서 사회 주류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사회문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강옥려, 2016). 이러한 어려움에도 현재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성인기 사회적 역할의 기회가 배제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와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계선지능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적 개념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계선지능을 특정 지능지수(71-84)에 기초하여 정의¹⁾하고 있는데, 실제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지능지수 외에 매우 복잡한 임상적 심리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어(박현숙, 2018) 개념 정의에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도 ‘경계선급 지능’,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적기능’,

1) 가장 최근 제시된 공식적 정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2020.10.5. 공포)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지능지수 71-84)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 정립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부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저성취아동’, ‘학습장애’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어 정책과 실천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 개발 및 지원 주체와 관련해서 경계선지능을 독립된 정책대상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영역이 필요한 지, 또는 발달장애의 범주로 편입하여 장애인복지영역에서 이들을 지원할 것인지 등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현숙, 2018; 이선희 외, 2018).

지금까지 진행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다룬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이선희 외, 2018). 특히 성인기 경계선지능인의 지역사회 내 전반적인 삶의 양상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간 연구들은 학령기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특성과 지원 방안을 파악하거나 언어-심리운동 등 다양한 치료 방법과 해결방안에 대한 양적 및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강옥려, 2016; 권정민, 2014; 김자경 외, 2018; 엄경남 외, 2019; 유경 외, 2007; 이명순 외, 2015; 이수진 외, 2016; 정대영 외, 2018).

성인기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해서는 이선희 등(2018)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는데, 특정 지역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해정 등(2019)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계선지능인의 기본 현황과 어려움을 조사하고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시설 이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원 가정 및 독립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경계선지능청년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이 대표적인 정책소외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전반의 생활 실태와 지원 욕구에 대한 파악은 매우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계선지능청년의 지역 내 생활수준 및 지원욕구 조사를 통해 정책소외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제 구현을 위한 부처 간 정책 연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그 동안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필요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청년 및 장애인복지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정책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청년, 부모, 관련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생활 실태와 지원 욕구를 다각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유관 기관 전문가와 필요 정책 개발과 전달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1)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일반적 현황(개념, 인구 현황, 일반적 특성, 전반적인 삶의 양상과 어려움, 연구대상자 및 유사대상자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전달체계)을 파악하였다.

둘째, 경계선지능청년의 전반적 삶의 영역에서의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요 영역에서 유사 정책대상자(일반청년, 발달장애청년)의 생활실태 수준과 비교하여 격차를 파악하였다.

셋째,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의 실태를 분석하여 연구대상자의 성공적인 청년기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절적인 정책 및 전달체계 구축을 지양하기 위해 기존 청년 및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연계성, 당사자 중심의 효과적인 정책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고려하였다.

2) 연구방법

(1) 국내외 문헌분석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내 문헌분석의 주요 내용에는 경계선지능 개념, 현황, 일반적 특성, 전반적 생활수준 및 어려움, 경계선지능청년의 지원 정책, 유사 정책대상자(일반청년, 발달장애청년)의 정책 및

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국외 문헌분석의 주요 내용에는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 5개국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현황이 포함되었다. 문헌분석 결과는 실태조사,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 조사지를 개발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청년(지능지수 71-84, 19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영역의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영역은 가구 및 주거, 교육, 건강, 소득 및 경제활동, 일상생활 및 만족도, 인권 및 사법, 정책지원 등 총 9개이다. 조사는 관련 기관 및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대면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시설보호경험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결과 중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유사 정책대상자(일반청년, 발달장애청년)의 생활실태 관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수준 및 정책소외 실태의 격차를 파악하였다. 유사 정책대상자 자료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3)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면접은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초점집단면접은 경계선지능청년의 부모와 관련 지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및 초점집단면접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청년이 생활에서 겪는 특정 경험과 어려움, 청년기 정책 및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등이다.

(4) 자문위원단 운영

전반적인 연구진행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 영역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책 개발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경계선지능인, 장애인복지, 정신건강, 청년정책, 특수교육, 사법 관련 영역의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총 7인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다. 자문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

며, 1차는 전반적인 연구계획에 대한 의견과 조사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문, 2차는 조사지 구성 및 조사 계획에 대한 타당도 검토, 3차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5)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과 전달체계 관련 사항이 실제 구현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청년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복지관 등 총 5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실행 가능성에 기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6) 협동과제 수행기관 정책 포럼

본 연구는 청년종합연구 I의 협동과제로 ‘정책소외계층 청년(경계선지능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관 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하는 정책 포럼에 참여하였다. 정책 포럼을 통해 정책소외청년 연구(경계선지능청년, 북한배경 청년, 청년부모)의 진행 상황과 주요 결과를 공유하면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개별 정책 과 청년정책 내 정책소외청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3. 연구추진체계

위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추진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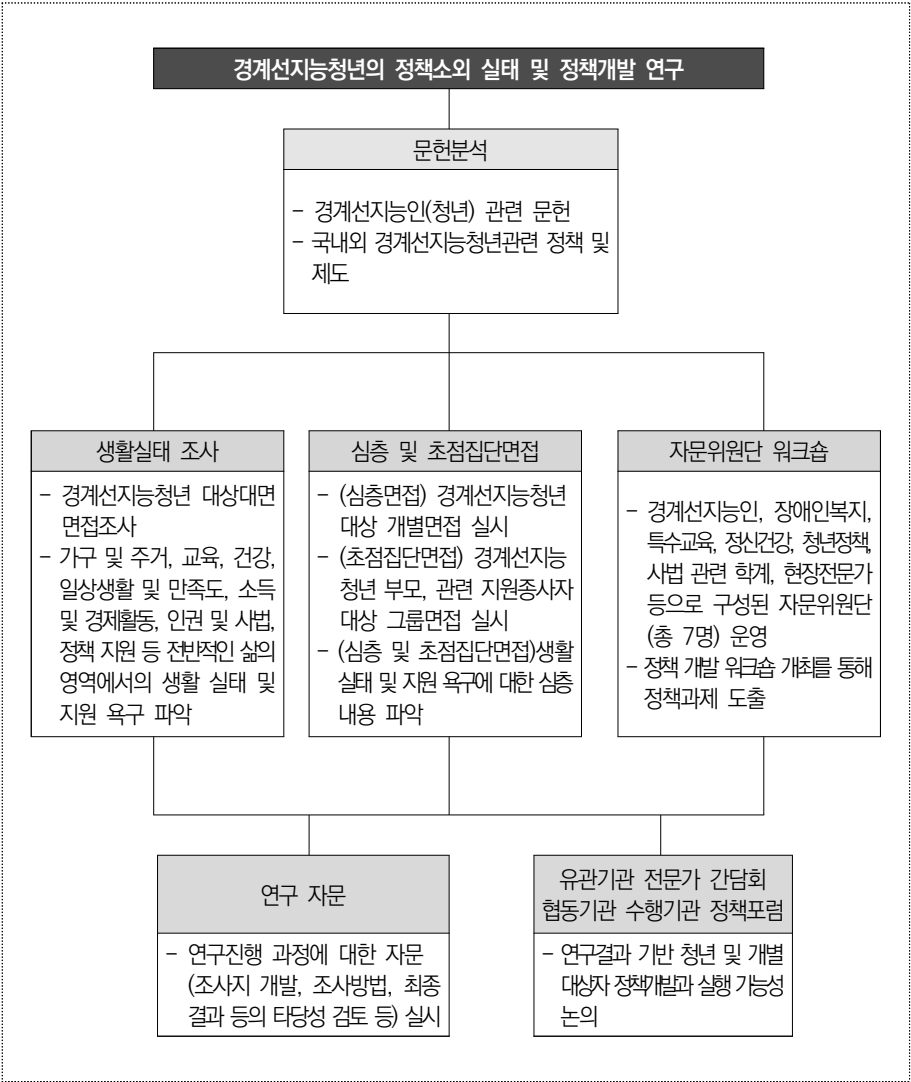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 II 장 문헌고찰

- 1. 경계성지능에 대한 이해
- 2.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 3. 국외 관련 정책 및 제도



1.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

1) 경계선지능의 개념³⁾

경계선지능은 평균범주의 지적기능과 지적장애 사이인 -1에서 -2 표준편차 사이로 지능지수가 71-84 사이에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지은, 2022). 경계선지능은 복잡한 임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고 정책과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서해정 외, 2019). 경계선지능에 대한 국제기구나 단체의 정의와 국내 경계선 지능 관련 법률 및 조례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TR: DSM-IV-TR)에서 경계선 지능은 '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정의되며, 임상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볼 수 없는 집단으로 본다. 최근 개정된 DSM-V에서는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IQ 수치와 사용가능한 표준화된 검사를 제시하지 않고 "개인의 경계선 지적 기능이 임상적 주의를 요하거나 개인의 처치나 예후에 영향을 줄 때를 치징하고, 경계선 지적기능과 경도지적장애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기능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적기능과 적응기능의 차이가 있을 때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상의 정신장애와 공병될 때 주의를 요한다."고 명시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p.727; 서해정 외, 2019). 이러한

2) 이 장의 국내 문헌 분석은 성공회대학교 김상희 박사과정 수료생이, 국외 문헌분석은 경일대학교 안예지 교수가 작성하였다.

3) 경계선 지능은 '경계선급 지능',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적기능', '저성취아동', '학습장애'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제도 및 정책, 연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BIF), Borderline level Intelligence, Borderline Mental Disability, Borderline Mental deficiency, Borderline Mental Retardation, Slow learner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함.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개정된 DSM-V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지표를 제시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Wieland & Zitman, 2016).

국제질병분류(ICD-10; 세계건강기구, WHO, 1992; 서해정 외, 2019)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인지적 기능과 인식을 포함한 불특정한 증상과 징후”로 설명했다. 미국지적장애협회(AAIDD)에서는 경계선지능을 장애가 아니라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지적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 ICD-10(World Health organization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개정판)에서는 경계선지능이 인지적 기능과 인식에서의 결함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았으며, 개인에게 필요한 지지의 정도를 고려해야하는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박현숙, 2018). 현재까지 DSM-V나 ICD-10과 같은 국제적 분류체계에서도 경계선 지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자치법규의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2020.10.5. 공포)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에서도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포함된 느린학습자 지원 근거법에서는 “성격장애나 지적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능 정규분포를 고려할 때 경계선 지능의 범주는 전체 인구의 13.59%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지적장애 2.3%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볼 수 있다(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20). 또한 한 반에 3명이 경계선 지능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변관석, 신진숙, 2017; 강옥려, 2016). 경계선 지능 학생 출현율을 지능 분포 상 약 13.59%로 간주하였을 때 2020년 기준 19세 이하 아동이 893만 명으로 나타나 이 중 121만 4천 명 정도가 경계선지능학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주은미·최승숙, 2021).

아동보육시설 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기관의 전체 아동 15,180명 중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 받은 아동 1,055명(6.9%), 의심아동을 1,475명(9.7%)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전체 보호아동의 16.6% 정도이다(신혜령·주보라, 2013).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전국의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총 254개소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진단 또는 의심 아동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기관 평균 8.55명으로 진단 아동(5.08명) 및 의심아동(3.8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 정상분포를 고려할 때 경계선 지능 범주를 약 14%로 할 때 전체 보호 종료 아동이 매년 약 2,700여명이 넘는데 그 중 경계선지능아동 약 280-380여명이 퇴소하여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서해정 외, 2019).

2) 경계선지능인의 일반적 특성

경계선지능인의 특징을 인지적 특성과 정서·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인지적 특성

경계선지능인은 또래에 비해 인지발달 수준이 제한적이며 추상적·추론적 사고, 언어적 능력, 주의집중 및 작업기억력, 지시수행에 어려움을 가진다. 경계선지능인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워하며 잘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판단이나 결론을 끌어내는 추론적 사고에 어려움이 있다. 지식 간의 관계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지식의 논리적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다(박현숙, 2018). 학습활동의 내용에서의 개념과 일반적인 생각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배운 책략이나 규칙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몰라서 일반화하지 못한다(서해정 외, 2019; 신혜령·주보라, 2013).

경계선지능인 대부분 유아기에 언어발달 지체를 경험한다. 일부는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보이기도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어휘력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 외, 2007). 자신이 들은 것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미성숙과 정서적 위축으로 단어보다 몸짓이나 동작 사용이 많고, 말하기를 망설이거나 반복하며 대충 말해버리기도 한다(신혜령·주보라, 2013). 기본적인 학습인 읽기와 쓰기 영역보다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정보처리, 셈하기, 독해력 등에 제한이 있다(윤영란 외, 2021). 언어능력의 부진은 사고과정 뿐 아니라 학업성취와 사회성 함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현숙, 2018).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지시를 따르는데 있어 지시를 거부하거나 지시받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지시를 할 경우 지시에 따르지 못한다. 지시사항을 말로만 전달하면 과제 완성에 어려움이 있다(이선희 외, 2018).

경계선지능 아동은 주의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은 일반 아동과 비슷할 수 있으나, 보통은 일반아동에 비해 산만하고 주의집중을 오래 하지 못한다. 경계선지능 아동이 잘 지각하게 하고, 주의시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짧고 잦은 수업, 개별화된 교육시스템, 매체 활용이 도움이 된다(엄경남·이재경·문정희, 2019). 단기·장기·작업 기억에 효율성이 낮아서 전반적으로 기억력이 부족하며, 장시간 동안 정보를 기억하고 필요할 때 정보를 회상해 내지 못한다(서해정 외, 2019; 신혜령 외, 2013).

(2) 정서·사회적 특성

경계선 지능 아동은 비장애 아동들과 비교해보면 정서·사회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표정 및 정서 인식 과제를 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또래들과 함께 놀기 보다는 혼자 노는 행동을 더 보이고 즉흥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야하거나 문제해결, 행동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일반 아동보다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거나 혹은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일반적으로 경계선지능 아동은 내향적이고, 미성숙하고, 낮은 자기상을 가지고,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하다. 시간 개념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정, 2006).

경계선지능 아동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 자존감이 낮고 이로 인해 의존적이고 인정 받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다. 경계선 지능인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단체생활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엄경남 외, 2019).

청소년기의 경계선지능인들은 기초학습 역량이 부족하고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계속되는 학습 실패와 관계의 부적응은 학업 중단,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다(진현정, 2016).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며, 이러한 특성은 다른 과업 수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황지은, 2022). 반복된 학업 실패로 무능감과 부정적 자기효능감 등의 자아개념이 문제가 된다.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집중력이나 충동성의 문제가 동반될 경우 인터넷,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엄경남 외, 2019).

경제선지능 청년들은 잦은 실패 경험으로 인해 심한 좌절과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고,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며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낀다(진현정, 2016).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어 사회적·행동적으로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황지은, 2022).

3) 경제선지능청년의 어려움과 필요 지원

(1) 경제선지능청년의 어려움

경제선지능 아동·청소년이 보이는 어려움은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심각해진다고 보고 된다(황지은, 2022). 경제선지능청년은 청소년기에 충분한 학업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졸업 또는 대학 진학을 못하거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박찬선·장세희, 2018). 취업진입 시 단순 작업이나 단기 근무 형태의 직종에 국한되고,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여 취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진현정, 2016). 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낮은 임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거나(엄경남, 2019)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2차 부적응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박찬선·장세희, 2018).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가까운 친구가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타인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다.(엄경남 외, 2019)

진현정(2016)은 경제선지능청년의 자립과정에서 개인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에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보았다. 적절한 교육의 미비,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지원서비스 부족 등은 경제선지능 청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주은미·최승숙 2021).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 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제선지능 청년이 장애인 범주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장애등급을 받는 것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임무 수행으로 인한 퇴행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김동일 외(2021)는 학령기에 나타나는 교우관계의 문제는 성인이 되면 직장 내 적응 문제 또는 이성교제에서의 어려움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며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생활을 하거나 충동적, 공격적 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불안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경계선 지능인이 가지는 주요 어려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1. 경계선지능인의 주요 어려움

구분	주요 내용
학습(교육)	- 학습축적이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하며 연결된 사고가 되지 않아서 단계별로 각각의 것을 알려줘야 함 - 학교 공부와 일상생활의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가짐 (예: 수학 계산을 가능하나 식당의 메뉴 주문, 돈 계산은 어려움) - 학습이 사회화와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학습능력 개선이 어려움 - 교육정책 등이 학습부진에만 집중되어 있음 -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경계선지능인의 특징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함 - 청소년기에 학업과정을 충분히 성취하지 못하여 졸업, 대학진학을 못하거나 적절한 진로계획, 직업교육을 못 받고 성인기를 시작
또래·타인과의 관계	- 타인과의 관계형성·유지에 있어 전체적인 상황이해능력 부족, 감정 읽는 능력 부족,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가짐 -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서 갈등, 따돌림, 소외, 괴롭힘의 경험으로 상처를 가지는 경우도 있음 -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친구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나타남 - SNS 등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친구관계 형성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을 순수하게 표현하다보니 관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학창시절 친구와의 관계 문제가 직장 생활 및 동료와의 관계로 확장되어 나타남
사회적 인식 부족	- 교사가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해와 편견의 심화와 낙인효과 증가 - 경계선지능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의 오인과 갈등 발생 - 장애인과 달리 사회적 인식에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낮은 인식과 도움 받기보다 잘못된 인식으로 오해 받거나 또 다른 갈등 유발하게 될까봐 두려워함
가족 간의 갈등	- 부부간의 경계선지능 자녀에 대한 이해, 가치관, 교육관의 차이, 어느 한 쪽의 양육 부담,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갈등 발생 - 경계선지능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자녀를 질책하거나 몰아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 하여 자녀를 고립시키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며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나타남 - 경계선지능자녀에게만 부모가 관심을 두다보니 다른 자녀가 방치되거나 소홀한 문제 발생, 자녀 사이에 경계선지능 형제·자매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어 형제·자매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남
부모의 어려움	- 경계선지능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좌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 함. 상당한 육체적, 정서적 피로감을 느끼며 소진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함 - 경계선지능 자녀의 교육과 정보의 부족으로 답답함 느낌

구분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 자녀의 양육, 교육, 스트레스도 부모의 몫임 - 경계선지능 자녀가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속상함
경제적 어려움	- 경계선지능에 대한 공공부문의 체계적 지원 부족으로 자녀의 치료, 교육 비용은 가정에 부담이 됨. - 경계선지능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에 어려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됨
성별에 따른 어려움	- 남성의 경우 군복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복무 부적응병사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의 경우 성폭력, 성매매 등의 문제에 노출되기 쉬움

(2) 필요지원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과정은 개인적인 노력만이 아닌 외부적 시선들과 자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과정이 하나의 맥락으로 만들어진다(진현정, 2016). 이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교육,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경계선지능청년 필요지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료한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에 대한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 본인의 상태를 알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진현정, 2016).

경계선지능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지원과 성인기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성인기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학령기 고등교육과정에서부터 경계선지능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자격을 갖추어 정도장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 거점학교 등을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주은미·최승숙, 2021). 학령기 이후의 교육과정 지원에 있어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등록 장애학생만이 아닌 학습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생할 적응을 위한 구체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주은미·최승숙, 2021). 윤영란 외(2021)는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평생교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에는 정서, 행동, 학습, 사회성, 취업, 부모교육, 가족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학업에 중점을 두고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나 정서·사회성 등 학교생활에 중요한 다른 영역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이금진, 2011). 경계선지능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계선지능청소년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마련과 일반청소년과 또래 멘토링, 경계선지능 청년들과의 또래모임을 통한 친목도모 활동 등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의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김동일 외, 2021; 주은미·최승숙, 2021).

경계선지능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으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주은미·최승숙, 2021).

성인기 느린학습자는 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며 자립을 위한 지원이 없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위한 적절한 자립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성훈련과 맞춤형 직업훈련, 잡 코칭과 같은 고용서비스, 적합 직종 개발, 자립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주거지원 등을 들 수 있다(엄경남 외, 2019).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필요한 교육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진현정(2016)은 경계선지능 성인들만을 위한 기업 직영 보호작업장과 같은 시설 마련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확보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기술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을 제시하였다. 윤영란 외(2021)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 시설이 부재하여 기존 시설이용에 대한 이용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하였다.

경계선지능 청년의 취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김동일 외(2021)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직업교육 및 훈련, 현장실습 프로그램, 맞춤형 일자리 개발, 경제활동 진입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선희 외(2018)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그룹들의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 지원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느린학습자지원 센터와 같은 거점조직을 만들어 조직화, 의제화에 노력하고 행정과 정책결정자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홍보노력을 제안하였다. 서해정 외(2019)는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은 등록 장애인이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한데, 경계선지능인을 현행 법률에 포함 하거나 특례법으로 제정하여 훈련받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진단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의무고용과 같이 우선 취업될 수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사자 이외에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주위의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자조집단을 통해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진현정, 2016).

엄경남 외(2019)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양육과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지워진 상황으로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치료와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보제공, 부모·가족 교육, 상담서비스, 휴가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송하웅 외(2020)은 느린학습자의 군대 부적응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경계선지능인을 선별할 수 있는 병역입영 관리시스템 구축, 군대 내 지원 시스템(군 지휘관 대상 경계선지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개선) 마련, 현역 복무 적합 수준에 따른 다양한 병역처분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서해정 외(2019)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계선지능아동 청소년은 학습 및 자립과정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립준비(보호종료)아동청소년보다 길게 사후관리 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거점센터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엄경남 외(2019) 느린학습자지원센터(가칭)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연구, 정책 개발, 정책 이행 모니터링,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추진과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참고로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경계선지능인중점지원센터 ‘느린소리’가 개소되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1) 경계선지능청년/청년/발달장애성인 대상 지원 정책 및 제도

경계선지능청년을 비롯하여 유사 정책자인 일반 청년(후기 청소년 포함)과 발달장애인(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및 공공·민간기관의 정책 및 서비스를 교육, 건강 및 의료, 취업, 주거 및 자립, 소득, 일상생활, 문화·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가족지원 영역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경계선지능청년/청년/ 발달장애인 성인 대상 지원 정책

구분	교육	재활·건강·의료	취업	주거 및 자립	소득	일상생활·문화·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가족지원
경계선 지능청년 (청소년)	•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을 위한 대안학교 •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 지원(서울 시교육청/부산교육청) •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경계선지능아동(느린 학습자)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지원(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지역 사회서비스투자 사업)	-	•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경계선지능)청소년 주거 지원사업(청소년자립지원관)	-	• 서울시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 느린학습자 시민화 • 춘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	•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하랑'
청년 (청소년)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급식비 지원 • 일학습병행제(청소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청년 정신건강 조력지원센터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 위(wee) 프로젝트 상담지원 • 청소년 치료재활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추가고용지원금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 내일아름	• 청년주거지원 (미혼청년주거급여 분리자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대상 저리 대출 상품 등) • 청년주택(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	• 일하는 자손 등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햇살통유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센터'(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기타서비스) •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쉼터	-

구분	교육	재활·건강·의료	취업	주거 및 자립	소득	일상생활 문화·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가족지원
		센터(국립중앙청 소년다임센터) 운영	학교	택, 청년 공공지 원주택 등)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 청소년자립지원관 서비스 • 자립지원전담기 관서비스(사 후 관리,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씨잇통장)			
발달 장애인(성인)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 발달재활 서비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일자 리 지원 - 장애인 직업 능력개발훈련 센터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인을 위 한 요금 할인 및 감면 제도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 간활동 서비스	-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 무려법률구조제도 - 진술조력인제도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장애이 가족 양육 지원

구분	교육	재활·건강·의료	취업	주거 및 자립	소득	일상생활·문화·여가	안전 및 권리보장	가족지원
			• 근로지원인 사업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1) 교육지원

경계선지능인, 일반청소년 및 청년, 청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경계선지능인은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교육청 및 공공·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 시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난독·경계선지능 의심 학생의 진단 및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느린학습자(학습부진, 경계선지능, 발달장애, 정서장애 등을 가진 학생)를 대상으로 학업교육, 진로·직업교육, 예술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대안학교가 있다. 경계선지능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경계선지능 평생교육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 지원망 구축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부분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은 일부 청년 대안학교 및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뿐이라 학교 졸업 이후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은 저소득가구 학생의 학비 및 급식비 지원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서비스로 학비 지원이 대부분이고,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하는 일학습병행제 정책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교육지원 서비스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와 장애대 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 있다. 두 사업은 장애 등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계선청년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 등록을 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표 II-3. 교육정책 및 지원

대상	교육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경계선지능인	○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을 위한 대안학교 - 대상: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 ADHD, 정서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10~30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 내용: 기본교과, 진로·직업교육, 예술교육, 관계형성기술 교육 등 - 학교: 이루다 학교, 예림예술학교, 예학예술학교, 성장학교 별, 사람사랑 나눔학교, 꿈틀학교 등 ○ 난독·경계선지능학생 학습지원(서울시/부산시/인천시 교육청) - 대상: 난독·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 내용: 난독·경계선지능 전문가관과 연계하여 진단 및 맞춤 프로그램 지원 ○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2022. 6 개관) - 대상: 경계선지능인 청소년, 청년, 가족 등 - 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인지학습, 사회정서, 직업능력, 문화예술), 전문가관 연계, 도래 멘토링 연계, 자조모임 지원, 심리정서상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연구개발, 인식개선 ○ 경계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아동권리보장원) - 대상: 경계선지능아동(IQ 70~85에 속하며, 학습 및 적응속도가 느려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 내용: 경계선지능아동의 상황 및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인지·학습·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전문강사 파견, 가족·교사·지역사회 대상 경계선지능 아동 이해증진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연구 등 - 지역사회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실을 통해 연계 - 실시기관(예): 지역아동센터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안동 길주초,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청소년 프로그램,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청소년 프로그램, 서울시 동대문구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지원사업 '더불어 Double up'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지원사업, 구로종합복지관 느린학습자 성장지원 사업 고양시현동종합사회복지관 '늘보나래' 등
청년/청소년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대상: 대학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 - 내용: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고교학비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급식비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일학습병행제 - 대상: 특성화고(2~3학년), 전문대(2학년), 대학교(3~4학년) -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대상	교육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발달장애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대상: 만12세~만17세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 내용: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등) - 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및 전문교육지원인력 지원

(2) 재활·건강·의료지원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영·유아 시기에 또래에 비해 언어·인지, 사회성 발달이 늦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통해 발달중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사회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는 정서불안, 학습부진 등의 어려움을 가진 경계선지능청소년이 우선 이용 가능하나 소득 기준이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우울, 불안, 부적응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이용이 필요하다. 일반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는 경계선지능청년도 이용 가능하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돕는다. 경계선지능아동의 경우 치료서비스 이용으로 가정에 부담이 큰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II-4. 재활, 건강, 의료정책 및 지원

대상	재활·건강·의료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경계선지능인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정의 만0세~6세 - 내용: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대상	재활·건강·의료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ADHD, 정서적 문제, 사회성 결여,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반항,品行장애, 비행 등 문제가 나타난 아동·청소년) - 내용: 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상담 프로그램,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청년/청소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대상: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우선 지원 -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전·사후검사,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종결상담 등)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 대상: 정신증(불안증,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등) 고위험군 또는 정신증 진단을 받은 만 15세~34세 청년 등 - 내용: 온·오프라인 인지행동치료, 직업활동 및 학교생활 지원, 가족 및 또래 자조모임 운영 지원, 정신건강 진료 연계지원 등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 대상: 만 19세 미만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 내용: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치유 프로그램, 중독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위(wee) 프로젝트 상담지원 - 대상: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학교폭력, 학업중단위기, 학습부진, 따돌림, 대인관계, 비행 등). 학생과 관련된 상담을 희망하는 보호자 및 교사 - 내용: 학교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 ○ 청소년 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대상: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 내용: 상담·치료, 보호, 교육, 자립지도, 힐링·특성화캠프, 장기과정지원
발달장애인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정의 만0세~6세 - 내용: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 발달재활 서비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 내용: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매월 14~22만원), 시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 지정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언어,청능,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대상	재활·건강·의료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인) - 내용: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3) 취업지원

선행연구에서도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욕구와 걱정이 가장 크다고 나타났다(이선희 외, 2018). 그러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지원서비스는 전무한 상황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제도 및 일자리 사업에 참여 가능하나 경쟁고용과 창업에 있어 경계선지능청년은 진입에 한계를 가진다.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직업능력에 맞는 직무개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을 통해 취업을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한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를 참고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서비스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II-5. 취업 정책 및 지원

대상	취업 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경계선지능인	-
청년/청소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I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II -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조건부 수급자 등 - 내용: I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지원 II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소정의 취업활동비용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대상) - 대상: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내용: 신규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상 거주 - 내용: ① 지역혁신형: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지원 ② 상생기반대응형: 창업기회 및 성장 정착 지원(지원금, 인건비)

대상	취업 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③ 지역포용형: 지역사회공헌분야 직무교육 및 종사기회제공 ○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 대상: 청년몰 입점을 희망하는 만19-39세의 청년상인 - 내용: 청년몰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 확장지원, 청년상인 도약 지원, 전통시장 대학협력 지원 등 ○ 내일이룸학교 - 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발달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내용: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복지형일자리(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디앤디케어 등),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자 보조일자리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 대상: 만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훈련기관(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훈련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지급 (*발달장애인: 사무행정지원, 제조기술 서비스산업 훈련)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 대상: 특수교육 대상(고등학교 과정 및 전공과), 고등학교 졸업예정 발달장애인 - 내용: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69세 장애인(소득에 따라 유형 구분) - 내용: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 지원을 위한 단계별 전문 서비스(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직업능력 향상, 집중 취업알선) 제공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대상: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내용: 훈련기간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 훈련 준비금, 훈련수당 등 지원 ○ 근로지원인 사업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내용: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장애인근로자의 업무 지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대상: 중증장애인 - 내용: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재활계획,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4) 주거 및 자립지원

선행연구 결과 아동양육시설 아동 현황 조사 결과 기관 평균 8.55명의 경계선지능 진단·의심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혜정 외, 2019), 상대적으로 높게 경계선지능 아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매년 전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경계선지능아동이 약 280-380명이 퇴소하여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놓여있음을 예상하고 있다(서혜정 외, 2019).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시설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과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 중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서비스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주거비 지원과 청년주택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 퇴소 이후의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서비스와 자립수당 지원이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정책을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는 시설 경계선지능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표 II-6. 주거, 자립 정책 및 지원

대상	주거 및 자립 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경계선지능인	○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 목적: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사 양성을 통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참여시설 컨설팅 및 평가 - 사업지역: 전국 17개 시도 - 사업대상: 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내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아동 및 돌봄 종사자 - 주요내용: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및 심화과정,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사례회의 및 컨설팅, 양육자 교육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경계선지능아동 - 내용: 선별검사 비용 지원, 인지학습, 정서·사회성, 자립영역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	주거 및 자립 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 청소년복지시설폐소 경계선지능청소년 주거지원사업 -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경계선지능청소년 - 내용: 주거지원(보증금·월세지원, 주거환경조성비 지원), 상담지원, 커뮤니티하우스 지원, 자립훈련 프로그램 지원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실시)
청년/청소년	○ 미혼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만19세~30세미만 미혼자녀 및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내용: 주거급여 지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대상: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기준 충족하는 무주택자 - 내용: 월 임차료 지원 ○ 청년 대상 저리 대출 상품 -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 - 내용: 낮은 대출 금리 적용 ○ 청년 전세 임대주택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 - 내용: 입주대상자 희망주택을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대상: 만19세~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장 - 내용: 청약기능, 소득공제 혜택,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 청소년자립지원관 -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내용: 개인별자립계획 수립, 일상생활, 학업, 취업 및 주거 등 자립 목적의 사례관리를 통해 퇴소 후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도 및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서비스 -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모든 자립준비청년 - 내용: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제공)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만 19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 해당 - 내용: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대상	주거 및 자립 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발달장애인	○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발달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내용: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 구매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5) 소득지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과 저금리대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요금 할인 및 감면 제도가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득지원 서비스는 없으나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표 II-7. 소득 정책 및 지원

대상	소득 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경계선지능인	-
청년/청소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 내용: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목돈 지원 ○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 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만15세~만39세 청년) - 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햇살론유스 - 대상: 연소득 기준 이하의 만34세 이하 청년 - 내용: 저금리 대출
발달장애인	○ 장애인연금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내용: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지급 ○ 장애수당 -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소득 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 장애인을 위한 요금 할인 및 감면 제도 -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가정 또는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 내용: 방송요금, 통신요금, 교통비(철도, 지하철, 항공요금, 역객운임 등), 자동차 정기검사 등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차 과태료,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연장공공체육시설 입장료 및 이용 요금 등 감면

(6) 일상생활·문화·여가 지원

서울시는 발달장애아동과 느린학습자 아동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문화·여행·예술·체육활동 시 사용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은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경제선지능인, 발달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II-8. 일상생활, 문화, 여가 정책 및 지원

대상	일상생활·문화·여가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경제선지능인	○ 서울시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 대상: 발달장애아동과 느린학습자 아동 - 내용: 느린학습자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쉬운 글자제작 배포, 독서교실 등
청년/청소년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내용: 문화·여행·예술·체육 활동 시 사용 가능
발달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 대상: 만 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대상: 만 18세~64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장소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낯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7)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경제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통합과 자립실현을 위하여 느린학습자시민회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춘천에서는 경제선지능인 지원센터가 개소하여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 안전 및 권익보장 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 교육, 직업교육,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의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1388상담전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있다. 또한 무료법률구조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법적 관련 문제를 지원한다.

표 II-9. 안전, 권익보장 정책 및 지원

대상	안전·권익보장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경제선지능인	○ 느린학습자시민회(느린학습자 인권운동 단체) - 목적: 느린학습자의 보육·돌봄, 교육, 복지, 노동권 등 느린학습자의 권리옹호, 사회적 불평등 해소, 느린학습자의 사회통합과 자립실현 - 대상: 느린학습자 당사자, 가족 등 - 내용: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권익옹호, 사회통합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평생교육 사업, 정책제안, 연구, 학술, 출판, 미디어 사업 등 ○ 춘천 경제선지능인중점지원센터 ‘느린소리’ (2022. 7 개소) - 대상: 느린학습자(경제선지능인) - 내용: 부모자조모임, 강연, 정책 토론회,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실태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카페 개설,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청년/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센터’ - 대상: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초, 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내용 ① 상담지원(심리, 진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심리적 어려움 상담) ② 교육지원(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지원, 대학입시 지원, 복교 지원 등) ③ 직업 체험 및 직업 교육훈련 지원(직업탐색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취업훈련 연계지원) ④ 자립지원(자격증취득,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⑤ 건강검진 및 기타서비스

대상	안전·권익보장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 청소년쉼터 - 대상: 가정해체나 학대, 방임 등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 내용: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 자문지원 연계, 진로 탐색 및 직업지도, 취업지원, 감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퇴소 후 LH임대주택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 청소년전화 1388 - 대상: 만9~24세 청소년 - 내용: 청소년 상담서비스 (일상고민, 가족갈등, 교우관계,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진로 및 학업 문제 등)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대상: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성인장애인 - 내용: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무료법률구조제도 -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 - 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소송비용 일체 무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변호사비용 지원 ○ 진술조력인 제도 - 대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중 만13세 미만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내용: 피해자 사전평가,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등

(8) 가족지원

경계선지능을 가진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둔 부모와 가족의 경우 경계선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갈등과 부담이 나타난다.

이에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가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정보공유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지원, 부모상담, 가족휴식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경계선지능인 가족에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II-10. 가족지원 정책

대상	가족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경계선지능인	○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하랑’ - 대상: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 - 내용: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공유, 상담
청년/청소년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대상: 발달장애인 및 가족 -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제공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내용: 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2) 소결

국내 경계선지능인, 청소년 및 청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 및 서비스를 교육, 재할·건강·의료, 취업, 주거·자립, 소득, 일상생활·문화·여가, 안전·권익보장, 가족지원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의 특징과 이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살펴 본 경계선지능청년의 지원정책을 통해 주요 대상이 경계선지능아동 및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과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이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아동 양육시설 및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생교육지원센터 및 일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이들의 지원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계선지능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영역별로 개발·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각 영역을 살펴보면 교육영역의 정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경계선지능의 경우 학습부진을 나타내는데 이에 학령기 아동의 교과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이 대안학교, 학습지원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 졸업 이후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로 나아가는데,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이러한 진로계획 및 다음단계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계선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영역을 살펴보면 거의 없다. 이에 대학진학을 한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해서 장애인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 수업 및 생활에 적응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인으로서 자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경제적 자립은 자립의 주요요소 중 하나인데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은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창업 정책에 참여 가능하나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 또는 일반 경쟁고용을 통한 취업은 매우 어렵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정책은 다양하나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경계선지능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정책 개발에 있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제도 일부를 참고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직업능력에 맞는 직무 및 일자리 개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및 취업 후 사후지원,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직업재활시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계선지능청년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안정적인 취업과 유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 장애인 취업지원 정책의 대상을 경계선지능청년까지 확대하거나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경계선지능청년의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지역사회 적응,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자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느린학습자시민회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고 있을 뿐 이외의 조직 및 정책은 없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거점기관으로서 경계선지능 당사자, 가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인식개선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경계선지능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 자녀의 실패경험과 친구관계에 대한 속상함과 걱정,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들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나 현재는 온라인 커뮤니티 부모회만 있다.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동료상담, 가족휴식 지원 등의 지원 정책 개발과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

3. 국외 관련 정책 및 제도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국제 진단기준인 DSM에 따라 지적장애를 정의하며, 이 기준에 근거하여 경도 지적장애(MID; IQ 50-69)와 경계선지능(BIF; IQ 70-85)을 구분한다. 최신 기준인 DSM-5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으로나 연구 등에서 두 집단이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징이다(Nouwens, Lucas, Embregts, & van Nieuwenhuizen, 2017a; Wieland, Haan, & Zitman, 2014). 이론적으로는 국제 진단기준인 DSM-5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원의 관점에서 지적장애인과 경계선 지적장애인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대부분이 경도 지적장애인과 같은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는 개인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기존 지적장애인 지원기준인 지능점수(IQ)에서 개인과 환경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요구에 초점을 두는 기능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Luckasson & Schalock, 2013).

실제 네덜란드의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형사사법 등의 다른 서비스의 대상 또한 될 수 있다(Bonta, Blais, & Wilson, 2014; Douma, Dekker, de Ruiter, Tick, & Koot, 2007; Herrington, 2009; Wieland & Zitman, 2016). 이러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네덜란드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장기요양법(the Long-term Care Act: Wet langdurige zorg: Wlz)과 지방자

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지원법(the Social Support Act;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Wmo). 그리고 개인의 건강 보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Act; Zorgverzekeringswet: Zvw)에서 찾을 수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22).

(1) 장기요양법(Wet langdurige zorg: Wlz)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Wlz를 근거로 중앙 정부는 주거(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집중적인 형태의 보살핌과 지원을 보장한다. 지원대상은 치료의 적합성을 평가받는 치료 필요 평가 센터에서 24시간 돌봄에 가까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지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된다. 지원의 종류는 개인지원, 간호지원, 치료/거주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사회지원법(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Wmo)

지방자치단체는 Wmo를 통해 수혜자의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돌봄이나 치료 지원 등을 보장한다. 이 법은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에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지능검사는 의무가 아니나 지자체 기준에 근거한 적격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의 형태는 직접적인 지원(예: 가사 지원, 생활 지원)이나 개인 예산을 통한 지원금으로 제공될 수 있다.

(3) 건강보험법(Zorgverzekeringswet: Zvw)

장기요양법의 하위법령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Zvw는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네덜란드인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의료지원 등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 이외에도 이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참여법(Participation Act; Participatiewet)과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평등 대우법(Equal Treatment of Disabled and Chronically Ill People Act)을 두고 있다. 개인과 환경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제공하는 네덜란드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장애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당 법령은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보장한다.

(4) 참여법(Participatiewet)

참여법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지적장애로 인해 취업에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해당 법은 개인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불가능할 경우 기초 생활 지원금을 보장하며, 필요시 보호고용을 지원한다. 참여법은 기존 네덜란드의 보호고용법(the Sheltered Employment Act; Wet Sociale Werkvoorziening: WSW), 근로 및 사회지원법(Work and Social Assistance Act; Wet wer en Bijstand: WWB), 초기 장애인법(the Invalidity Provision Act; Wet arbeidsongeschiktheidsvoorziening jonggehandicapten: Wajong) 등의 역할을 대체하는 법령으로 평가된다.

(5)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평등 대우법(Wet Gelijke Behandeling)

2003년 제정되고 시행된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평등 대우법은 모든 개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주거, 교육, 사회,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정리하면, 네덜란드는 상황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계선지능인 또한 대부분의 경도 지적장애인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하기에 발생하는 동일한 지원의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와 동일하며, 그 지원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에 지적장애나 다른 장애와는 유사할 수도 혹은 상이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요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ouwens et al.(2017b)은 경계선지능인 개인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적절한 치료(Appropriate care)’를 주장하며,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칭 케어가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따른 요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인간의 기능향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Thompson et al.

2009). 즉,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 유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Van Straten, Hill, Richards, Cuijpers, 2015). 이에 Nouwens et al.(2017a)은 경도 지적장애인(MID)과 경계선지능인(BIF) 25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구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MID와 BIF집단은 크게 다섯 개의 프로파일로 구분되었으며, 집단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경도 지적장애 집단’으로 250명 중 85명(34.0%)이 포함된 가장 큰 규모의 집단이다. 해당 집단으로 분류된 개인의 절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대개 좋은 환경과 부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프로파일과 비교하여 비공식적 지원을 받은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문제행동을 보이는 남성 집단’으로 51명(20.4%)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집단에 포함된 개인은 알코올이나 약물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였으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가지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수준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집단은 ‘경제적 문제 또는 학대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47명(18.8%)을 포함한다. 이들은 부모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 여성에게서 많이 보이는 프로파일로 기분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의 측면에서는 평균 23.9살이라는 늦은 시기에 전문적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타인과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가지는 특성을 보였다. 네 번째 집단은 ‘문제행동과 가족문제가 있는 남성청소년 집단’으로 37명(14.8%)을 포함한다. 해당 집단 개인의 다수가 감옥 수감과 같은 사법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불우한 가정환경에 성장한 특성을 보였다. 특히 이들 모두가 100% 이혼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이다.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집단은 ‘중독문제를 동반하는 집단’으로 30명(12.0%)으로 구성되었다. 이 집단의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수준이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집단 구성원 모두가 중독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낮 시간에는 아무활동도 하지 않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범죄 활동에 연루되거나 학대의 피해 경험 이 있고, 타인과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가졌다.

경계선지능인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경도 지적장애인 및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지원을 받더라도 그 지원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된다(Dekker & Koot, 2003).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eijmeijer et al.(2019)은 경도 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중재 모델로 유연한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Flexible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FACT)를 제안하였다. FACT는 정규 시설에서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한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해 개발된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ACT)를 기반으로 수정된 모형이다. ACT는 자발적 동기가 없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기능과 사회 참여 개선을 통해 병원 입원(위기)을 예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ACT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은 정신과 의사, 행동 전문가, 사회 복지사 및 (전문) 정신과 간호사로 구성되며, 서비스 대상자의 집이나 지역 사회의 다른 곳(예: 대피소, 직장 및 거리)에서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치료와 보살핌(예: 약물, 생활 지원, 직장 및 재정 지원, 심리 치료 중독 치료 등)을 제공하는 정신건강 치료 모델이다. 반면, 네덜란드에서 제안된 FACT는 ACT에 비해 비교적 유연한 모델로 높은 수준의 집중지원은 물론 중간 수준의 집중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치료 및 관리의 강도는 필요에 따라 쉽고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Van Veldhuizen, 2007). 네덜란드에서 FACT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경도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고, 정신건강, 중독, 범죄행동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로 다른 형태의 지원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FACT는 네덜란드에서 중증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을 위한 치료를 조직하는 표준이 되었으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호평을 받았다(Firn & Brenton, 2015). 최근에는 경도 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 또는 도전적인 행동 지원에 대한 후속 연구(Neijmeijer et al. 2018)를 통해 그 효과성을 증명하며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도 지적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증거기반 치료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Neijmeijer et al., 2019). 증거기반 치료의 부족은 경도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치료의 수요와 제공 사이의 격차, 학대의 위험 증가, 오진으로 인한 비효과적이거나 혐오적인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Allen et al., 2011). 이에 네덜란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서는 FACT를 비롯한 다양한 증거기반의 개입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 미국

미국 또한 네덜란드와 동일한 국제 진단기준(DSM)에 따라 지적장애를 정의하고 지원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1935년 노인, 실업자, 장애인 등과 같이 개인의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근로와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는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장애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사회 보장 장애 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과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Disability Secrets, 2022a).

(1)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SSDI는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개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로 진단되기 10년 이전의 기간 중 5년 이상 근로를 하며 세금을 납부한 경력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한 지원이다. 또한 장애로 인한 손실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대될 때 개인의 자산이나 가족의 수입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생활 보조금(SSI)

SSI는 저소득층의 최소 생활 수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SSDI와 다르게 필요를 기반으로 지원이 제공되기에 서비스 수혜 대상의 이전 근로 또는 세금 납부 경력이 요구되지 않으나, 개인의 자산이나 가족의 수입 수준이 지원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생활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에 따라 의료 비용을 의미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음식 배급권(food stamp), 메디케어 할증금 등의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eve Foundation, 2022).

언급한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와 이전의 근로 및 납세 경력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비의학적인 기준을 근거로 SSA에 의해 적격성 평가를 받게 된다. 과거 미국에서 SSDI와 SSI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해당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점차 개인의 기능 및 생활기술과 같은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면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이 논의되었으며, 2017년 SSA는 경계선지능을 포함하는 신경발달장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계선지능으로 근로나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으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Disability Secrets, 2022b).

경계선지능으로 SSA의 서비스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영역에서 심각한 제한을 가지거나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자는 경계선지능으로 인해 용어 및 절차를 배울 수 있고, 지침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질문에 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보 이해 또는 사용 능력,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하며, 위험을 인식하고 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 작업을 시작하고 끝내거나 적시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집중 및 유지 능력,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과도한 과민성 또는 민감성이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상호작용 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각 또는 현저한 수준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학교 기록, 교사 또는 의미 있는 타인의 증언 등을 지능검사 결과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된다. 만약,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잔여 기능 역량(Residual Functional Capacity: RFC)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정신적 잔여 기능 역량(Mental RFC)은 지침에 따르고, 훈련 또는 감독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의 집중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신체적 잔여 기능 역량(Physical RFC)은 얼마나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리고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작업 수준을 결정한다.

SSDI와 SSI 이외에도 경계선지능인이 거주하는 지역, 즉 주에 따라 장애인 및 근로자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위한 기준은 주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폐 범주성 장애와 같이 경계선지능과 관련된 다른 진단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지원이 있는가?’, ‘개인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신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Logsdon, 2021).

3) 벨기에

벨기에는 장애를 의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성과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2016년도에 기존 지원 방식인 개인예산제도에 직접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시스템이 일부 변경되었다. 벨기에는 지적장애를 정의하는 데 있어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엄격한 지능지수보다는 지원요구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지원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참여(participation)’이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다르게 AAIDD의 정의에 따라 지적장애로 진단되는 이들에게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적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인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플라망 지역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플라망 정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the Flemish Agency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Vlaams Agentschap voor Personen met een Handicap: VAP), 장애인의 대한 돌봄과 지원은 중앙 정부가 담당한다. 지원의 종류에 따라 지원 및 관리 주체가 다르던 네덜란드와 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처럼 벨기에는 지적장애의 진단이 지원을 위한 필수요건 이기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찾기 어려우나, 이 절에서는 벨기에 북부에 있는 플라망 지역(Flanders)을 중심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Woittiez, Eggink, Putman, & Ras, 201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벨기에, 특히 플라망 지역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장애진단은 필수적이다. 지적장애의 경우도 AAIDD의 정의에 따라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를 진단하기에 지능지수가 70~85 수준인 경계선지능인은 사회참여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벨기에의 경계선지능인은 경우에 따라 VAP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벨기에는 지능지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진단도구의 신뢰구간을 고려한 절단점수를 설정한다. 즉, 검사도구의 신뢰구간에 따라 절단점수는 절대적인 70이 아닐 수 있기에 지능지수가 70보다 약간 높은 경계선지능인 또한 경우에 따라 국가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엄격한 지능지수가 절단점수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상태나 검사의 구성 등이 검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능검사의 결과 또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경계선지능인이 아닌 지적장애인으로의 진단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둘째,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가 아닌 자폐범주성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벨기에의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의 문제는 지능수준으로만 나타나지 않으며, 당사자들 또한 기존의 인식되어 온 ‘지적장애인’의 모습과 본인의 어려움을 동일시하는 것을 꺼리기에 유사한 진단명을 가지는 것에 대한 낙인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함을 지적하였다. 실제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고용, 재정, 범죄 등의 어려움과 함께 경계선지능이 함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폐범주성장애인의 50% 이상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은 자폐성장애로 진단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벨기에가 지향하는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복지기관들의 역할 또한 요구된다. 이에 경계선지능청년은 시립 복지 조직인 OCMW(Openbaar Centrum voor Maatschappelijk Welzijn)과 CAW(Centraal voor Algemeen welzijnswerk)를 통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의 유형이나 정도가 지역마다 상이하고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지원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는 제한이 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요구되는 지원과 별개로 경계선지능인을 공식적인 지원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유일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는 플라망 지역에서 제공되는 직업 및 취업 훈련(Flemish Service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Vlaamse Dienst voor Arbiedsbemiddeling en Beroepsopleiding: VDAB)으로 그 대상이 IQ 85, 즉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다. 해당 지원은 직업내용, 직업내용, 이동지원 등을 포함한다. 고용주 또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5년 또는 그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대개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생산성의 20% 이상의 손실이 생기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으로 경계선지능인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벨기에에는 경계선지능을 지적장애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으며, 경계선지능이 단독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어려움과 동반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앙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및 지원서비스의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이

포함되지 않으며, 지적장애 또는 타 장애유형으로 진단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선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참여 제약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진단을 받지 않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복지기관의 심리사회적 지원이나 플라망 지역에서 지적장애인과 함께 경계선지능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및 취업 훈련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캐나다

캐나다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UN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서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다른 국가에 비해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Brown & Radford, 2015). 캐나다의 1/3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부(the Ontarian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와 같은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 시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용의 문화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사회참여 능력을 제한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는 벨기에와 동일하게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AAIDD)의 정의를 기준으로 인지능력 및 적응행동 기술과 함께 일상생활 활동을 고려하여 지적장애를 판별한다(Dubé, 2016). 장애의 정도는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벨기에 사례와 유사하게 캐나다의 전문가들은 임상적으로 경계선지능은 자폐 범주성 장애의 하나의 특성으로 출현하는 특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이 자폐 범주성 장애의 진단명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지능수준이 70 이하이거나 자폐범주성장애로 진단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심리학자에 의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원의 강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및 지원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및 지원의 종류는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Developmental Services Ontario, 2016). 구체적으로 첫째, 여권 프로그램(the

Passport Program)은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는 잠시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예산을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 주도계획(Person-directed planning)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꿈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로선택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성인 보호 서비스 근로자 프로그램(Adult Protective Services Workers: APSW)은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에 제한을 가지는 발달장애인 성인을 성인 보호 서비스 근로자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발달장애인의 건강 관리, 심리 정서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위한 지원을 탐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2015). 넷째, 주거지원(residential support)은 발달장애인이거나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환경에서의 돌봄, 지원, 감독 등의 지원으로 그룹홈과 같은 생활시설에서의 지원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전문 임상 서비스(specialized clinical services)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로 발달장애를 비롯한 다른 장애와 공존장애를 진단받은 이들이 제공할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원이다.

이처럼 캐나다의 경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인이 보이는 다양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지원은 향후 이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이들의 취약성을 조기에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5) 스페인

스페인인 DSM의 진단기준에 따라 경계선지능과 지적장애를 구분해왔다. 그러나 최근 DSM-5로의 개정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진단준거가 삭제되어 임상현장에서 경계선지능인과 지적장애의 구분이 어렵고,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인지적 결함과 신경발달적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크고,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과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Hassiotis et al., 2019).

스페인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의료지원, 사회서비스, 장애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경계선지능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스페인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 등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카탈루냐 협회 나비우(ACNabiu)는 2007년 ‘COMFIL 2007’ 프로젝트를 통해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협회가 합의한 경계선지능 성명서(statement)의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Salvador-Carulla et al., 2013).

표 II-11. 경계선지능 성명서 개요

합의점	합의 내용
1	경계선지능은 특정 공중 보건, 교육, 법적 관심이 필요한 메타 건강 상태(health meta-condition)로 71-85사이의 지능으로 인해 다양한 인지적 장애와 활동 및 사회참여의 제한 등을 포함한 기능적 결함을 가짐
2	경계선지능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취약성을 가지므로 조기 발견, 정신병리학 적 평가, 특정 학습 잠재력 평가 등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3	경계선지능인 집단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할 때 정신병리학 적 평가가 중요하며, 그 결과는 인지적 프로파일과 통합되어야 함
4	아동청소년기의 경계선지능은 지능적 결함이 아닌 또래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교육과정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정의해야 함
5	경계선지능인은 학교, 직장 및 사회적 적응을 촉진을 위한 지원의 요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6	법적, 행정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요구되는 지원은 적절하지 않기에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7	정의, 평등, 다양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의 조기 선별 및 평가 등의 목표를 건강, 사회, 교육, 고용, 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8	건강을 비롯한 사회, 교육, 노동, 법 등의 여러 분야에서 경계선지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9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계선지능 교육이 요구됨
10	여러 부처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협업이 증진되어야 함

CONFIL 2007은 건강, 교육, 고용,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소아과 의사 또는 간호사, 유치원 및 학교 교사, 부모 등을 통해 발달단계에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조기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기선별을 통해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은 정신 건강 서비스

에 의뢰하여 조기진단을 받고, 다양한 전문가와 서비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와 사회 및 교육 자원 간의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조기선별 및 진단과 함께 제공된 지원은 성인기에 들어서는 직업, 일상생활, 법률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으로는 부모 지원, 의사소통지원, 행동 또는 정서장애에 대한 심리치료 중재, 교육과정 수정, 직업지원, 거주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장애와의 높은 공병률을 보이는 경계선지능의 특성상 정서, 불안, 과잉행동, 수면 등의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에는 약리적 중재의 적용 가능성 또한 평가되어야 함에도 전문가 간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한 CONFIL 2007 프로젝트는 향후 국제 전문가 집단의 창설(Th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onsensus Group)로 이어졌다. 새롭게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2017년 첫 번째 국제회의가 스페인 지로나에서 개최되었고, 이전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경계선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및 설명과 이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하는 지로나 선언(the Girona declaration)에 합의하였다(Martinez-Leal, Folch, Munir, & Novell, & Salvador-Carulla, 2020).

지로나 선언은 경계선지능 선언(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Declaration), 경계선지능에 대한 합의 매뉴얼(the Consensus Manual on BIF),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돌봄을 위한 권장사항(the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IF)을 포함한다. 지로나 선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설명은 보다 더 견고해졌고,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세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권장사항이 합의된 것은 매우 발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로나 선언을 통해 제안된 경계선지능인 돌봄을 위한 권장사항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Catalunya, 2018).

경계선지능인 돌봄을 위한 권장사항은 주로 교육, 사회, 고용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개입 및 지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협의의 구체적인 목표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조기선별 및 진단을 개선하고, 개별화 중재 계획을 정의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부서 간 또는 학제 간의 협력을 권장하는 것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모든 전문가들의 공동의 노력을 강조한다.

언급된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국제 전문가들은 네 개 목표에 따라 프로젝트 집단으로 나누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 조기선별 및 진단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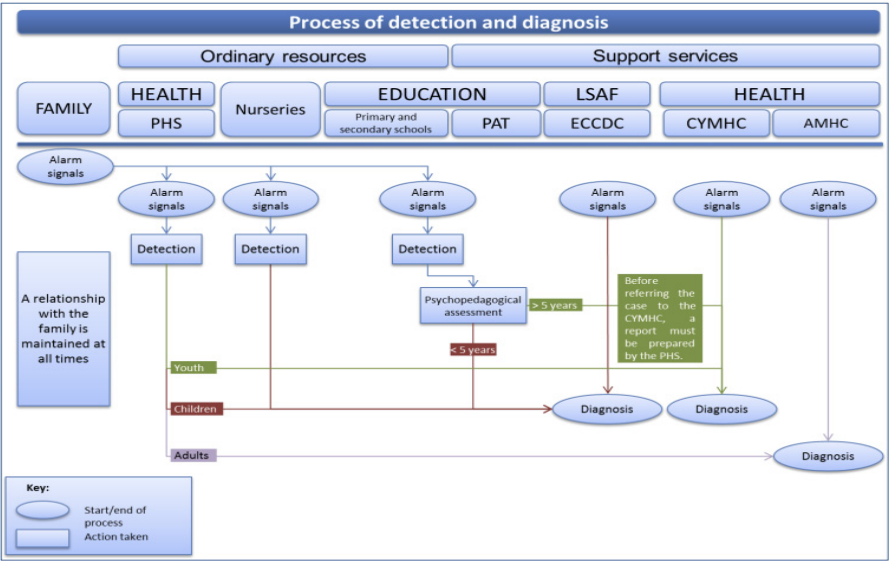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을 조기선별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교육, 건강, 고용,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가족을 중심으로 경계선지능의 증상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비롯한 부모는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 맞는 발달을 보이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달지연이 의심될 때에 그에 맞는 추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아동의 발달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한 모습으로 관찰될 수 있기에 국제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으로 인해 생애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II-1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II-12. 발달단계별 경계선지능 의심 증상

발달단계	경계선지능 의심 증상	관찰 가능 상황
영유아기 /아동기	낮은 이해도 어색한 표현 낮은 기초학습(수학, 읽기, 쓰기)능력 상징화 과정의 어려움 주의력/집중력 부족 쉽게 좌절 추진력 부족 규칙 따르기의 어려움 낮은 호기심과 적은 탐색 행동	보육 및 초등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청소년기	학습어려움에 대한 초등교육 기록 학업 실패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한 학업 실패 행동장애로 인한 학업 실패	중등교육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성인기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어려움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문제해결에 어려움 문제의 여러 측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융통성 있게 문제를 다루지 못함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동성 억제 행동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작업 기억(working memory)에 유지하는데 어려움 복잡한 상황에서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사회 및 가족관계 (직장, 가정 등)

발달단계	경계선지능 의심 증상	관찰 가능 상황
	사회·경제적 불안정 부적절한 돈 사용 속기 쉽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움	

영유아기/아동기에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유아는 영유아 관련 기관(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Centres: ECCDC)으로, 아동기 아동은 학교 내 심리교육평가팀(Psychopedagogical Assessment Team: PAT) 또는 전문 의료기관(Primary Healthcare Services: PHS)에 의뢰되어 진단여부를 결정한다. 영유아/아동기 아동의 경우에는 의뢰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8~9세에 다시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평가를 반복해야 한다. 언급된 기관이외에도 경계선지능 진단이 가능한 기관으로 성인 정신건강센터(Adult Mental Health Centre: AMHC), 지적장애인 정신건강 전문서비스(Specialized Service in Mental Health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SMHID)가 있다. 이상의 과정을 흐름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자료: Catalunya, G. (2018).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그림 II-1. 경계선지능 선별 및 진단 절차

경계선지능 진단을 위한 진단도구 및 평가기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국제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의 특징인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 그리고 이들의 정신건강 및 행동평가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검사도구와 그 기준을 <표 II-13>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II-13. 발달단계별 경계선지능 진단 도구 및 기준

평가내용	검사도구	대상연령	진단기준
선별검사	K-BIT	4~90세	IQ 71~85
종합심리검사	WISC-V(아동)	16세 미만	
	WAIS-IV(성인)	16~64세	
적응행동 및 기능평가	ICAP	-	7~8 서비스수준
정신건강 및 행동평가	HoNOSCA(아동)	만 18세 미만	54점 이상
	HoNOS-DI(성인)	만 18세 이상	

경계선지능 선별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검사는 Kauffmann의 간략 지능 검사인 K-BIT로 언어적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어휘와 비언어적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행렬의 하위로 개발되어 있다. 검사 소요시간은 약 15~30분으로 종합심리검사에 비해 상당히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선별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간략 지능 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은 경우는 종합심리검사인 웨슬러 지능 검사를 활용하여 정밀 검사 및 진단이 가능하다.

경계선지능의 주요 특성인 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인 ICAP은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표현 및 수용언어),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운동능력(대근육 및 소근육)의 네 가지 하위영역에서의 평가를 포함한다. 검사에는 약 20분 정도가 요되며 7~8 서비스수준의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는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과 함께 관찰될 수 있는 정신건강 및 행동평가는 대상의 연령에 따라 HoNOSCA(아동) 또는 HoNOS-DI(성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동용 검사의 경우는 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과 관련된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용 검사는 행동, 인지, 임상,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문제와 관련된 18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해당 검사의 총점은 72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및 행동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된다.

(2) 개별화 중재 계획

경계선지능 선별 및 진단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위한 지원, 즉 중재적 개입 또한 생애주기별 요구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표 II-14. 생활연령에 따른 경계선지능 지원 기관 및 내용

생활연령	지원 내용	관련기관
3~6세	인지, 주의 및 기억, 의사소통, 언어, 상징화, 정서/감정, 운동 등	ECCDC, 보육기관, CYMHC
6세 이상 아동청소년	개인의 자율성과 관계된 행동적 지원,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서적 지원(강약점 인식), 따돌림, 성폭력, 약물중독 등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	CYMHC
성인	정신질환, 행동문제 등	SSMHID, HUSID

3~6세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가족을 치료 계획과정부터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전반에 참여시켜야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다른 자원을 추천하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의 역할이다. 특히 취학 전에 이루어지는 지원내용은 초등학교에 전달되어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화 중재계획은 CYMHC에서 수립하게 되며, 전반적인 치료과정에서 가족의 개입이 중요하며, 지원의 내용이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되고 감독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가족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8~9세에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중학교 진학과정에서는 아동의 전환과정을 지원하고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계획되며, 성인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표 II-15. 성인기 지원을 위한 진단 기준

성인 정신건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거나 (가), (나), (라)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만 18세 이상

(나) 주의, 언어, 기억, 실행 등의 영역에서의 결함으로 사회적 기술이나 적응 기술에 어려움을 가지고, 정신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결함이 아님. 결함은 IQ에만 제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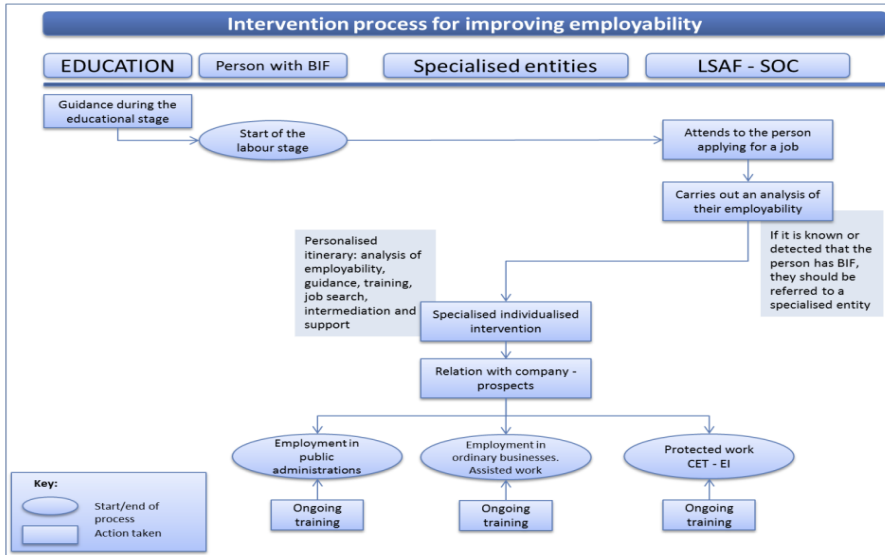
(다) DSM-5나 CIE-10에서 정의하는 정신질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라) 하나 이상의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사회통합 촉진: 고용가능성

사회통합 촉진의 관점에서 국제 전문가 집단은 모든 개인이 생산적인 노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 등의 부정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엔 협약 제27조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카탈루냐 정부의 여러 부서 간 계약 정책을 통해 BIF를 고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기초로 경제선지능인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였다.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중재에 역할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언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등학교 이후 시기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학령기에서도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인기에 보다 구체적인 훈련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료: Catalunya, G. (2018).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그림 II-2.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재절차

학령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 경우는 공공 고용 서비스(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SOC)는 고용가능성 설문을 통해 취업을 위한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은 ECCDC, AMHC, 또는 SSMHID에서 발급한 진단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계선지능에 대한 진단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사절차를 거쳐 진단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경쟁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계선지능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고용 관련 중재 절차는 [그림 II-2]와 같다.

(4) 부서 간 또는 학제 간의 협력

지로나 선언에서는 특정 주체에 제한된 것이 아닌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개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욕구에 적절한 연속적인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전문가 간의 협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요구를 중심으로 부서 간 또는 학제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침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 전문가들은 부서 간 또는 학제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비스 간의 조정, 정보공유 등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제 전문가들이 합의한 돌봄 모델은 모든 지원은 당사자 중심으로, 모든 단계에서 자원을 통합하여 개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지원 과정을 뒷받침하고 핵심 전문가의 역할 정의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사례 관리는 경계선지능 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나의 서류에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이 문서는 개별 모니터링 계획(Individual Monitoring Plan: IMP)으로 명명된다. IMP문서 작성에는 여러 전문가는 물론 경계선지능인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 간의 역할과 지원의 범위를 조정한다. 더불어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된 언급된 정보가 부서 간 또는 전문가 간에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시스템 개발도 제안되었다. 정보의 공유는 일관성이 있는 지원제공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스페인은 경계선지능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의 지원 요구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경계선지능과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페인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실무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나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돌봄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합의는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국가이다.

6) 소결

이 장에서는 국내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의 합의를 얻고자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된 국외 관련 사례를 개관하였다. 분석 국가는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5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경계선지능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는 물론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로 경계선지능의 진단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II-16>과 같다.

표 II-16. 국외 사례분석 결과 요약

구분	진단기준	지원방법
네덜란드	DSM-5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지적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미국	DSM-5	경계선지능으로 인해 근로나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벨기에	AAIDD	자폐범주성장애 등의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의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에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직업 및 취업 훈련을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을 제공함
캐나다	AAIDD	자폐범주성장애 등의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의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에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스페인	DSM-5	구체적인 정책은 부재하나, 경계선지능 고유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

일반적으로 경계선지능의 진단기준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 정의한 AAIDD,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들 수 있다. 각 정의의 세부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이하의 지적기능과 적응행동능력, 그리고 발달단계에 발생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국외 사례 또한 경계선지능 진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에 따라 지원요구에 근거한 지원, 사회참여, 기초생활보장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적 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개 국가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경계선지능인을 모든 사회적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경계선지능을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다양한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경계선지능인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요구를 탐색하여 그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증거기반실제를 탐색하는 학술적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 사회보장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서비스의 성격이 근로와

기초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된 만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근로 또는 기초생활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수준이다. 경계선지능으로 사회보장서비스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인 개인이 정보이해 또는 사용능력, 자기관리능력, 집중 및 유지능력, 상호작용 능력 중 하나의 영역에서 심각한 제한을 가지거나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계선지능인이 거주하는 지역, 즉 주에 따라 장애인 및 근로자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상이하다.

벨기에는 지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지적 장애로 진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이 아닌 지적장애 진단이나 다른 장애의 진단이 필요하기에 경계선지능으로 인한 직접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벨기에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직업과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캐나다도 벨기에와 유사하게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전문가들은 대개 지적능력 제한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자폐범주성장애의 특징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이 해당 장애의 진단명 하에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캐나다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경계선지능인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지원은 향후 이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취약성을 조기에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찾을 수 없었으나,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스페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자료보다는 스페인 정부를 중심으로 합의된 성명서나 선언문 등이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향후 스페인 정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향성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해 이들이 합의한 세부 논의는 경계선지능 조기선별 및 진단 개선방안, 개별화 중재 계획, 사회통합 촉진: 고용가능성, 부서 간 또는 학제 간의 협력의 영역을 포함하며, 이러한 지원은 건강, 교육, 고용,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함에 합의되었다.



제Ⅲ장 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 3. 소결



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⁴⁾

1. 조사개요

이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의 실태 및 지원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2022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가구 상황 및 주거, 교육, 건강, 일상생활, 소득 및 경제활동 등 총 9개의 삶의 영역에서 조사가 필요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조사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조사영역 및 내용

조사 영역	주요 조사 내용	
가구형태 및 주거	- 동거 가족 유무 및 관련 현황 - 현 거주 주택 환경 - 현 거주 주택 점유 형태 및 비용	- 향후 주거 관련 우려사항 - 향후 같이 살고 싶은 사람
교육 및 훈련	- 최종 학력, 중퇴 여부 및 이유 - 중고등학교 유형 - 중고등학교 재학 시 어려움 - 고등학교 진로 및 직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현황	- 대학진학 및 생활 현황 - 취업 준비 현황 - 평생교육 참여 현황 및 향후 참여 의사, 필요 교육
건강	- 신체적 건강 수준 - 정신적 건강 및 일상생활 우울 수준 - 정신과 약물 복용 및 자살 생각	- 규칙적인 운동 현황 -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항
일상생활 및 만족도	- 일상생활 타인의 도움 수준 - 의사결정 수준 - 여가생활 현황	- 자기 효능감 수준 - 전반적인 생활만족 수준 - 미래 우려되는 사항

4) 이 장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박광욱 교수가 작성하였다.

조사 영역	주요 조사 내용	
소득 및 경제활동	- 수입원, 수급 여부(유형) - 지출현황 - 채무현황	- 현 취업 여부 및 현황 - 향후 취업 여부 및 현황
결혼 및 가족 관계	- 결혼 여부 및 현황 - 결혼 생활 어려움, 자녀 양육과정 어려움 - 이성교제 현황	- 가족 갈등 여부, 갈등대상, 이유 - 부모 상황(장애 유무 등)
관계 및 참여	- 도움 요청 가능 인원 -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 - 타인과의 갈등 이유	- 외출 유무 및 현황 - 소속집단 - 사회정치참여 - 군대생활
인권 및 사법	- 타인으로서의 괴롭힘 현황 - 범죄 피해자 연루 현황	- 차별 경험 및 영역
정책 및 지원	- 청년 대상 정부 정책 인지 및 이용 현황 - 정책 및 서비스 정보 확보 방법 -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 필요한 정책지원 영역 및 세부 서비스 -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및 장애인등록 의향

조사 방법은 먼저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하는 기관과 당사자 및 부모 네트워크 등을 탐색하고, 협의를 통해 조사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수행을 요청하였다. 조사 협조가 가능한 기관 및 네트워크에서 참여에 동의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모집하고, 조사 기관의 종사자 또는 부모 등이 직접 경계선지능청년을 대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II-2. 조사 참여 기관 및 네트워크

기관(시설)	당사자 및 부모 네트워크
• 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련 협회 연계) •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희망디딤돌 허브기관, 관련 협회 연계) • 사회복지관(경계선지능청년 대상 프로그램 지원 기관)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개별 접촉) •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회적경제조직(개별 접촉) • 경계선지능인 대안 학교(개별 접촉) 등	• 청년숲(사회복지관 연계) • 사랑하는 거북이(개별접촉) • 느린학습자 시민회(개별접촉) • 경계선지능청년 가족(개별접촉) 등

총 214명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자료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20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3>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이 51.2%(104명)이었으며, 여성은 48.8%(99명)

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평균 24.6세로 24세 이하가 62.6%(1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 29.6%(60명), 30세 이상 7.9%(16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 40.5%(81명), 경기 29.5%(59명), 충남 6.5%(13명)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청년은 69.5%(141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30.5%(62명)의 분포를 나타냈다.

표 III -3.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03	100.0
성별	남성	104
	여성	99
연령대	24세 이하	127
	25-29세	60
	30세 이상	16
거주 지역	서울	81
	부산	2
	대구	3
	인천	8
	광주	7
	대전	8
	경기	59
	강원	1
	충북	5
	충남	13
	전북	2
	전남	4
	경북	3
	경남	3
	제주	1
보호기반	가정보호	141
	시설보호(종료)	62

2.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총 9개의 삶의 영역 순으로 제시했으며, 전체 현황을 제시하고, 기초분석 결과, 보호기반에 따라 응답자의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청년으로 구분하여 각 현황을 제시하였다.

1) 가구형태 및 주거

(1) 부모 동거 여부

전체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전체 비율은 60.1%(122명)로 가정보호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86.5%(122명)로 나타났다.

표 III-4.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음	122	60.1	122	86.5	-	-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음	81	39.9	19	13.5	62	100.0

(2) 1인 가구 여부 및 동거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은 전체 65.4%(53명)이었으며, 시설보호(종료) 청년(72.6%, 45명)의 비율이 가정보호 청년(42.1%, 8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예전 함께 거주했던 ‘시설 동료’와 살고 있는 경우가 전체 45.2%(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형제자매’ 22.6%(7명), ‘배우자’ 16.1%(5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시설동료’(73.7%, 14명), 가정보호 청년은 ‘형제자매’(50.0%, 6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 1인 가구 여부 및 동거인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1인 가구 여부	계	81	100.0	19	100.0	62	100.0
	혼자 살고 있음	53	65.4	8	42.1	45	72.6
	혼자 살고 있지 않음	28	34.6	11	57.9	17	27.4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 거하는 경우) 동거인	계	31	100.0	12	100.0	19	100.0
	시설동료	14	45.2	-	-	14	73.7
	배우자	5	16.1	4	33.3	1	5.3
	형제, 자매	7	22.6	6	50.0	1	5.3
	자녀	1	3.2	1	8.3	-	-
	친구	4	12.9	1	8.3	3	15.8

(3) 현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47.3%(9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중 가정보호 청년은 '아파트' 비율이 64.5%(91명)로,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원룸' 비율이 37.1%(2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현재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 자립한 시설보호(종료) 청년 다수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 유형(원룸,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는 '전세'가 전체적으로 28.9%(5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가정보호 청년은 '자가' 37.1%(52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전세' 38.3%(1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6. 현 주거 유형 및 점유 형태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 거주 주택 유형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원룸(다가구)	25	12.3	2	1.4	23	37.1
	아파트	96	47.3	91	64.5	5	8.1
	단독주택	14	6.9	14	9.9	-	-
	다세대/빌라	36	17.7	28	19.9	8	12.9
	고시원	4	2.0	1	0.7	3	4.8
	오피스텔	6	3.0	2	1.4	4	6.5
	기숙사	1	0.5	-	-	1	1.6
	시설	16	7.9	1	0.7	15	24.2
	기타	5	2.5	2	1.4	3	4.8
현 거주 주택 점유형태	계	187	100.0	140	100.0	47	100.0
	자가	53	28.3	52	37.1	1	2.1
	전세	54	28.9	36	25.7	18	38.3
	보증금이 있는 월세	27	14.4	13	9.3	14	29.8
	보증금이 없는 월세	6	3.2	1	0.7	5	10.6
	무상	4	2.1	1	0.7	3	6.4
	잘 모르겠음	29	15.5	29	20.7	-	-
	기타	14	7.5	8	5.7	6	12.8

(4) 주택비용 확보 방법

현 거주 주택의 비용을 확보한 방법은 전체적으로 '전부 부모님이 지불'한 비율이 57.8%(10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이 77.1%(108명)을 차지하였다.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전부 본인이 스스로 지불'하는 경우가 29.8%(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년이 전부 또는 일부의 주택비용을 마련한 경우 가정

보호 청년의 일부(30.8%, 4명)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주택비용 확보 방법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 거주 주택비용 확보 방법	계	187	100.0	140	100.0	47	100.0
	전부 본인이 지불함	22	11.8	8	5.7	14	29.8
	본인이 대부분 지불, 부모님이 일부 지불	2	1.1	1	0.7	1	2.1
	부모님이 대부분 지불, 본인이 일부 지불	6	3.2	4	2.9	2	4.3
	전부 부모님이 지불	108	57.8	108	77.1	-	-
	기관에서 지원받음	27	14.4	4	2.9	23	48.9
	잘 모르겠음	12	6.4	12	8.6	-	-
	기타	10	5.3	3	2.1	7	14.9
(청년이 전부 또는 일부의 주택 비용을 마련한 경우) 대출 여부	계	30	100.0	13	100.0	17	100.0
	대출받음	4	13.3	4	30.8	-	-
	대출받지 않음	26	86.7	9	69.2	17	100.0

(5) 향후 미래 주거 우려 사항

향후 주거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주택비용 부담’이 32.8%(4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중 가정보호 청년은 전체 현황과 동일하게 ‘주택비용 부담’이 37.8%(28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주택 관련 계약 체결 및 분쟁 시 해결 어려움’이 27.5%(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8. 향후 주거관련 주된 우려 사항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25	100.0	74	100.0	51	100.0
주택비용 부담(매매, 전세, 보증금 등)	41	32.8	28	37.8	13	25.5
주거 유지비용 부담(월세, 대출 이자 납부 등)	21	16.8	10	13.5	11	21.6
주거 관련 계약 체결 및 분쟁 시 해결 어려움	29	23.2	15	20.3	14	27.5
주거 환경 개선 및 보수	18	14.4	13	17.6	5	9.8
주거 관련 정보 부족	8	6.4	3	4.1	5	9.8
기타	8	6.4	5	6.8	3	5.9

주. 특별한 걱정이 없음(38.4%, 78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6) 향후 희망하는 동거인

향후 희망하는 동거인은 응답자의 37.9%(77명)가 ‘혼자’ 살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가정 보호 청년은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37.6%(53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혼자’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1.0%(4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9. 향후 희망하는 동거인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혼자서	77	37.9	33	23.4	44	71.0
배우자(자녀 포함)와 함께	49	24.1	37	26.2	12	19.4
부모와 함께	55	27.1	53	37.6	2	3.2
형제, 자매와 함께	8	3.9	7	5.0	1	1.6
친구나 동료와 함께	6	3.0	4	2.8	2	3.2
기타	8	3.9	7	5.0	1	1.6

2) 교육 및 훈련

(1) 최종 학력

최종 학력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65.5%(13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61.7%(87명)로 전체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74.2%(46명)로 전체, 가정보호 청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10. 최종 학력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초등학교 졸업	5	2.5	5	3.5	-	-
중학교 졸업	13	6.4	7	5.0	6	9.7
고등학교 졸업	133	65.5	87	61.7	46	74.2
전문대학 졸업	27	13.3	20	14.2	7	11.3
대학교 졸업	16	7.9	14	9.9	2	3.2
대학원 졸업	5	2.5	4	2.8	1	1.6
학교에 다니지 않음	4	2.0	4	2.8	-	-

(2) 중·고등학교 유형

졸업 당시 중학교 학교유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8.7%(148명)가 일반 학교를 다녔으며, 다음으로 대안학교를 다닌 비율(10.1%, 19명)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현황과 동일하게 가정보호, 시설보호(동료) 청년 모두 일반학교 비율(각각 74.0%, 88.5%)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보호 청년의 경우 대안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15.0%(19명)로 전체 현황(10.1%, 19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등학교 학교유형도 일반학교 비율(73.4%, 138명)이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시설보호(동료) 청년 모두 일반학교 비율(각각 69.3%, 82.0%)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안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중학교 유형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가정보호; 18.9%, 24명, 시설보호(종료); 4.9%, 3명).

표 III-11. 중고등학교 유형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학교 학교 유형	계	188	100.0	127	100.0	61	100.0
	일반학교 일반학급 (인문, 실업, 특성학교 등)	148	78.7	94	74.0	54	88.5
	일반학교 특수학급 (인문, 실업, 특성학교 등)	12	6.4	9	7.1	3	4.9
	특수학교	2	1.1	2	1.6	-	-
	대안학교	19	10.1	19	15.0	-	-
	기타	7	3.7	3	2.4	4	6.6
고등 학교 학교 유형	계	188	100.0	127	100.0	61	100.0
	일반학교 일반학급 (인문, 실업, 특성학교 등)	138	73.4	88	69.3	50	82.0
	일반학교 특수학급 (인문, 실업, 특성학교 등)	12	6.4	11	8.7	1	1.6
	특수학교	3	1.6	1	0.8	2	3.3
	대안학교	27	14.4	24	18.9	3	4.9
	기타	8	4.3	3	2.4	5	8.2

(3) 학교 중퇴 여부 및 이유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의 16.3%(33명)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회 이상 중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18.4%, 26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11.3%, 7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퇴 사유는 ‘수업내용이 어려워서’가 28.6%(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전체 현황과 동일하게 ‘수업내용이 어려워서’가 33.3%(7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및 가족 사정 때문에’가 57.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12. 중퇴 여부 및 이유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여부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예	33	16.3	26	18.4	7	11.3
	아니오	170	83.7	115	81.6	55	88.7
(중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퇴이유	계	28	100.0	21	100.0	7	100.0
	수업내용이 어려워서	8	28.6	7	33.3	1	14.3
	학교에서 따돌림, 괴롭힘이 심해서	2	7.1	1	4.8	1	14.3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및 가족 사정 때문에	5	17.9	1	4.8	4	57.1
	경제활동 등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하기 위해	5	17.9	5	23.8	-	-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3	10.7	3	14.3	-	-
	기타	5	17.9	4	19.0	1	14.3

(4) 학교생활 어려움

중고등학교 재학 시 겪은 어려움은 전체적으로 중퇴 사유와 유사하게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30.6%(10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부분은 보호기반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가정보호 청년은 ‘또래를 사귀기 어려움’이 33.6%(77명), ‘괴롭힘, 왕따 등을 당함’이 20.1%(46명)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27.9%(2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가족보호 청년보다 ‘가족과의 갈등’(26.0% 27명), ‘비행청소년과 어울림’(7.7%, 8명)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13. 학교생활 어려움(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33	100.0	229	100.0	104	100.0
학업수행의 어려움	102	30.6	73	31.9	29	27.9
또래를 사귀기 어려움	97	29.1	77	33.6	20	19.2
괴롭힘, 왕따 등을 당함	63	18.9	46	20.1	17	16.3
가족과의 갈등	52	15.6	25	10.9	27	26.0
비행 청소년과 어울림	13	3.9	5	2.2	8	7.7
사이버 범죄 연루	6	1.8	3	1.3	3	2.9

주.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11.4%, 43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5) 대학 진학 여부

대학을 진학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56.9%(107명)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62.2%, 79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45.9%, 28명)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계획하지 않아서’가 22.2%(1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21.0%(17명),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21.0%(1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가 29.2%(14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가 30.3%(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14. 대학 진학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학진학 여부	계	188	100.0	127	100.0	61	100.0
	예	107	56.9	79	62.2	28	45.9
	아니오	81	43.1	48	37.8	33	54.1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경우) 대학 미 진학 주된 이유	계	81	100.0	48	100.0	33	100.0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8	9.9	4	8.3	4	12.1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17	21.0	7	14.6	10	30.3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형편 이 어려워서	12	14.8	8	16.7	4	12.1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 이 부족해서	17	21.0	14	29.2	3	9.1
	대학, 대학 입학 등에 대한 정 보를 잘 몰라서	3	3.7	2	4.2	1	3.0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계획하지 않아서	18	22.2	12	25.0	6	18.2
	기타	6	7.4	1	2.1	5	15.2

(6) 대학 생활 만족도 및 어려움

대학생활의 전반적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66명)이었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59.5%(47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67.9%(19명)가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은 '학업 적응 상의 어려움'이 41.0%(3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응 상의 어려움'이 31.3%(26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경우에도 전체 현황과 동일하게 '학업 적응 상의 어려움'(각각 43.8%, 31.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구체적 내용에는 '경제적 어려움', '접근성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표 III-15. 대학 진학 여부 및 대학 생활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학생활 전반적 만족도	계	107	100.0	79	100.0	28	100.0
	전혀 만족하지 않음	12	11.2	10	12.7	2	7.1
	만족하지 않음	29	27.1	22	27.8	7	25.0
	만족함	47	43.9	36	45.6	11	39.3
	매우 만족함	19	17.8	11	13.9	8	28.6
대학 생활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	계	83	100.0	64	100.0	19	100.0
	학업 적응 어려움	34	41.0	28	43.8	6	31.6
	정서적 적응 어려움	8	9.6	5	7.8	3	15.8
	사회 적응 어려움	26	31.3	22	34.4	4	21.1
	진로 적응 어려움	5	6.0	3	4.7	2	10.5
	기타	10	12.0	6	9.4	4	21.1

주.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22.4%, 24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7) 진로 및 취업준비 현황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준 제공기관 또는 제공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관련 복지기관(자립지원관, 지역복지관 등)을 이용한 비율이 29.1%(5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청년 모두 복지기관으로부터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20.6%, 48.4%). 특히 가정보호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자나 친인척’ 비율도 20.6%(29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체, 시설보호(종료) 청년(전체: 12.3%, 25명, 시설보호(종료) 청년: 6.5%, 4명) 보다 ‘지원을 받은 곳(사람)이 없음’(14.9%, 21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지원받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보제공’이 31.5%(5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교육훈련’(25.8%, 46명), ‘상담’(17.4%, 31명), ‘일자리 알선’(17.4%, 31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교육훈련’(30.0%, 36명), 시설보호

(종료) 청년은 ‘정보제공’(36.2%%, 21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의 도움 수준은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0.9%(129명)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가정보호 청년의 80.0%(96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82.8%(48명)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6. 진로 및 취업 준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진로 및 취업준비 관련 지원기관 (제공자)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학교	44	21.7	25	17.7	19	30.6
	복지기관	59	29.1	29	20.6	30	48.4
	공공기관	13	6.4	10	7.1	3	4.8
	사설기관	8	3.9	7	5.0	1	1.6
	보호자나 친인척	30	14.8	29	20.6	1	1.6
	친구, 선후배 등 지인	15	7.4	13	9.2	2	3.2
	지원을 받은 곳 ^{사람} 이 없음	25	12.3	21	14.9	4	6.5
	기타	9	4.4	7	5.0	2	3.2
(도움 제공기관 및 제공자가 있 는 경우) 주로 지원받 은 내용	계	178	100.0	120	100.0	58	100.0
	정보제공	56	31.5	35	29.2	21	36.2
	교육훈련	46	25.8	36	30.0	10	17.2
	상담	31	17.4	21	17.5	10	17.2
	일자리 알선	25	14.0	15	12.5	10	17.2
	금전적 지원	11	6.2	5	4.2	6	10.3
	기타	9	5.1	8	6.7	1	1.7
(도움 제공기관 및 제공자가 있 는 경우) 도움수준	계	178	100.0	120	100.0	58	10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9	5.1	7	5.8	2	3.4
	도움이 되지 않음	25	14.0	17	14.2	8	13.8
	도움이 됨	104	58.4	77	64.2	27	46.6
	매우 도움이 됨	40	22.5	19	15.8	21	36.2

(8) 성인기 교육 참여 현황

성인기 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5.0%(132명)의 응답자가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설보호(종료) 청년(69.4%, 43명)이 가정보호 청년(63.1%, 89명)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참여한 교육 내용은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25.6%(9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자립생활훈련 교육'이 20.0%(75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직업능력향상 교육'(26.6%, 66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자립생활훈련 교육'(25.2%, 32명)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 기관은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지원기관' 등이 46.3%(7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청년은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33.7%, 35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청소년지원기관'(39.3%, 22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7. 성인기 교육 참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인기 교육 참여 유무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예	132	65.0	89	63.1	43	69.4
	아니오	71	35.0	52	36.9	19	30.6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 교육 내용 (다중응답)	계	375	100.0	248	100.0	127	100.0
	학력보완 교육	16	4.3	8	3.2	8	6.3
	성인 기초 및 문해 교육	10	2.7	5	2.0	5	3.9
	직업능력향상 교육	96	25.6	66	26.6	30	23.6
	인문교양 교육	13	3.5	13	5.2	-	-
	문화체육예술 교육	50	13.3	37	14.9	13	10.2
	시민참여 교육	28	7.5	18	7.3	10	7.9
	자립생활훈련 교육	75	20.0	43	17.3	32	25.2
	정보화 교육	37	9.9	32	12.9	5	3.9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50	13.3	26	10.5	24	18.9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기관 (다중응답)	계	160	100.0	104	100.0	56	100.0
	아동복지시설	18	11.3	4	3.8	14	25.0
	청소년지원기관	35	21.9	13	12.5	22	39.3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	39	24.4	35	33.7	4	7.1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10	6.3	8	7.7	2	3.6
	시설기관의 평생교육기관	31	19.4	24	23.1	7	12.5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공공기관 프로그램	16	10.0	12	11.5	4	7.1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	11	6.9	8	7.7	3	5.4
전반적인 만족수준	계	132	100.0	89	100.0	43	100.0
	전혀 만족하지 않음	1	0.8	1	1.1	-	-
	만족하지 않음	12	9.1	11	12.4	1	2.3
	만족함	89	67.4	64	71.9	25	58.1
	매우 만족함	30	22.7	13	14.6	17	39.5

전반적인 만족 수준은 전체적으로 90.1%(119명)의 응답자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시설 보호(종료) 청년의 만족 비율(97.6%, 42명)이 가정보호 청년(86.5%, 77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9) 성인기 교육 이용 욕구

향후 이용하고 싶은 성인기 교육은 전체적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40.4%(8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자립생활훈련 교육’ 24.1%(49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12.3%(25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전체현황과 유사하게 ‘직업능력향상 교육’(46.1%, 65명)을,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자립생활훈련 교육’(29.0%, 18명), ‘직업능력향상 교육’(27.4%, 17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14.5%, 9명) 등으로 다양한 욕구를 나타냈다.

표 III-18. 성인기 교육 이용 욕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학력보완 교육	5	2.5	1	0.7	4	6.5
성인 기초 및 문해 교육	10	4.9	7	5.0	3	4.8
직업능력향상 교육	82	40.4	65	46.1	17	27.4
인문교양 교육	4	2.0	1	0.7	3	4.8
문화체육예술 교육	9	4.4	7	5.0	2	3.2
시민참여 교육	5	2.5	4	2.8	1	1.6
자립생활훈련 교육	49	24.1	31	22.0	18	29.0
정보화 교육	6	3.0	3	2.1	3	4.8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5	12.3	16	11.3	9	14.5
기타	8	3.9	6	4.3	2	3.2

3) 건강

(1) 신체적 건강 수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건강 수준은 응답자의 29.5%(60명)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였으며(매우 건강하지 않음: 5.4%, 건강하지 않음: 24.1%),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37.1%(23명)로 가정보호 청년(26.2%, 37명)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매우 건강하지 않음' 비율(11.3%, 7명)이 전체(5.4%, 11명), 가정보호 청년(2.8%, 4명)보다 높게 나타나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인지하는 자신의 건강수준이 조금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신체적 건강 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매우 건강하지 않음	11	5.4	4	2.8	7	11.3
건강하지 않음	49	24.1	33	23.4	16	25.8
건강함	100	49.3	76	53.9	24	38.7
매우 건강함	43	21.2	28	19.9	15	24.2

(2) 만성질환 유무 및 진료 상황

만성질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20.2%(41명)의 응답자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21.0%, 13명)이 가정보호 청년(19.9%, 28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80.5%(33명)의 응답자가 정기적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도 시설보호(종료) 청년(76.9%, 10명)이 가정보호 청년(82.1%, 23명)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정기적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유'가 37.5%(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66.7%(3명)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20. 만성질환 유무 및 진료 상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만성질환유무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예	41	20.2	28	19.9	13	21.0
	아니오	162	79.8	113	80.1	49	79.0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정기적 진료 및 치료 유무	계	41	100.0	28	100.0	13	100.0
	예	33	80.5	23	82.1	10	76.9
	아니오	8	19.5	5	17.9	3	23.1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기적 진료 및 치료를 받지 않는 주된 이유	계	8	100.0	5	100.0	3	100.0
	경제적 이유로	3	37.5	1	20.0	2	66.7
	근처에 진료를 받고 싶은 병원이 없어서	1	12.5	1	20.0	-	-
	귀찮아서	1	12.5	1	20.0	-	-
	기타	3	37.5	2	40.0	1	33.3

(3) 우울 수준

지난 1주간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최소 1-2일에서 최대 5일 이상 우울감을 느낀 비율이 54.7%(111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비율(59.7%, 37명)이 가정보호 청년(52.5%, 74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21. 지난 1주간 우울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전혀 또는 매우 드물게 그러함(일주일에 1일 미만)		92	45.3	67	47.5	25	40.3
가끔 그러함(일주일에 1-2일간)		66	32.5	44	31.2	22	35.5
종종 그러함(일주일에 3-4일간)		33	16.3	23	16.3	10	16.1
대부분 그러함(일주일에 5일 이상)		12	5.9	7	5.0	5	8.1

(3) 전문 상담 및 진료 여부

최근 1년 내 경제선지능청년 응답자의 35.5%(72명)가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 진료 및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37.6%, 53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30.6%, 19명)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진료 및 상담을 받은 적은 없지만 최근 1년 간 필요하다고 생각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10.7%(14명)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16.3%(7명)로 가정보호 청년(8.0%, 7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 최근 1년간 전문상담 및 진료(생각)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 가 진료 및 상담 유무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예	72	35.5	53	37.6	19	30.6
	아니오	131	64.5	88	62.4	43	69.4
(아니오의 경우)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 진료 및 상 담 생각 유무	계	131	100.0	88	100.0	43	100.0
	예	14	10.7	7	8.0	7	16.3
	아니오	117	89.3	81	92.0	36	83.7

(4)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31.5%(64명)로 나타났으며, 가정보호 청년(35.5%, 50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22.6%, 14명)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는 ‘우울증, 조울증’이 37.5%(2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가정보호 청년(34.0%, 17명), 시설보호(종료) 청년(50.0%, 7명)도 ‘우울증, 조울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3.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신과 약물 복용 유무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예	64	31.5	50	35.5	14	22.6
	아니오	139	68.5	91	64.5	48	77.4
(예의 경우) 정신과 약물 복용 주된 이유	계	64	100.0	50	100.0	14	100.0
	우울증, 조울증	24	37.5	17	34.0	7	50.0
	조현병	3	4.7	1	2.0	2	14.3
	불안, 공포, 강박	6	9.4	6	12.0	-	-
	수면 문제	5	7.8	4	8.0	1	7.1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행동문제	9	14.1	7	14.0	2	14.3
	뇌전증	3	4.7	3	6.0	-	-
	기타	14	21.9	12	24.0	2	14.3

(5) 자살 생각 여부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27.6%(56명)이었으며,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30.6%(19명)로 가정보호 청년(26.2%, 37명)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24.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최근 1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예	56	27.6	37	26.2	19	30.6
	아니오	147	72.4	104	73.9	43	69.4

(6) 일상 운동 여부 및 현황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의 57.1%(116명)가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54.6%(77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62.9%(39명)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수준은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33.3%(29명), ‘매일’이 26.4%(23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청년은 전체 현황과 유사하게 ‘매일’(26.6%, 17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일주일에 5-6번 정도’(30.4%, 7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25. 일상 운동 여부 및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평소 규칙적인 운동 수행 여부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예	87	42.9	64	45.4	23	37.1
	아니오	116	57.1	77	54.6	39	62.9
(예외 경우) 규칙적 운동 수행 수준	계	87	100.0	64	100.0	23	100.0
	일주일에 1-2번 정도	29	33.3	25	39.1	4	17.4
	일주일에 3-4번 정도	22	25.3	16	25.0	6	26.1
	일주일에 5-6번 정도	13	14.9	6	9.4	7	30.4
	매일	23	26.4	17	26.6	6	26.1
가장 자주 하 는 운동	계	87	100.0	64	100.0	23	100.0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	32	36.8	23	35.9	9	39.1
	구기 운동	6	6.9	5	7.8	1	4.3
	맨손체조, 스트레칭	10	11.5	6	9.4	4	17.4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10	11.5	7	10.9	3	13.0
	수중 운동	2	2.3	2	3.1	-	-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4	4.6	2	3.1	2	8.7
	라켓 스포츠	3	3.4	3	4.7	-	-
	등산	4	4.6	4	6.3	-	-
	요가, 필라테스	3	3.4	2	3.1	1	4.3
	골프	1	1.1	1	1.6	-	-
	기타	12	13.8	9	14.1	3	13.0
	계	116	100.0	77	100.0	39	100.0
(아니오의 경우)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지 못해서	13	11.2	11	14.3	2	5.1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0	17.2	12	25.6	8	20.5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0	8.6	8	10.4	2	5.1
	이용하고 싶은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	22	19.0	16	20.8	6	15.4
	관련 시설이 주위에 없어서	2	1.7	2	2.6	-	-
	운동이 필요 없거나 다른 활 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14	12.1	6	7.8	8	20.5
	기타	35	30.2	22	28.6	13	33.3

가장 자주 하는 운동은 전체적으로 36.8%(32명)의 응답자가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라고 하였으며, 보호기반에 따른 현황도 전체 현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가정보호: 35.9% 23명, 시설보호(종료): 39.1%, 9명).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기타’가 30.2%(3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귀찮아서’,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의욕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체력이 부족해서’, ‘심리적 여유가 없어서’ 등이 포함되었다. 가정보호 청년(28.6%)과 시설보호(종료) 청년(33.3%)도 전체 현황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4) 일상생활 및 만족도

(1) 일상생활 도움 필요 수준

타인의 도움 필요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77.4%의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의 응답자는 ‘모든 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75.9%(107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81.6%(50명)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시설보호(종료) 청년(14.5%, 9명)이 가정보호 청년(4.3%, 6명)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26. 일상생활 도움 필요 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모든 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15	7.4	6	4.3	9	14.5
일정 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142	70.0	101	71.6	41	66.1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46	22.7	34	24.1	12	19.4

(2) 도움 내용 및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각종 계약 체결’ 15.9%(94명), ‘금융 거래 및 금전 관리’ 15.0%(89명), ‘필요 행정서류 발급 및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이용’ 12.8%(76명),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12.5%(74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보호기반에 따른 현황도 전체 현황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가정보호 청년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13.1%, 56명)가,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안전 및 위험 시 도움 요청’(13.3%, 22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49.0%(7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은 ‘어머니’(70.1%, 75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기관 종사자’(66.0%, 33명)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27. 도움 내용 및 주 돌봄자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움이 필요한 내용	계	593	100.0	428	100.0	165	100.0
	가사생활	56	9.4	44	10.3	12	7.3
	물건 구입	31	5.2	20	4.7	11	6.7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74	12.5	56	13.1	18	10.9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69	11.6	48	11.2	21	12.7
	필요 행정 서류 발급 등 공공 기관 또는 공공시설 이용	76	12.8	54	12.6	22	13.3
	금융거래 및 금전 관리	89	15.0	65	15.2	24	14.5
	낮선 장소 이동	29	4.9	22	5.1	7	4.2
	각종 계약 체결	94	15.9	68	15.9	26	15.8
	안전 및 위험 시 도움 요청	59	9.9	37	8.6	22	13.3
	지역 내 편의시설 이용	16	2.7	14	3.3	2	1.2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	계	157	100.0	107	100.0	50	100.0
	어머니	77	49.0	75	70.1	2	4.0
	아버지	11	7.0	10	9.3	1	2.0
	배우자	3	1.9	2	1.9	1	2.0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형제, 자매	10	6.4	7	6.5	3	6.0
	조부모	1	0.6	1	0.9	-	-
	기관 종사자	38	24.2	5	4.7	33	66.0
	선배, 친구 등 지인	9	5.7	1	0.9	8	16.0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	1	0.6	-	-	1	2.0
	기타	7	4.5	6	5.6	1	2.0

(3) 여가 활동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활동’ (26.2%, 53명), ‘온라인 게임’(19.3%, 39명), ‘TV 시청’(16.3%, 33명)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음’의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8.1%, 5명)이 가정보호 청년(2.1%, 3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주로 혼자서 하는 활동(64.3%, TV시청: 20.0%, 온라인 게임: 21.4%, SNS활동 : 22.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8. 여가시간에 주고 하는 활동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2	100.0	140	100.0	62	100.0
TV시청	33	16.3	28	20.0	5	8.1
(온라인)게임	39	19.3	30	21.4	9	14.5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활동	53	26.2	32	22.9	21	33.9
운동, 체육, 미술, 음악 활동	20	9.9	14	10.0	6	9.7
독서, 음악, 영화, 스포츠 등 관람	11	5.4	6	4.3	5	8.1
여행, 나들이	9	4.5	6	4.3	3	4.8
등산, 산책	8	4.0	5	3.6	3	4.8
특별히 하는 것 없음	8	4.0	3	2.1	5	8.1
기타	21	10.4	16	11.4	5	8.1

(4) 의사결정 수준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사 표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표현하는 않는 편임, 전혀 표현하지 않음).’고 응답한 비율이 30.0%(61명)이었으며,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37.1%, 23명)이 전체, 가정보호 청년(26.9%, 38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들어서’가 35.0%(2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나의 의견을 이야기해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25.0%, 15명),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더 나아서(원해서)’(13.3%, 8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들어서’(40.5%, 15명)가,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더 나아서(원해서)’(30.4%, 7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29. 의사 표현 수준 및 표현이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 표현 수준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전혀 표현하지 않음	12	5.9	5	3.5	7	11.3
	표현하지 않는 편임	49	24.1	33	23.4	16	25.8
	표현하는 편임	112	55.2	85	60.3	27	43.5
	매번 표현함	30	14.8	18	12.8	12	19.4
표현하지 않은 주된 이유	계	60	100.0	37	100.0	23	100.0
	나의 의견을 이야기해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15	25.0	13	35.1	2	8.7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들어서	21	35.0	15	40.5	6	26.1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할 지를 몰라서	7	11.7	4	10.8	3	13.0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더 나아서(원해서)	8	13.3	1	2.7	7	30.4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왔기 때문에	4	6.7	3	8.1	1	4.3
	기타	5	8.3	1	2.7	4	17.4

(5) 자기 효능감 수준

자기 효능감과 관련해서 ‘나는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102명)이었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57.1%, 80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35.5%, 22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라고 응답한 비율이 45.0%(91명)이었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52.1%, 73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29.0%, 18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30. 자기 효능감 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나는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다.	계	202	100.0	140	100.0	62	100.0
	전혀 그렇지 않음	19	9.4	15	10.7	4	6.5
	그렇지 않음	83	41.1	65	46.4	18	29.0
	그려함	82	40.6	48	34.3	34	54.8
	매우 그려함	18	8.9	12	8.6	6	9.7
나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계	202	100.0	140	100.0	62	100.0
	전혀 그렇지 않음	18	8.9	15	10.7	3	4.8
	그렇지 않음	73	36.1	58	41.4	15	24.2
	그려함	94	46.5	58	41.4	36	58.1
	매우 그려함	17	8.4	9	6.4	8	12.9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	202	100.0	140	100.0	62	100.0
	전혀 그렇지 않음	24	11.9	18	12.9	6	9.7
	그렇지 않음	97	48.0	74	52.9	23	37.1
	그려함	69	34.2	38	27.1	31	50.0
	매우 그려함	12	5.9	10	7.1	2	3.2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계	202	100.0	140	100.0	62	100.0
	전혀 그렇지 않음	22	10.9	17	12.1	5	8.1
	그렇지 않음	68	33.7	57	40.7	11	17.7
	그려함	96	47.5	57	40.7	39	62.9
	매우 그려함	16	7.9	9	6.4	7	11.3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문항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라고 응답한 비율이 59.9%(121명)이었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65.8%, 92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46.8%, 29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는 문항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라고 응답한 비율이 44.6%(90명)이었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52.8%, 74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25.8%, 1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6) 일상생활 만족수준

현 생활의 전반적 만족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한 비율은 32.7%(66명)이었으며,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35.7%, 50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25.8%, 1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만족하지 않는 부분은 ‘경제수준’이 30.3%(2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사람관계’ 27.3%(18명), ‘직장생활’ 12.1%(8명), ‘가족관계’ 10.6%(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청년은 ‘사람관계’(28.0%, 14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경제수준’(43.8%, 7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31. 일상생활 만족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 생활의 전반적 만족수준	계	202	100.0	140	100.0	62	100.0
	전혀 만족하지 않음	7	3.5	7	5.0	-	-
	만족하지 않음	59	29.2	43	30.7	16	25.8
	만족함	102	50.5	71	50.7	31	50.0
	매우 만족함	34	16.8	19	13.6	15	24.2
가장 만족하지 않는 부분	계	66	100.0	50	100.0	16	100.0
	경제수준	20	30.3	13	26.0	7	43.8
	건강	4	6.1	4	8.0	-	-
	가족관계	7	10.6	7	14.0	-	-
	사람관계	18	27.3	14	28.0	4	25.0
	직장생활	8	12.1	7	14.0	1	6.3
	주거	3	4.5	2	4.0	1	6.3
	기타	6	9.1	3	6.0	3	18.8

(7) 미래 우려 사항

미래에 가장 걱정이 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직업생활' 38.1%(75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집 마련'(17.3%, 34명), '생활비'(15.7%, 31명), '이성교제 및 결혼'(11.7%, 23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청년의 경우 '직업생활'(46.0%, 63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집 마련'(31.7%, 1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가정보호 청년보다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10.0%, 6명)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32. 미래 우려 사항(1순위)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97	100.0	137	100.0	60	100.0
직업생활	75	38.1	63	46.0	12	20.0
생활비	31	15.7	18	13.1	13	21.7
이성교제 및 결혼	23	11.7	20	14.6	3	5.0
집 마련	34	17.3	15	10.9	19	31.7
건강	14	7.1	10	7.3	4	6.7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5	2.5	3	2.2	2	3.3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12	6.1	6	4.4	6	10.0
기타	3	1.5	2	1.5	1	1.7

주. 특별한 걱정되는 부분이 없음(2.5%, 5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5) 소득 및 경제활동

(1) 수입원

수입원은 전체적으로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음’이 45.5%(9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일을 해서 벌고 있음’ 30.2%(61명),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음’ 11.4%(23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과반 수 이상이 부모님의 지원(62.1%, 87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근로소득(45.2%, 28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32.3%, 20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 수입원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2	100.0	140	100.0	62	100.0
일을 해서 벌고 있음	61	30.2	33	23.6	28	45.2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음	92	45.5	87	62.1	5	8.1
부모님 외 가족이 지원하고 있음	11	5.4	10	7.1	1	1.6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음	23	11.4	3	2.1	20	32.3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음	6	3.0	3	2.1	3	4.8
이웃, 지인 등이 지원하고 있음	1	0.5	-	-	1	1.6
타인에게 빌리거나 은행 등에서 대출받음	1	0.5	1	0.7	-	-
기타	7	3.5	3	2.1	4	6.5

(2) 월 지출 현황

평균 월 지출 비용은 전체적으로 '20만원 미만'이 24.9%(5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과반 수 이상이 60만원 미만의 비용(63.2%)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청년은 '20만원 미만'(28.8%, 40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40-60만원 미만'과 '80-100만원'(19.4%, 12명)의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 내역은 '식비'(49.3%, 99명), '여가 활용비'(15.4%, 31명), '친목 교제, 유흥비'(10.9%, 22명) 등이며, 가정보호 청년과 시설보호(종료) 청년 모두 '식비'(각각 42.4%, 64.5%)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월 지출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 평균 지출비용 (본인 지출비용)	계	201	100.0	139	100.0	62	100.0
	20만 원 미만	50	24.9	40	28.8	10	16.1
	20-40만 원	40	19.9	30	21.6	10	16.1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0~60만 원	37	18.4	25	18.0	12	19.4
	60~80만 원	18	9.0	12	8.6	6	9.7
	80~100만 원	22	10.9	10	7.2	12	19.4
	100~120만 원	9	4.5	4	2.9	5	8.1
	120~140만 원	1	0.5	-	-	1	1.6
	140만 원 이상	14	7.0	8	5.8	6	9.7
	모르겠음	10	5.0	10	7.2	-	-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내역	계	201	100.0	139	100.0	62	100.0
	식비	99	49.3	59	42.4	40	64.5
	주거비	5	2.5	4	2.9	1	1.6
	대출상환금	9	4.5	6	4.3	3	4.8
	교육비	16	8.0	15	10.8	1	1.6
	여가 활용비	31	15.4	25	18.0	6	9.7
	친목교제, 유흥비	22	10.9	17	12.2	5	8.1
	기타	19	9.5	13	9.4	6	9.7

(3) 채무 현황

경제선지능청년 응답자 중 12.4%(25명)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10.1%, 14명)보다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비율(17.7%, 11명)이 높게 나타났다. 채무 금액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72.0%, 1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500만원 미만(44.4%, 11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보호 청년은 '500만원 미만'(50.0%, 7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5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의 비율(각각 36.4%)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보호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채무액이 있는 응답자(14.3%, 2명)도 있었다.

채무가 발생한 이유는 '기타'(32.0%, 8명), '학자금 마련'(24.0%, 6명), '생활비 마련'(20.0%, 5명) 등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벌금납부', '도박자금 마련', '차량 구입' 등이 포함되었다. 보호기반에 따라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경우에는 '명의도용, 사기 등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착취'가 18.2%(3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출기관의 경우 전체 현황은 ‘은행’(60.0%, 12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제2금융권’의 비율(50.0%, 4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 채무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채무 보유 여부	계	201	100.0	139	100.0	62	100.0
	예	25	12.4	14	10.1	11	17.7
	아니오	176	87.6	125	89.9	51	82.3
채무 금액대	계	25	100.0	14	100.0	11	100.0
	500만 원 미만	11	44.0	7	50.0	4	36.4
	500~1,000만 원	2	8.0	1	7.1	1	9.1
	1,000~2,000만 원	5	20.0	1	7.1	4	36.4
	2,000~3,000만 원	1	4.0	1	7.1	-	-
	3,000~4,000만 원	1	4.0	1	7.1	-	-
	4,000~5,000만 원	1	4.0	-	-	1	9.1
	5,000만 원 이상	2	8.0	2	14.3	-	-
	모르겠음	2	8.0	1	7.1	1	9.1
주된 채무 발생 이유	계	25	100.0	14	100.0	11	100.0
	학자금 마련	6	24.0	4	28.6	2	18.2
	주거비 마련	3	12.0	3	21.4	-	-
	생활비 마련	5	20.0	3	21.4	2	18.2
	명의도용, 사기 등 타인의 경제적 착취	3	12.0	1	7.1	2	18.2
	기타	8	32.0	3	21.4	5	45.5
대출기관	계	20	100.0	12	100.0	8	100.0
	은행	12	60.0	10	83.3	2	25.0
	제2금융권	6	30.0	2	16.7	4	50.0
	대부업체	2	10.0	-	-	2	25.0

(3) 근로 경험 및 퇴사 이유

응답자 중 67.2%(135명)가 근로 경험이 있었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60.4%(84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82.3%(51명)로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에서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20.4%(2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의 부적응’(11.2%, 11명), ‘열악한 근무환경’,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해서’, ‘나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부족’(각각 9.2%, 9명)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호기반에 따른 현황도 전체 현황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가정보호 청년의 경우 시설보호(종료) 청년보다 ‘나의 근로 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16.1%, 9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36. 근로 경험 및 퇴사 이유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경험 여부	계	201	100.0	139	100.0	62	100.0
	있음	135	67.2	84	60.4	51	82.3
	없음	66	32.8	55	39.6	11	17.7
(경험이 있는 경우) 마지막 직장 퇴사 이유	계	98	100.0	56	100.0	42	100.0
	낮은 임금 수준	3	3.1	-	-	3	7.1
	열악한 근무환경	9	9.2	3	5.4	6	14.3
	계약기간 만료	20	20.4	14	25.0	6	14.3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해서	9	9.2	6	10.7	3	7.1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5	5.1	4	7.1	1	2.4
	나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9	9.2	9	16.1	-	-
	직장에서의 부적응	11	11.2	5	8.9	6	14.3
	나의 근로의지 부족	6	6.1	1	1.8	5	11.9
	출퇴근의 어려움	2	2.0	-	-	2	4.8
	건강의 악화	2	2.0	-	-	2	4.8
	가사, 돌봄, 이사 등 가정 이유	1	1.0	1	1.8	-	-
	다른(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	7	7.1	2	3.6	5	11.9
	기타	14	14.3	11	19.6	3	7.1

(4) 현 취업 여부 및 경로

현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일하고 있는 응답자는 53.3%(73명)으로 시설보호(종료) 청년(64.7%, 33명)이 가정보호 청년(46.5%, 40명)보다 현 취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 일자리 개수는 전체적으로 '1개 일자리' 비율이 97.3%(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보호기반에 따른 현황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가정보호 청년: 97.5%, 시설보호(종료) 청년: 97.0%). 그리고 시설보호(종료) 청년(6.1%, 2명)이 가정보호 청년(5.0%, 2명)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계선지능청년이 취업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족, 친구, 선후배, 일자리 동료 등 주변 지인의 소개'로 취업이 되는 비율(32.8%, 2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현황은 보호기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가정보호 청년은 전체 현황과 동일하게 지인을 통한 취업 비율(50.0%, 16명)이 높은 반면에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직접 채용 정보 검색 후 입사 지원'(37.5%, 12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7. 현 취업 여부 및 경로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 취업 여부	계	137	100.0	86	100.0	51	100.0
	일하고 있음	73	53.3	40	46.5	33	64.7
	일하고 있지 않음	64	46.7	46	53.5	18	35.3
일자리 개수	계	73	100.0	40	100.0	33	100.0
	1개	71	97.3	39	97.5	32	97.0
	2개	2	2.7	1	2.5	1	3.0
플랫폼 종사자 여부	계	73	100.0	40	100.0	33	100.0
	예	4	5.5	2	5.0	2	6.1
	아니오	69	94.5	38	95.0	31	94.5
취업경로	계	64	100.0	32	100.0	32	100.0
	직접 채용정보 검색 후 입사 지원	16	25.0	4	12.5	12	37.5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 민간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및 취업 알선	6	9.4	4	12.5	2	6.3
학교, 청소년지원기관, 지역복지관 등의 소개 및 취업알선	16	25.0	5	15.6	11	34.4
주변 지인의 소개 및 추천	21	32.8	16	50.0	5	15.6
기타	5	7.8	3	9.4	2	6.3

(5) 현 취업자 근로 조건

현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는 전체적으로 ‘임금근로자’ 비율이 89.0%(65명)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임금근로자’ 비율(97.0%, 32명)이 가정보호 청년(82.5%, 33명)보다 높았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는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63.1%, 41명). 근로 시간 유형은 ‘시간제’가 64.6%(42명)으로 과반 수 이상의 응답자가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가정보호 청년보다 ‘시간제 근로’ 비율(53.1%, 17명)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65.6%, 21명)이 높아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고용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직종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서비스 종사자’(43.8%, 28명), ‘단순 노무 종사자’(34.4%, 22명) 등의 집중되어 있어 한정된 직종으로 취업 진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기반에 따른 현황도 유사한 수치를 보였지만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 비율(50.0%, 16명)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은 전체적으로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응답자의 78.1%(50명)를 차지하였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도 37.5%(24명, 가정보호: 40.6%, 13명, 시설보호(종료) 청년: 34.4%, 11명)로 근로 소득이 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8. 현 취업자 근로 조건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종사자 지위	계	73	100.0	40	100.0	33	100.0
	임금 근로자	65	89.0	33	82.5	32	97.0
	비 임금 근로자	8	11.0	7	17.5	1	3.0
고용형태	계	65	100.0	33	100.0	32	100.0
	정규직	24	36.9	13	39.4	11	34.4
	비정규직	41	63.1	20	60.6	21	65.6
근로시간 유형	계	65	100.0	33	100.0	32	100.0
	전일제	23	35.4	8	24.2	15	46.9
	시간제	42	64.6	25	75.8	17	53.1
직종	계	64	100.0	32	100.0	32	100.0
	관리자	1	1.6	1	3.1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	10.9	5	18.8	1	3.1
	사무종사자	2	3.1	1	3.1	1	3.1
	서비스 종사자	28	43.8	10	37.5	16	50.0
	판매 종사자	2	3.1	1	3.1	1	3.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	1.6	-	-	1	3.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	1.6	-	-	1	3.1
	단순 노무 종사자	22	34.4	8	34.4	6	34.4
월 소득	계	64	100.0	32	100.0	32	100.0
	100만 원 미만	24	37.5	13	40.6	11	34.4
	100-200만 원	26	40.6	12	37.5	14	43.8
	200-300만 원	12	18.8	5	15.6	7	21.9
	300만 원 이상	2	3.1	2	6.3	-	-

(6) 현 취업자 직업생활

직무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나의 기술/교육 수준보다 직무 수준이 유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6%(42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나의 기술/교육 수준보다 직무 수준이 낮다.’의 비율(28.1%, 9명)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계선지능청년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출퇴근의 어려움’(22.2%, 12명), ‘근로 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22.2%, 12명), ‘대인관계의 어려움’(18.5%,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청년은 ‘근로능력의 부족, 업무 성과 미흡’(28.6%, 8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출퇴근의 어려움’(26.9%, 7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직장생활 만족수준은 응답자 중 31.9%(23명)가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고 하였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이 시설보호(종료) 청년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가정보호 청년: 33.4%, 13명, 시설보호(종료) 청년: 30.3%, 10명). 그러나 시설보호(종료)청년의 경우 ‘매우 만족하지 않음’ 비율이 12.1%(4명)로 전체와 가정보호 청년(2.6%, 1명)보다 약 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직 의향 있음’이 47.2%(34명)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51.5%, 17명)이 가정보호 청년(43.6%, 17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39. 현 취업자 직업생활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무 수준	계	64	100.0	32	100.0	32	100.0
	나의 기술/교육 수준보다 직무수준이 낮다	15	23.4	6	18.8	9	28.1
	나의 기술/교육 수준보다 직무수준이 유사하다	42	65.6	24	75.0	18	56.3
	나의 기술/교육수준보다 직무수준이 높다	7	10.9	2	6.3	5	15.6
직장생활 주된 어려움	계	54	100.0	28	100.0	26	100.0
	출퇴근의 어려움	12	22.2	5	17.9	7	26.9
	근태관리의 어려움	3	5.6	2	7.1	1	3.8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8	14.8	5	17.9	3	11.5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12	22.2	8	28.6	4	15.4
	근무환경의 열악함	5	9.3	2	7.1	3	11.5
	대인관계의 어려움	10	18.5	6	21.4	4	15.4
	기타	4	7.4	-	-	4	15.4
직장생활 만족수준	계	72	100.0	39	100.0	33	100.0
	매우 만족하지 않음	5	6.9	1	2.6	4	12.1
	만족하지 않음	18	25.0	12	30.8	6	18.2
	만족함	33	45.8	16	41.0	17	51.5
	매우 만족함	16	22.2	10	25.6	6	18.2
현 직장 이직 의향	계	72	100.0	39	100.0	33	100.0
	있음	34	47.2	17	43.6	17	51.5
	없음	38	52.8	22	56.4	16	48.5

(5) 미취업자 구직욕구

현재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2.2%(106명)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청년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가정보호: 80.6%, 79명, 시설보호(종료): 87.1%, 27명).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26.1%, 6명),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서’(26.1%, 6명), ‘일하는 게 싫어서’(21.7%, 5명),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17.4%, 4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보호 청년은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31.6%, 6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서’(50.0%, 2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종은 전체적으로 ‘서비스 종사자’(28.3%, 30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8%, 22명), ‘단순노무종사자’(8.5%, 9명), ‘사무종사자’(7.5%, 8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 취업자의 직종 현황보다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청년은 ‘서비스 종사자’(32.9%, 26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5.9%, 7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전일제’와 ‘시간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동률로 나타났다(각각 50.0%, 53명) 가정보호 청년은 ‘시간제’(55.7%, 44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전일제’(66.7%, 18명)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40. 미취업자 구직 욕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향후 취업 희망 여부	계	129	100.0	98	100.0	31	100.0
	희망함	106	82.2	79	80.6	27	87.1
	희망하지 않음	23	17.8	19	19.4	4	12.9
희망하지 않 는 주된 이유	계	23	100.0	19	100.0	4	100.0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서	6	26.1	4	21.1	2	50.0
	일하는 게 싫어서	5	21.7	4	21.1	1	25.0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6	26.1	6	31.6	-	-
	일할 필요가 없어서	1	4.3	1	5.3	-	-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4	17.4	4	21.1	-	-
	기타	1	4.3	-	-	1	25.0
희망직종	계	106	100.0	79	100.0	27	100.0
	관리자	2	1.9	-	-	2	7.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	20.8	15	19.0	7	25.9
	사무종사자	8	7.5	6	7.6	2	7.4
	서비스 종사자	30	28.3	26	32.9	4	14.8
	판매 종사자	3	2.8	2	2.5	1	3.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	5.7	5	6.3	1	3.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	2.8	2	2.5	1	3.7
	단순 노무 종사자	9	8.5	6	7.6	3	11.1
	직업군인	1	0.9	-	-	1	3.7
희망 근로시간	계	106	100.0	79	100.0	27	100.0
	전일제	53	50.0	35	44.3	18	66.7
	시간제	53	50.0	44	55.7	9	33.3

(6)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현재 미취업자 응답자의 26.4%(28명)가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의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48.1%, 13명)이 가정보호 청년(19.0%, 15명)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28.2%, 22명), '진학이나 취업교육 준비 중이어서'(17.9%, 14명) 등 대학 진학과 취업 및 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외의 이유에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1.5%, 9명),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7.7%, 6명),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6.4%, 5명),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5.1%, 4명) 등이 포함되었다.

구직활동 방법은 '구직정보 탐색 후 직접 지원 및 면접'(32.1%, 9명), '취업 연계되는 직업훈련 및 프로그램 참여'(28.6%, 8명), '관련 사이트에 구직 등록'(17.9%, 5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보호기반에 따른 현황도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표 III-41. 미취업자 구직활동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난 4주 내 구직활동 유무	계	106	100.0	79	100.0	27	100.0
	예	28	26.4	15	19.0	13	48.1
	아니오	78	73.6	64	81.0	14	51.9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계	78	100.0	64	100.0	14	100.0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9	11.5	8	12.5	1	7.1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5	6.4	3	4.7	2	14.3
	취미활동을 위해서	2	2.6	2	3.1	-	-
	시간적 여유를 즐기고	1	1.3	1	1.6	-	-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1	1.3	1	1.6	-	-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2	2.6	2	3.1	-	-
	대학 등에 다니고 있어서	22	28.2	20	31.3	2	14.3
	진학이나 취업교육 중이어서	14	17.9	11	17.2	3	21.4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3	3.8	3	4.7	-	-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4	5.1	3	4.7	1	7.1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6	7.7	5	7.8	1	7.1
	기타	9	11.5	5	7.8	4	28.6
구직활동 방법	계	28	100.0	15	100.0	13	100.0
	구직정보 탐색 후 직접 지원 및 면접	9	32.1	4	26.7	5	38.5
	민간 취업 기관 연락 및 방문	3	10.7	3	20.0	-	-
	가족, 지인 등의 소개 및 도움	2	7.1	1	6.7	1	7.7
	관련 사이트에 구직 등록	5	17.9	3	20.0	2	15.4
	취업 연계되는 직업훈련 및 프로그램 참여	8	28.6	4	26.7	4	30.8
	기타	1	3.6	-	-	1	7.7
구직활동 시 겪은 가장 큰 어려움	계	91	100.0	69	100.0	22	100.0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12	13.2	12	17.4	-	-
	나를 채용하려는 일자리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	19	20.9	16	23.2	3	13.6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에서 자주 탈락함	16	17.6	11	15.9	5	22.7
	임금, 근로시간 등 내가 원하는 계약조건에 맞는 일자리(사업체)가 없음	7	7.7	3	4.3	4	18.2
	나의 취업 의지가 약해지거나 없어짐	9	9.9	7	10.1	2	9.1
	자기관리, 사회 적응 등 취업 준비가 부족함	20	22.0	15	21.7	5	22.7
	기타	8	8.8	5	7.2	3	13.6

주. 구직활동 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의 경우 특별히 없음(13.3%, 14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는 ‘자기관리, 사회적응 등의 나의 취업준비가 부족함’이 22.0%(2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나를 채용하려는 일자리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20.9%, 19명),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에서 자주 탈락함’(17.6%, 16명),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13.2%, 12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나를 채용하려는 일자리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23.2%, 16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이력서 제출, 면접 과정에서 자주 탈락함’, ‘자기관리, 사회적응 등의 나의 취업 준비가 부족함’(각각 22.7%, 5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6) 결혼 및 가족 관계

(1) 현 결혼 상태 및 연애 여부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 중 94.5%(188명)가 ‘미혼’이며, ‘기혼’(사별, 별거, 이혼 포함)은 전체 5.5%(11명)로 가정보호 청년(6.6%, 9명)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미혼과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연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18.8%(36명)이며,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19.7%, 26명)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42. 현 결혼 상태 및 연애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 결혼상태	계	199	100.0	137	100.0	62	100.0
	미혼	188	94.5	128	93.4	60	96.8
	기혼 (사별, 별거, 이혼 포함)	11	5.5	9	6.6	2	3.2
현 연애여부	계	192	100.0	132	100.0	60	100.0
	예	36	18.8	26	19.7	10	16.7
	아니오	156	81.3	106	80.3	50	83.3

(2) 향후 결혼 의사

향후 결혼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59.9%(115명), 가정보호 청년 58.3%(77명), 시설보호(종료) 청년 66.3%(38명)으로 나타나 시설보호(종료)청년이 자신의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응답자의 31.2%(24명)가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로 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40.0%, 22명)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나이가 어려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생각이 없어서’ 등이 포함되었다.

표 III-43. 향후 결혼 의사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향후 결혼 의사	계	192	100.0	132	100.0	60	100.0
	희망함	115	59.9	77	58.3	38	63.3
	희망하지 않음	77	40.1	55	41.7	22	36.7
결혼을 희망하지 않 는 주된 이유	계	77	100.0	55	100.0	22	100.0
	결혼비용 때문에	7	9.1	5	9.1	2	9.1
	출산, 양육에 대한 고민, 지원 받기 어렵기 때문에	7	9.1	6	10.9	1	4.5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8	10.4	5	9.1	3	13.6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19	24.7	10	18.2	9	40.9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24	31.2	22	40.0	2	9.1
	기타	12	15.6	7	12.7	5	22.7

(3) 결혼생활 및 자녀양육 어려움

기혼자의 경우 결혼생활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에는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기타(가사생활 어려움, 시댁과의 갈등)’(각각 28.6%, 2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14.3%, 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시 주된 어려움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타(자녀 양육비 문제)’(각각 50.0%, 1명) 등이 있었다.

표 III-44. 결혼생활 및 자녀양육 시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생활 주된 어려움	계	7	100.0	5	100.0	2	100.0
	경제적 어려움	1	14.3	1	20.0	-	-
	배우자와의 갈등	2	28.6	1	20.0	1	50.0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2	28.6	2	40.0	-	-
	기타	2	28.6	1	20.0	1	50.0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시 주된 어려움	계	2	100.0	2	100.0	-	-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몰라서	1	50.0	1	50.0	-	-
	기타	1	50.0	1	50.0	-	-

(4) 가족 간 갈등

가족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구성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33.7%, 30명)로 나타났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어머니’(31.7%, 20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아버지’(46.2%, 12명)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갈등을 겪는 이유에는 ‘의사소통 불가’, ‘대화방식 차이’, ‘세대 갈등’, ‘가정 폭력’, ‘돈 문제’, ‘자녀 편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함’, ‘간섭과 통제’ 등이 포함되었다.

표 III-45. 가족 간의 갈등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89	100.0	63	100.0	26	100.0
아버지	30	33.7	18	28.6	12	46.2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어머니	28	31.5	20	31.7	8	30.8
형제, 자매	23	25.8	19	30.2	4	15.4
자녀	1	1.1	1	1.6	-	-
기타	7	7.9	5	7.9	2	7.7

주. 특별한 갈등이 없음(42.4%, 86명). 가족이 없거나 교류가 전혀 없음(11.8%, 24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5) 부모의 상황

부모의 장애유무는 전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비율은 12.2%(17명)이며,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가정보호: 7.3%, 8명, 시설보호(종료): 31.0%, 9명).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비율이 전체 12.3%(16명)이며, 가정보호 청년 9.3%(10명), 시설보호(종료) 청년 27.3%(6명)로 나타나 시설보호(종료) 청년 부모의 수급 비율이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혼 및 별거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혼 또는 별거하는 비율이 24.9%(43명)이며, 이 비율 역시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가정보호: 15.0%, 20명, 시설보호(종료): 57.5%, 23명).

표 III-46. 부모의 상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의 장애유무	계	139	100.0	110	100.0	29	100.0
	예	17	12.2	8	7.3	9	31.0
	아니오	122	87.8	102	92.7	20	69.0
기초생활수급여부	계	130	100.0	108	100.0	22	100.0
	예	16	12.3	10	9.3	6	27.3
	아니오	114	87.7	98	90.7	16	72.7
이혼 및 별거 여부	계	173	100.0	133	100.0	40	100.0
	이혼을 했거나 별거를 하고 있음	43	24.9	20	15.0	23	57.5
	이혼이나 별거를 하지 않음	130	75.1	113	85.0	17	42.5

7) 관계 및 참여

(1) 관계망 수준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3-4명'(38.9%, 79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1-2명'(39.7%, 56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음'의 비율도 전체 7.4%(15명)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가정보호 청년이 8.5%(12명)로 전체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경계선지능청년이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가족'(40.6%, 80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 학교 선후배'(29.9%, 59명), '기타'(13.7%, 2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타'에는 이성 친구, 기관, 선생님, 모임 지인 등이 포함되었다. 가정보호 청년은 '가족'(56.3%, 76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친구, 학교 선후배'(43.5%, 27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4.1%(8명)인데,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9.7%(6명)로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47. 관계망 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인원	계	203	100.0	141	100.0	62	100.0
	없음	15	7.4	12	8.5	3	4.8
	1-2명	78	38.4	56	39.7	22	35.5
	3-4명	79	38.9	50	35.5	29	46.8
	5명 이상	31	15.3	23	16.3	8	12.9
정기적으로 만 나 교류하는 사람	계	197	100.0	135	100.0	62	100.0
	가족	80	40.6	76	56.3	4	6.5
	친구, 학교 선후배	59	29.9	32	23.7	27	43.5
	직장 동료	11	5.6	6	4.4	5	8.1
	교회, 절, 성당 지인	9	4.6	8	5.9	1	1.6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3	1.5	1	0.7	2	3.2
	기타	27	13.7	10	7.4	17	27.4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음	8	4.1	2	1.5	6	9.7

(2) 타인과의 갈등 이유

타인과 갈등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때문에’(63.2%, 84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15.8%, 21명), ‘내가 감정 기복이 커서’(7.5%, 10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청년 모두 전체 현황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의사소통 때문에’ 각각 70.2%, 46.2%).

표 III-48. 타인과의 갈등 이유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33	100.0	94	100.0	39	100.0
의사소통 때문에	84	63.2	66	70.2	18	46.2
돈 문제 때문에	7	5.3	5	5.3	2	5.1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21	15.8	11	11.7	10	25.6
내가 또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7	5.3	3	3.2	4	10.3
내가 감정 기복이 커서	10	7.5	5	5.3	5	12.8
기타	4	3.0	4	4.3	-	-

주. 특별한 갈등이 없음(32.5%, 64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3) 외출 수준

평상 시 외출 수준은 전체적으로 집에서 외출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이 8.6%(17명)이며, 이 중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이 3.0%(6명)로 은둔형 고립 청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3.0%), 시설보호(종료) 청년(3.2%, 2명)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거의 또는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가 지속된 기간은 6개월 미만(24.2%, 15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7년 이상’도 9.7%(6명)로 나타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이 높은 비율(10.9%, 5명)을 나타냈다.

거의 또는 전혀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할 일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어서’(37.1%, 23명),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21.0%, 13명), ‘외부 활동에 대한 두려움으로’(14.5%,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16.1%, 10명)의 의견에는 ‘나가고

싶지 않음’, ‘특별한 이유가 없음’,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함’, ‘가족 문제로 나가기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표 Ⅲ-49. 외출 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평상시 외출 수준	계	197	100.0	135	100.0	62	100.0
	직장, 학교, 여가생활, 친목 등을 위해 매일 또는 주 3-4일 외출함	135	68.5	89	65.9	46	74.2
	취미생활, 생활물품을 구입할 때 만 인근지역 중심으로 외출함	45	22.8	34	25.2	11	17.7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 지 않음	11	5.6	8	5.9	3	4.8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6	3.0	4	3.0	2	3.2
(거의 또는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 지속 기간	계	62	100.0	46	100.0	16	100.0
	6개월 미만	15	24.2	9	19.6	6	37.5
	6개월-1년	10	16.1	7	15.2	3	18.8
	1-3년	20	32.3	15	32.6	5	31.3
	3-5년	9	14.5	8	17.4	1	6.3
	5-7년	2	3.2	2	4.3	-	-
	7년 이상	6	9.7	5	10.9	1	6.3
현재 상태 주된 이유	계	62	100.0	46	100.0	16	100.0
	학업, 대학진학, 취업 등 계속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5	8.1	3	6.5	2	12.5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13	21.0	12	26.1	1	6.3
	외부 활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9	14.5	8	17.4	1	6.3
	할 일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어서	23	37.1	15	32.6	8	50.0
	정신과적 질환으로	2	3.2	2	4.3	-	-
	기타	10	16.1	6	13.0	4	25.0

(4) 사회참여 수준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의 48.7%(96명)가 ‘나의 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나의 가족’ 비율이 61.5%(83명)로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보호(종료) 청년들을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37.1%, 23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비율은 전체 비율(19.8%, 39명)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사회, 정치 관련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한 적이 없음’이 71.6%(141명)로 가정보호 청년은 69.6%(94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75.8%(47명)로 나타났다. 청년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는데, 여러 구성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에는 참여가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0. 사회참여 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계	197	100.0	135	100.0	62	100.0
	나의 가족	96	48.7	83	61.5	13	21.0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13	6.6	5	3.7	8	12.9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12	6.1	7	5.2	5	8.1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13	6.6	8	5.9	5	8.1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14	7.1	8	5.9	6	9.7
	온라인 커뮤니티	5	2.5	4	3.0	1	1.6
	종교기관	5	2.5	4	3.0	1	1.6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39	19.8	16	11.9	23	37.1
사회, 정치 관련 주된 활동	계	197	100.0	135	100.0	62	100.0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27	13.7	22	16.3	5	8.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리본, 스티커 등을 부착하기	8	4.1	6	4.4	2	3.2
	(온·오프라인)서명에 참여하기	7	3.6	4	3.0	3	4.8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2	1.0	1	0.7	1	1.6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올리기	5	2.5	3	2.2	2	3.2
	정당 활동에 참여하기	2	1.0	2	1.5	-	-
	기타	5	2.5	3	2.2	2	3.2
	참여한 적이 없음	141	71.6	94	69.6	47	75.8

(5) 군 입대 여부 및 군 생활

남성 응답자의 6.6%(13명)가 군 입대를 한 적이 있으며,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이 높은 비율(8.1%, 11명)을 보였다.

군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에는 ‘대인관계 어려움’(30.8%, 4명), ‘폭언, 폭력 등 괴롭힘’, ‘상사 지시, 훈련, 과업수행의 어려움(각각 15.4%, 2명)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 중 30.8%(4명)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였다.

표 III-51. 군 생활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군 입대 경험 여부	계	197	100.0	135	100.0	62	100.0
	예	13	6.6	11	8.1	2	3.2
	아니오	184	93.4	124	91.9	60	96.8
군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 (다중응답)	계	13	100.0	11	100.0	2	100.0
	군 생활방식의 부적응	1	7.7	1	9.1	-	-
	대인관계 어려움	4	30.8	3	27.3	1	50.0
	폭언, 폭력 등 괴롭힘	2	15.4	2	18.2	-	-
	상사 지시, 훈련, 과업수행의 어려움	2	15.4	2	18.2	-	-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	4	30.8	3	27.3	1	50.0

8) 인권 및 사법

(1) 괴롭힘 피해 여부 및 대응

지난 2년 간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비율은 14.8%(29명)이며, 가정보호 청년은 11.9%(13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21.0%(13명)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인권침해 상황에 많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괴롭힘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서적 괴롭힘'(68.6%, 24명), '경제적 착취'(14.3%, 5명), '성적 괴롭힘'(11.4%, 4명), '신체적 괴롭힘'(5.7%,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청년은 '정서적 괴롭힘'(82.4%, 14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성적 괴롭힘', '경제적 착취'(각각 16.7%, 3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가해자는 '친구, 학교 선후배, 연인' (53.8%, 14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23.1%, 6명), '직장 동료나 상사'(11.5%, 3명)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보호 청년은 '친구, 학교 선후배, 연인' (75.0%, 14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가족', '친구, 학교 선후배, 연인' (각각 35.7%, 5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 대응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음'(37.9%, 1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20.7%, 6명),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음',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함'(각각 13.8%, 4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1.7%, 15명;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음.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음)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의 비율이 7.7%(1명)로 가정보호 청년(31.3%, 5명)보다 약 4배 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52. 타인으로부터 괴롭힘 상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난 2년 간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여부	계	196	100.0	134	100.0	62	100.0
	있음	29	14.8	13	11.9	13	21.0
	없음	167	85.2	118	88.1	49	79.0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당한 적이 있는 경우) 괴롭힘 내용 (다중 응답)	계	35	100.0	17	100.0	18	100.0
	정서적 괴롭힘	24	68.6	14	82.4	10	55.6
	신체적 괴롭힘	2	5.7	-	-	2	11.1
	성적 괴롭힘	4	11.4	1	5.9	3	16.7
	경제적 착취	5	14.3	2	11.8	3	16.7
괴롭힘 가해자 (다중 응답)	계	26	100.0	12	100.0	14	100.0
	가족	6	23.1	1	8.3	5	35.7
	친구, 학교 선후배, 연인	14	53.8	9	75.0	5	35.7
	이웃	2	7.7	1	8.3	1	7.1
	직장 동료나 상사	3	11.5	1	8.3	2	14.3
	학교 및 기관 종사자	1	3.8	0	-	1	7.1
주 대응 방법	계	29	100.0	16	100.0	13	100.0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음	11	37.9	7	43.8	4	30.8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음	4	13.8	1	6.3	3	23.1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함	4	13.8	2	12.5	2	15.4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6	20.7	5	31.3	1	7.7
	경찰, 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함	2	6.9	1	6.3	1	7.7
	욕을 하거나 저항함	2	6.9	-	-	2	15.4

(2) 범죄 연루 상황

경제선지능청년 응답자의 6.1%(12명)가 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가정보호: 4.5%, 6명, 시설보호(종료) 청년: 9.7%, 6명). 연루된 범죄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기’, ‘폭력’, ‘성범죄’(각각 23.1%, 3명) 등이었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폭력’, ‘성범죄’(각각 33.3%, 2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사기’, ‘절도, 강도’(각각 28.6%, 2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해자로 연루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준 사람은 전체, 가정보호 청년, 시설보호(종료) 청년 모두 ‘친구, 연인, 선배’의 비율(전체: 46.2%, 6명, 가정보호 청년:

60.0%, 3명, 시설보호(종료) 청년: 37.5%, 3명).

처벌 내용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음’(40.0%, 4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집행유예’의 비율(30.0%, 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보호기반에 따른 현황도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표 III-53. 범죄 연루 상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범죄 가해자연루 여부	계	196	100.0	134	100.0	62	100.0
	있음	12	6.1	6	4.5	6	9.7
	없음	184	93.9	128	95.5	56	90.3
연루 범죄 (다중응답)	계	13	100.0	6	100.0	7	100.0
	사기	3	23.1	1	16.7	2	28.6
	절도, 강도	2	15.4	-	-	2	28.6
	횡령	2	15.4	1	16.7	1	14.3
	폭력	3	23.1	2	33.3	1	14.3
	성범죄	3	23.1	2	33.3	1	14.3
	기타	0	0.0	0	0.0	0	0.0
가해자로 연루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준 사람 (다중응답)	계	13	100.0	5	100.0	8	100.0
	가족	2	15.4	-	-	2	25.0
	친구, 연인, 선배	6	46.2	3	60.0	3	37.5
	온라인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	2	15.4	1	20.0	1	12.5
	모르는 사람	3	23.1	1	20.0	2	25.0
법적처벌 내용 (다중응답)	계	10	100.0	4	100.0	6	100.0
	벌금	1	10.0	-	-	1	16.7
	집행유예	3	30.0	1	25.0	2	33.3
	실형	1	10.0	1	25.0	-	-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음	4	40.0	2	50.0	2	33.3
	기타	1	10.0	-	-	1	16.7

(3) 차별 상황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 중 37.2%(73명)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40.3%, 54)이 시설보호(종료) 청년(30.6%, 19명)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차별받은 상황은 전체적으로 ‘학교생활’(39.1%, 45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일상생활’(29.6%, 34명), ‘취업 진입, 승진, 보수 등 직업생활’(27.0%, 31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청년은 ‘학교생활’(41.6%, 37명)과 ‘취업진입, 승진, 보수 등 직업생활’(30.3%, 27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일상생활’(50.0%, 13명)과 ‘학교생활’(30.8%, 8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54. 차별 상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차별 경험 여부	계	196	100.0	134	100.0	62	100.0
	예	73	37.2	54	40.3	19	30.6
	아니오	123	62.8	80	59.7	43	69.4
차별받은 상황 (다중응답)	계	115	100.0	89	100.0	26	100.0
	학교생활	45	39.1	37	41.6	8	30.8
	직업생활	31	27.0	27	30.3	4	15.4
	일상생활	34	29.6	21	23.6	13	50.0
	지역 편의시설	2	1.7	1	1.1	1	3.8
	청년지원 및 복지서비스 이용	2	1.7	2	2.2	-	-
	결혼	1	0.9	1	1.1	-	-

9) 정책 및 지원

(1) 청년정책 인지 및 이용 수준

경계선지능청년의 청년정책 인지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 28.9%가 청년정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평균 23.0%,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평균 41.5%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비율이 낮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11.3%, 22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각각 12.4%, 24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16.8%, 32명),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17.7%, 34명), '성매매 피해자 지원'(18.3%, 35명), '청년 주거비 지원'(27.1%, 52명), '청년내일채움공제'(28.5%, 55명) 등이 인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청년정책 이용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 27.5%가 청년정책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평균 25.6%,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평균 37.1%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비율이 높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합문화이용권'(65.4%, 51명),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55.4%, 36명) 등이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만족도는 만족한 비율(만족+매우만족)을 중심으로 평균 83.1%가 이용한 청년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보호 청년은 평균 77.1%,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평균 95.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비율이 높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00.0%, 4명), '성매매 피해자 지원'(100.%, 3명), '통합문화이용권'(98.0%, 50명),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97.2%, 35명),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90.9%, 10명), '청년 주거비 지원'(87.5%, 7명),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83.3%, 10명) 등이 만족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청년정책 인지 및 이용 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학금 지원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113	58.2	64	48.5	49	79.0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48	42.1	22	33.8	26	53.1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44	93.6	18	85.7	26	100.0
국민취업 지원제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102	52.6	58	43.9	44	71.0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48	47.1	27	46.6	21	47.7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38	79.2	19	70.4	19	90.5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22	11.3	15	11.4	7	11.3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4	18.2	4	26.7	-	-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3	75.0	3	75.0	-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24	12.4	18	13.6	6	9.8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3	12.5	3	16.7	-	-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2	66.7	2	66.7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24	12.4	20	15.2	4	6.6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4	16.7	4	20.0	-	-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4	100.0	4	100.0	-	-
청년내일 채움공제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55	28.5	31	23.5	24	39.3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6	10.9	6	19.4	-	-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3	60.0	3	60.0	-	-
일하는 자소 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68	35.4	32	24.4	36	59.0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12	17.6	5	15.6	7	19.4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10	83.3	3	60.0	7	100.0
보호 종료 아 동 자립수당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65	33.9	18	13.7	47	77.0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36	55.4	6	33.3	30	63.8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35	97.2	5	83.3	30	100.0

표 III-56. 청년정책 인지 및 이용 수준_계속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34	17.7	24	18.3	10	16.4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11	32.4	9	37.5	2	20.0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10	90.9	8	88.9	2	100.0
청년 주택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101	52.6	49	37.4	85	85.2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30	30.0	6	12.5	24	46.2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24	80.0	4	66.7	20	83.3
청년 주거비 지원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52	27.1	28	21.4	24	39.3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8	15.7	4	14.8	4	16.7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7	87.5	3	75.0	4	100.0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통합문화 이용권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79	41.1	36	27.5	43	70.5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51	65.4	15	42.9	36	83.7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50	98.0	14	93.3	36	100.0
임신, 출산 의료비 및 장 려금 지원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44	23.0	26	20.0	18	29.5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3	7.0	3	12.0	-	-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2	66.7	2	66.7	-	-
자녀 아동수당 지원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41	21.5	28	21.5	13	21.3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8	20.0	6	22.2	2	15.4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6	75.0	4	66.7	2	100.0
성매매 피해자 지원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35	18.3	19	14.6	16	26.2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3	8.6	2	10.5	1	6.3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3	100.0	2	100.0	1	1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경우	32	16.8	18	13.8	14	23.0
	이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13	40.6	8	44.4	5	35.7
	이 중 만족한 경우(만족+매우 만족)	10	76.9	6	75.0	4	80.0

(2) 정부정책 및 서비스 정보 접근 수준

정책 및 서비스 정보를 확보하는 주된 방법은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 기관’(36.1%, 69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정보매체’(21.5%, 41명), ‘가족’(14.1%, 2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보호 청년은 ‘정보매체’(27.7%, 36명)와 ‘가족’(20.8%, 27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복지서비스 기관’(75.4%, 46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정보호 청년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5%(11명)로 시설보호(종료) 청년(1.6%, 1명)보다 약 8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주된 어려움은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지 모름’이 42.9%(7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어떻게(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19.6%, 33명),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모름’(12.5%, 21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의 비율을 볼 때 가정보호 청년(10.9%, 14명,

어려움이 있음)이 시설보호(종료) 청년(13.1%, 8명)보다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II-57. 정부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접근 수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주된 확보 경로	계	191	100.0	130	100.0	61	100.0
	복지서비스기관	69	36.1	23	17.7	46	75.4
	정보매체	41	21.5	36	27.7	5	8.2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8	4.2	6	4.6	2	3.3
	자조모임 등 네트워크	1	0.5	1	0.8	-	-
	학교	9	4.7	9	6.9	-	-
	가족	27	14.1	27	20.8	-	-
	친구, 선후배 등 지인	6	3.1	4	3.1	2	3.3
	복지 관련 정보지	3	1.6	2	1.5	1	1.6
	스스로 알아 봄	10	5.2	8	6.2	2	3.3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기관)이 없음	12	6.3	11	8.5	1	1.6
	기타	5	2.6	3	2.3	2	3.3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시 겪은 주된 어려움	계	190	100.0	129	100.0	61	100.0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지 모름	72	37.9	56	43.4	16	26.2
	어떻게(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름	33	17.4	24	18.6	9	14.8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움	19	10.0	7	5.4	12	19.7
	신청했으나 자격이 제한적임	12	6.3	8	6.2	4	6.6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모름	21	11.1	12	9.3	9	14.8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9	4.7	8	6.2	1	1.6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22	11.6	14	10.9	8	13.1
	기타	2	1.1	-	-	2	3.3

(3)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욕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전체적으로 ‘진로 및 훈련’(37.8%, 71명), ‘소득보장’(16.5%, 31명), ‘주거’(11.2%, 21명), ‘고용’(10.6%, 20명) 등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취업 진입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고용 지원(48.4%: 진로 및 훈련 37.8%, 고용: 10.6%)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정보호 청년은 ‘진로 및 훈련’(46.9%, 60명), ‘고용’(12.5%, 16명)이,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소득보장’(26.7%, 16명), ‘주거’(25.0%, 15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소득생계관련 상담 및 지원서비스’(24.1%, 45명), ‘취업 진로 상담 서비스’(19.8%, 37명), ‘직업, 자립 등 훈련 교육 서비스’(13.9%, 26명), ‘심리, 마음 건강 상담서비스’(13.9%, 26명),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10.7%, 20명)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정보호 청년은 ‘취업, 진로 상담서비스’(24.4%, 31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소득, 생계관련 상담 및 지원서비스’(36.7%, 22명)에 가장 큰 지원 욕구를 나타냈다.

표 III-58.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욕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	계	188	100.0	128	100.0	60	100.0
	교육	19	10.1	14	10.9	5	8.3
	진로 및 직업/자립훈련	71	37.8	60	46.9	11	18.3
	고용	20	10.6	16	12.5	4	6.7
	소득보장	31	16.5	15	11.7	16	26.7
	주거	21	11.2	6	4.7	15	25.0
	건강	7	3.7	5	3.9	2	3.3
	관계 및 사회참여	8	4.3	6	4.7	2	3.3
	출산 및 자녀 양육	3	1.6	1	0.8	2	3.3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7	3.7	4	3.1	3	5.0
	인권 보장 및 사법 지원	1	0.5	1	0.8	-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한 지원 서비스	계	187	100.0	127	100.0	60	100.0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26	13.9	18	14.2	8	13.3
	소득·생계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45	24.1	23	18.1	22	36.7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20	10.7	18	14.2	2	3.3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	37	19.8	31	24.4	6	10.0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2	1.1	2	1.6	-	-
	직업·자립 등 훈련 교육 서비스	26	13.9	19	15.0	7	11.7
	건강검진 서비스	3	1.6	2	1.6	1	1.7
	주거지원 서비스	17	9.1	4	3.1	13	21.7
	기혼 가족 서비스	3	1.6	2	1.6	1	1.7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5	2.7	5	3.9	-	-
	인권침해 권리구제 서비스	2	1.1	2	1.6	-	-
	기타	1	0.5	1	0.8	-	-

(4)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의 52.4%(98명)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이 비율은 가정보호 청년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가정보호: 58.3%, 74명, 시설보호(종료): 40.0%, 24명).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7.3%(51명)로 이 비율은 고려한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비율까지 고려한다면 이용 의사가 없는 비율은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60.0%(36명), 가정보호 청년 41.7%(53명)로 나타났다.

이용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71.4%(70명)가 장애인등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도 가정보호 청년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가정보호 청년: 73.0%, 54명, 시설보호(종료) 청년: 66.7%, 16명). 등록 의사가 없는 비율은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을 뿐이지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전체: 28.6%, 28명, 가정보호 청년: 27.0%, 20명, 시설보호(종료): 33.3%, 8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전체: 65.8%, 25명, 가정보호 청년: 63.6%, 14명, 시설보호

(종료) 청년: 68.8%, 11명). 그 밖에 가정보호 청년은 ‘청년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13.6%, 3명), ‘장애인이라고 차별받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9.1%, 2명), 시설보호(종료) 청년은 ‘이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별로 없어서’(12.5%), ‘다른 사람에게 장애인이라고 알려지기 싫어서’(6.3%, 1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III-59.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비스 이용의사	계	187	100.0	127	100.0	60	100.0
	예	98	52.4	74	58.3	24	40.0
	아니오	38	20.3	22	17.3	16	26.7
	잘 모르겠음	51	27.3	31	24.4	20	33.3
(의사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의사	계	98	100.0	74	100.0	24	100.0
	있음	70	71.4	54	73.0	16	66.7
	없음	28	28.6	20	27.0	8	33.3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않은 주된 이유	계	38	100.0	22	100.0	16	100.0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25	65.8	14	63.6	11	68.8
	다른 사람에게 장애인이라고 알려지기 싫어서	1	2.6	-	-	1	6.3
	장애인이라고 차별받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2	5.3	2	9.1	-	-
	이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별로 없어서	3	7.9	1	4.5	2	12.5
	청년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3	7.9	3	13.6	-	-
	기타	4	10.5	2	9.1	2	12.5

3. 소결

이 장에서는 함의와 함께 경계선지능청년의 결과를 유사 정책대상자인 일반청년과 발달장애청년의 관련 조사 결과⁵⁾와 비교하여 각 대상자의 실태 격차를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조사 지표를 고려하여 모든 대상 또는 특정 대상의 값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 중 시설보호(종료)청년의 경우 ‘원룸’, ‘고시원’ 등의 다소 협소하고 향후 이주가 필요할 수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41.9%)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년(총 15.8%, 원룸: 15.7%, 고시원: 0.1%)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경계선지능청년 중 시설보호(종료)청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계선지능청년의 주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표 III-60.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현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62	100.0	835	100.0
원룸(다가구)	25	12.3	23	37.1	131	15.7
아파트	96	47.3	5	8.1	362	43.4
단독주택	14	6.9	-	-	77	9.2
다세대/빌라	36	17.7	8	12.9	210	25.1
고시원	4	2.0	3	4.8	1	0.1
오피스텔	6	3.0	4	6.5	46	5.5
기숙사	1	0.4	1	1.6	2	0.3

5) 비교자료는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경계선지능청년의 조사대상 연령인 19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총 사례 수는 1,940명이며,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에서 사용한 총 사례 수는 1,519사례이다.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비교를 시도했지만 조사 연도와 규모가 상이하여 일반화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설	16	7.9	15	24.2	-	
기타	5	2.5	3	4.8	6	0.7

둘째,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의 54.7%가 일상에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년(24.8%)과 발달장애청년(26.7%)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매우 우울함'의 비율이 경계선지능청년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상에서 심리·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계선지능청년: 5.9%, 일반청년: 1.3%, 발달장애청년: 4.4%).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도 27.6%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1분기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일반 국민의 자살생각 비율(전체: 16.3%, 20-30대: 22.5%)보다 높은 수치이다.

표 III -61.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우울감 수준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¹		일반청년 ¹		발달장애청년 ²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1,636	100.0	1,519	100.0
전혀 또는 매우 드물게 우울함	92	45.3	1,231	75.2	1,109	73.3
다소 우울함	99	48.8	383	23.5	337	22.3
매우 우울함	12	5.9	22	1.3	67	4.4

주¹. 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지난 1주간 우울감을 느낀 수준' 문항의 '가끔 그러함', '종종 그러함'의 변수를 '다소 우울함'의 변수로 합침

주².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G5)'에서 모름/무응답(0.4%, 6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외출 수준과 관련해서 경계선지능청년 중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비율은 8.6%(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5.6%,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3.0%)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년(0.2%)에 비해 약 8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고립 상황에

놓여있거나 예상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발굴하는 동시에 경계선지능청년의 사회참여와 정신건강 지원 등이 시급하다.

표 III-62.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평상 시 외출 수준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97	100.0	2,041	100.0
매일 또는 주 3-4일 외출함	135	68.5	1,940	95.1
취미생활, 생활물품을 구입할 때만 인근지역에 외출함	45	22.8	95	4.7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11	5.6	6	0.2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6	3.0	-	-

셋째, 생애주기별 일상생활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과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의 77.4%(모든 부분에 도움이 필요함: 7.4%)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청년(76.9%, 대부분의 일과 시간에 도움이 필요함 18.7%)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63. (경계선지능청년 vs 발달장애청년) 타인의 도움 필요 수준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발달장애청년 ¹	
	전체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03	100.0	62	100.0	1,519	100.0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모든 부분+일부분)	157	77.4	50	80.6	1,169	76.9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46	22.7	12	19.4	351	23.1

주¹.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 ‘도움 필요 시간(G6)’ 항목을 도움 필요시간 유무에 따라 변수를 변경함

필요 도움 내용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신변자립 등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청년과 다르게 ‘각종 계약 체결’ 15.9%, ‘금융 거래 및 금전 관리’(15.0%), ‘필요 행정서류 발급 및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이용’(12.8%),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12.5%) 등 대부분 성인기 지역사회 자립 기능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지능인 개인이 생애주기별 과업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사례관리 및 평생교육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좋은 일자리 진입과 유지에 대한 고용지원이 필요하다.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의 53.3%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발달장애청년(39.2%) 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일반청년(65.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전술하였듯이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일반청년과 경쟁해야 하는 취업 진입 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경계선지능청년은 구직활동 시 ‘자기관리, 사회적응 등의 나의 취업준비가 부족함’(22.0%), ‘나를 채용하려는 일자리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20.9%),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에서 자주 탈락함’(17.6%),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13.2%)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취업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63.1%로 일반청년(25.4%)과 발달장애청년(5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도 전체적으로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응답자의 78.1%(이 중 ‘100만원 미만’ 37.5%)로 나타나 근로 소득이 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 직종의 경우에도 ‘서비스 종사자’(43.8%), ‘단순 노무 종사자’(34.4%) 등에 집중되고 있어 한정된 직종으로 취업 진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생활에 있어도 ‘출퇴근의 어려움’(22.2%),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22.2%), ‘대인관계의 어려움’(18.5%), ‘업무자체가 힘들고 어려움’(14.8%)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발달장애청년이 직장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직장 내 적응과 근로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경계선지능청년들은 취업 진입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고용 지원(48.4%: 진로 및 훈련 37.8%, 고용: 10.6%)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좋은 일자리 진입과 유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직업 경험과 능력에 따른 개인별 지원이 요구된다.

표 III-64.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취업관련 현황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발달장애청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 취업 여부	계	137	100.0	2,041	100.0	1,519	100.0
	일하고 있음	73	53.3	1,331	65.2	596	39.2
	일하고 있지 않음	64	46.7	710	34.8	923	60.8
고용 형태	계	65	100.0	1,186	100.0	584	100.0
	정규직	24	36.9	885	74.6	278	47.6
	비정규직	41	63.1	301	25.4	306	52.4
직장 생활 어려움	계	54	100.0			243	100.0
	출퇴근의 어려움	12	22.2			54	22.2
	근태관리의 어려움	3	5.6			9	3.7
	자기관리의 어려움	-	-			9	3.7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8	14.8			9	3.7
	근로능력의 부족, 업무 성과 미흡	12	22.2			18	7.4
	근로조건의 문제	-	-			45	18.5
	근무환경의 열악함	5	9.3			15	6.2
	대인관계의 어려움	10	18.5			63	25.9
	도와줄 사람이 없음	-	-			4	1.6
	기타	4	7.4			17	7.0

주¹.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 '현 직장 어려움(D41)'에서 소수 응답수를 '기타'변수로 변경함

다섯째, 사회참여를 통한 관계망 지원이 필요하다.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과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의 19.8%가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시설 보호(종료)청년의 경우에는 37.1%로 나타나 소속감을 느낄 정도의 관계망 형성이 매우 원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일반청년(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의 경우 경계선지능청년의 60.8%가 '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청년

은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35.2%), ‘소속 직장의 직업 모임’(25.0%)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경계선지능청년은 가족 외 사회 참여에 의한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가 있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경계선지능청년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와 관계망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III -65.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39	19.8	16	11.9	23	37.1	383	18.8
계	197	100.0	135	100.0	62	100.0	2,342	100.0
나의 가족	96	60.8	83	69.7	13	33.3	-	-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13	8.2	5	4.2	8	20.5	824	35.2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12	7.6	7	5.9	5	12.8	238	10.2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13	8.2	8	6.7	5	12.8	275	11.7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14	8.9	8	6.7	6	15.4	586	25.0
온라인 커뮤니티	5	3.2	4	3.4	1	2.6	419	17.9
기타	5	3.2	4	3.4	1	2.6	-	-

여섯째, 전문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경계선지능청년이 최근 2년 이내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전체 비율은 14.8%로 일반청년(3.7%)과 발달장애청년(일상: 8.2%, 직장: 6.9%)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에서 인권침해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괴롭힘의 내용은 ‘정서적 괴롭힘’(38.4%), ‘경제적 착취’(14.3%)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주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음’(37.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20.7%),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음’,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함’(각각 13.8%)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51.7%)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청

년의 인권침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방안(예: 정서적 괴롭힘: 옹호인 매칭 등. 경제적 착취: 신탁, 자산관리지원 등)과 전문적인 권리구제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험 비율(전체: 6.1%, 가정보호 청년: 4.5%, 시설보호(종료) 청년: 9.7%)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타인에 의해 연루되고 있어 또 다른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조사과정의 적절한 진술조력과 사법 지원 등이 필요하다.

표 Ⅲ-66. (경제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타인의 괴롭힘 피해

(단위 : 명, %)

구분	경제선지능청년		일반청년 ¹		발달장애청년			
					일상 괴롭힘		직장 괴롭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96	100.0	1,122	100.0	1,519	100.0	596	100.0
있음	29	14.8	42	3.7	125	8.2	41	6.9
없음	167	85.2	1,080	96.3	1,394	91.8	555	93.1

주¹. 일반청년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한정된 비율임

마지막으로 필요 정책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필요 지원을 살펴보면, 경제선지능청년은 ‘고용지원’(48.4%), ‘소득지원’(16.5%), ‘주거지원’(11.2%)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반청년은 ‘고용지원’(40.6%), ‘주거지원’(15.2%), ‘소득지원’(11.4%), 발달장애청년은 ‘소득지원’(45.6%), ‘고용지원’(19.1%), ‘일상생활지원(돌봄)’(15.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경제선지능청년은 타 대상자에 비해 고용지원의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III-67.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필요 정책 지원(3순위)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발달장애청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188	100.0	2,041	100.0	1,519	100
소득지원	31	16.5	232	11.4	693	45.6
고용지원	91	48.4	828	40.6	290	19.1
일상생활지원(돌봄)	-	-	-	-	234	15.4
주거지원	21	11.2	311	15.2	-	-

동시에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 인지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 28.9%이었으며, 특히 가정보호 청년(평균 23.0%)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용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 27.5%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매우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지 모름’(42.9%), ‘어떻게(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19.6%),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모름’(12.5%)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Ⅳ장 경계선지능청년

심층면접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 3. 소결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및 절차

경계선 지능 청년의 삶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삶의 상황에 놓은 청년을 고루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자문위원과 자문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실무자와 참여자 추천을 통한 세평적 사례선택과 눈덩이 표집으로 진행하였다. 성별, 학력, 직업, 거주현황, 시설보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 기준을 중심으로 최종 6명의 청년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인근 스터디카페, 참여자의 집 등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이외에 추가 자료로, 일부 참여자의 경우 자신과 관련한 심리평가서와 활동관련 이력사항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내용을 참고하였다.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어떠한 삶의 경험이 어떠한 구조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심층면접 참여자 일반적 정보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경계선 지능 판정 혹은 인식 시기와 계기, 주요 정보원이나 지지체계, 현재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활동 경험, 향후

6) 이 장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기연 교수가 작성하였다.

계획(결혼, 희망하는 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21세에서 28세 사이의 청년으로 3명이 고졸 학력, 3명이 대학재학 혹은 휴학 중이었다. 또한 3명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3명은 최근의 독립한 경우를 포함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현재 하는 일은 사회복지 중 1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3명, 전일제 근로 중인 경우가 2명이었다. 양육시설이나 보호처분 등 가족 이외의 시설보호 경험을 한 청년이 2명이었고 4명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경험만 하고 있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이라는 판정 결과를 인식하고 있거나 관련한 활동이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청년은 4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시설의 담당자만 심리검사 결과 등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당사자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계선 지능임을 알게 된 계기로, 학교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상담 통해 간접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경우는 2명뿐이었다. 명확한 인식 계기로 남성 청년은 병역 판정검사를 통해, 여성 청년 한 명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시도 후 정신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향후 계획으로 대부분 결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그에 따라 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었으며, 향후 희망하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일보다는 현재 하는 일의 안정화 혹은 상향이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이할 부분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계선 청년 네트워크 활동 경험을 반영하여 경계선 지능인 단체 활동이나 카페창업 을 희망하는 청년이 3명이었다.

표 IV-1. 참여자 주요 정보

참여자	A	B	C	D	E	F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나이	24	28	22	20	27	21
학력	4년제 대재	전문대 졸	전문대 휴학	고졸 (검정고시)	고졸	고졸
주거 상황	가족	가족	1인가구 (가족 소유 오피스텔)	1인가구 (고시원→청년지 원주택)	가족	1인가구 (청년지원주택)
현재 하는 일	공익근무	카페 아르바이트 (+2달)	식당 전일제 근로 (월 230만원)	아르바이트	가족경영 공장 아르바이트 (월 80만원)	생산직 (월 190만원)

참여자	A	B	C	D	E	F
복지서비스/ 시설보호 경험		복지관 경계선지능인 직업훈련프로그램/자조모임	복지관 경계선지능인 자조모임	6호 보호처분 청소년 자립지원관	복지관 경계선 지능인 직업훈련프로그램/자조모임	자립지원 청년
경계선 지능인 인식	○	○	○	△	○	×
경계선 지능인 확인 계기	병역판정 검사 (2017)	자살 시도 후 정신과 상담 (2019)	중고교 상담시 비공식적 언급+ 병역판정 검사 (2021)	학교에서 상담/ 검사 결과 안에 서 부분적으로 인식	고교 시절 상담 치료 등 자 연스럽게 알게 됨	-
주요 정보원/ 지지 체계	인터넷 카페 상담소	인터넷 카페	가족 /동네 친구	친구/동사무소/ 청소년자립지원 관	동사무소 /가족	시설/퇴소 동기
SNS 활동	매우 활발	활발	소극적 활동	거의 안함	거의 안함	거의 안함
결혼 계획	△	×	×	○	△	×
희망하는 일	조경/리서치 업무/경계선 지능인 단체 활동	→국어 강사	현 직장유지 →카페창업	피부미용/악성 자격취득→취 업	바리스타 자격 취득 후 →카페창업	검찰자격증 취 득 후 →사무직

2. 조사결과⁷⁾

경계선 지능 청년의 생의 경험은 돌봄과 가족 경험, 경계선 지능의 확인과 실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와 학업, 그 안에서의 관계, 명확히 경계선 지능임을 인식하게 된 계기와 그와 관련한 경험, 일 경험, 살아오면서 받았던 도움의 경험과 미래설계 및 지원욕구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생애 경험의 범주는 돌봄 및 가족경험,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학업·관계경험, 경계선 지능인식 경험, 일 경험, 필요한 도움 경험이라는 5개의 주제로 범주화 하였다. 각각의 하위범주와 의미단위를 표로 제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7) 주제와 관련하여 인용된 진술문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례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표 IV-2. 심층면접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돌봄 및 가족 경험 : 깊은 뿌리, 넓은 그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울타리	- 가정,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과 관계 - 소수의 할 수 있는 일, 대다수는 도움이 필요한 일에 대한 일상화된 도움 - 자녀의 한계를 알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부모
	적절한 돌봄 체계가 되기에 는 역부족인 울타리	- 부모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임을 너무 늦게 파악함 -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응해주지 못함 - 가족 내 문제의 기준으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함 - 가족의 한신으로 야기되는 자괴감
	시설, 자립지원의 테스트 베드	- 가족보다 든든한 '보호' 처분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 강력한 유대에 기반을 둔 울타리 - 다양한 경험의 제공처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 학업·관계경험 : 악몽과 미몽 사이	유일하고 절대 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도그마	-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공간 - 모호한 기준으로 현실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함 - 불확실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처와 미래설계에 혼란을 겪음 - 졸업, 고립과 은둔의 시작
	공부에는 실패했으나 '중간은 가는 나'라는 자기평가를 형성	- 기본이 안 되어 있으나 소수의 영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음 - 모든 것이 성적으로 환산되는 시간 - 코피를 쏟아도 좀처럼 지 않는 격차 인식
	다수의 부정적 경험과 소수의 긍정적 경험의 충돌	- 어쩔 수 없는 공부, 관리 가능한 외모와 관계에 집착 - 갑치거나 내대는 아이라는 평판 형성
	자기합리화 혹은 혼란 애착형 관계 형성	- 능력 부족이 아닌 적성의 문제로 인식 -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을 '한창 싸움할 나이'로 합리화 - 축적된 부정적 평가, 단지 '생기부에 기록된 나'일 뿐
경계선 지능 인식 : 준장애인이라는 판정때	평가와 평판이 엇갈리는 혼란 경험	- 관심 있는 것은 우수, 관심 없는 것은 중간 이하, 나름의 성공 경험 - 과정보다 성장중심평가로 인해 객관적인 능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열심히 하지 않았을 뿐, 적성에 맞지 않았을 뿐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자기 한계 인식과 부정	- 언제나 제자리인 나, 멀어지다 고립되는 관계 - 공부 체질이 아닐 뿐,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일 뿐, 성적은 종이로 남은 결과지에 불과할 뿐 -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사람, 코칭이 부족한 사람일 뿐
	피해갈 수 없는 길, 피할 수 있었어도 좋았을 길	- 막다른 길에서 만난 판정, 생소함과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사이 - 확인 사실당하는 심정 - 생애의 퍼즐 조각이 맞춰짐 - 몰라도 좋았을 일
일 경험 : 나도 밤나무, 나도 호모 라보르	'일머리'와 '눈치 없음'으로 점철된 평가	- 기대되는 능력 중 미미한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능력 - 한없이 무력해지는 복잡한 일 - 모든 순간, 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시달림
	내몰리는 '자립', 선의와 호의로 포장된 간섭과 권리 침해	- 기대할 수 없는 자원과 내몰린 자립 - 동료의 얼굴로 가해지는 간섭과 따돌림 - 가족 혹은 가족 같다며 패싱 당하는 권리 - 언제 어디서나 마주치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불편한 공간
	'불안완화제'로서의 경제활동	- 경제적 압박과 불안이 주는 내몰린 동력 - 돈벌이의 즐거움 - 알바 아닌 월급제라는 소소한 자부심 경험
	새로운 경험과 관계 확장의 기회로서의 삶 자리	- 가슴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일을 통한 관계와 기회의 확장 - 꿈, 해방이자 구속
필요한 도움 : 유대와 연대를 통해 경계에 다리 놓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도움' 경험	- 부모의 도움, 커가는 자괴감 - 도움의 대가, 노출과 유출 - 둔감하고 말 뿐인 도움, 놓쳐버린 골든타임 - 정서적 유대에 기반을 둔 '도움' 아닌 보완의 경험과 지원의 원심력 경험
	미래설계, 단순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	- 멀고 큰 것에 대한 난감함, 무얼 원하는지 잘 모름 - 견디기 힘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삶 - 나의 강점과 자부심이 일이 되는 삶
	여전히 필요한 도움, 안전하게 시행착오 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내 안의 오타쿠를 찾아 주길 바래 - 천천히 반보 뒤에서의 도움을 바래 -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해주길 바래

1) 돌봄 및 가족 경험 : 깊은 뿌리, 넓은 그늘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돌봄과 가족 경험은 어떻게 의미화 할 수 있는가?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안전망이자 울타리이지만 경계선 지능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던 경험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는 경계선 지능 청년이 성장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 청년의 삶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지만, 가족의 기능이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다양한 삶의 그늘을 드리우게 된다는 점에서 [깊은 뿌리, 넓은 그늘]로 의미화 할 수 있었다.

(1)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울타리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가족은 자라는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공간이자 관계라 할 수 있다. 친구관계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의 실패나 배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활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들은 명확한 진단을 받지는 않았어도 어렵듯이 자녀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의 대부분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도움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록 가족의 부재, 가족관계의 문제 등에 의해 돌봄과 지지체제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특성이 지속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다음 스텝으로서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듯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가족은 더 큰 어려움을 막아주며,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빌 언덕이 되고 있었다.

요리를 할 때 보면, 계란 프라이라든가 계란말이를 할 때, 기본적인 뒤집기를 못한다거나.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계란 프라이 자체를 어떻게 뒤집고, 어떻게 계란을 까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못했
고요.

여기에 아시는 분 계신다고, 이쪽으로 가보는 게 어땠냐? 얘기해서. 어, 괜찮다. 시간 내서 같이 가자고 해서. 네, 좀 인맥이 넓으시더라고요. 그러가

지고, 왔는데, 여기 애가 여기 다녀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좀 밖에 나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해봐라.

1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 안에만 있었는데, 그대로 1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대로 집 안에 두었다가 애가 진짜 완전히 방구석 폐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권유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바깥으로 나오게 됐죠.

당시에는 이제 주변 애들이 대부분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고 있거나 그랬는데 저 혼자서는 딱히 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 아버지 세대 나이 대 분들이긴 하지만 사람들과 접하다 보니까, 생기가 그때 조금이나마 생겼던 것 같아요.

(2) 역부족인 울타리

부모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계선 지능임을 성인기에 이르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학교생활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경계선 지능 청년과 그 가족 모두가 혼돈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도 가족 내 문제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이고 현신적인 모습과 자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자괴감과 미안함,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힘에 부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즉 당사자와 가족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돌봄과 지원에 분명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부모님이 완벽하게 눈치 채셨을 때에는, 제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고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네. 당시에 우리 부모님도 느린 학습이라는 개념 자체는 눈치 채지 못했는데요, 애가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

자체는 눈치 채신 모양이더라고요. 왜 이런 거지.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궁금 해 하였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밝아 보이긴 하는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학대 많이 받고, 자살 시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잠도 못 자고, 가위도 엄청 심하게 놀리고, 그랬는데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괜찮아졌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알아서 LH도 신청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지원도 받아서 잘 하는데, 돈도 벌고. 이제 오빠랑 언니랑은 돈을 아예 안 번 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제가 제일 막내인데 너는 잘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른 애들은 못 하잖아. 이러면서 끼고 돌고. 제가 오빠한테 맞아도 최근에 맞은 게, 소주병으로 머리 맞아서 여기 흉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신고를 했는데 엄마가 신고 취소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고 취소를 한 게 많아요.

도움을 받았다고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학교에 와서 애들을 상대로 말하고 그랬거든요.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미안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못나서 부모님이 저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엔 점점 그 반대로 자존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3) 시설, 자립지원의 테스트 베드

가족 내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청년들의 삶은 어떠한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 내 돌봄이 적절하지 않아서 시설보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경험한 ‘시설’은 가족보다 든든한 ‘보호처분’으로, 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양육시설은 강력한 유대에 기반을 둔 든든한 울타리이자 다양한 경험의 제공 처이자 시설담당자나 동료들과도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가족이 있지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에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퇴소후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방식에도 긍정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설은 자립지원의 테스트 베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뭐지 같이 산다 해도, 그래도 서로 공유할 건 공유도 하고 지킬 건 서로 지켜주니까

어머니가 다 해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정환경 다 아니까 친구도 제가 많이 땀었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한테는 (보호처분시설)들어갈 때는 힘들었는데, 거기서 더 마음 편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만약 내가 일반 가정이었다면, 시설도 괜찮을 것 같다. 약간. 그 정도로 정말. 선생님들도 괜찮았고, 원장님, 이사장님들도 저희를 잘 챙겨주셨고 좋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시설에 있는 친구라고 약간 차별 받거나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시설에 살았던 걸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았는데. 네. 알고 있었죠. 약간 다 친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걱정이 안 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시설에 살았다는 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내가 부모님이 없고 시설에 살았다 하는 게 살짝 부끄럽긴 했는데, 뭐 없어도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얘기를 해도 안 해도 똑같이, 또 살아가는 건 똑같으니까.

이상에서와 같이 경계선지능 청년의 돌봄과 가족경험은 가정 내 안전이 위협받는 경험에서 충분한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진 경험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돌봄과 가족경험은 “넓은 그늘과 깊은 뿌리”로 의미화한 것처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제한적인 기능과 역할이외의 대다수는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고 일상화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몇몇 참여자의 가족은 자녀의 이러한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부모의 이러한 관심에도 불과하고 경계선

지능임을 대부분 너무 늦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의 심리사회적인 문제, 가정 내 폭력 등 부정적인 가족경험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 내외부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사회적 발달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의 자립지원청년 등 시설보호 청년들에게 시도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는 가족이 안전망으로 작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이 청년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안정적인 환경과 함께 부모의 그늘과 영향력, 자녀를 위해 모멸감을 견디면서 학교에 찾아와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모습에 오히려 자괴감을 잃게 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학업·관계 경험 : 악몽과 미몽 사이

경계선 청년들의 생애에서 가족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자 공간으로서의 학교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경험을 하고 있나? 학교는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공간이자 학교라는 제도적 권위는 청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학업평가기준과 또래의 평가를 통해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으나 중간은 가는 나라는 자기평가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비교과 혹은 국영수 등 기본과목 이외에서의 성공경험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 혹은 성공경험은 다수의 부정적 경험과의 충돌로 인해 적절한 혹은 현실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특히 이후의 삶의 상황에 대한 대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기합리화나 다양한 관계에서 과도한 경계심 혹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관계 패턴의 근간이 되고 있었다.

(1) 유일하고 절대 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도그마

학교는 다양한 어려움과 혼란을 주는 공간이었지만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공간이었다. 왕따나 다양한 실패 경험으로 인한 자괴감으로 기억하기 싫은 시기로 표현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기이자 그러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위로와 지지를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다양한 학습발달 평가기준에 따른, 절대평가 결과만이 아닌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서열화된 사회적 기준과의 괴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학업 능력을 포함한 자신의 위치성과 좌표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도전에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하거나 진로를 포함한 미래설계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밀리듯 대학을 가서도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실적인 진로를 찾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은 더 험난하고 새로운 형태의 고립과 은둔이 시작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일단 그 당시에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의 그 괴로움을 겪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를 도와주던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제 꿈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었거든요. 계기라고 해봤자, 뭐 알게 해준 거죠.

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대인관계에서 나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점점 그 생기버리든지 그런 거 보면 점점 잃고, 고립이 돼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의 행동,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의 행동이 제자리면서, 그니까 그 경계선 지능 알기 전에도, 행동이 제자리면서, 멀어지고 고립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들었거든요. 추후에 보니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군요. 지금도 좀 가끔 연락하고 좀 서로 고민이나 이런 거 나누는 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기 두 명 정도 있었는데 둘 다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2) 공부에는 실패했으나 ‘중간은 가는 나’라는 자기평가를 형성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어떠한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학업성적 및 다양한 발달평가의 한 두 영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학교의 평가기준에서 가장 강력하고 근간이 되는 성적은 나쁘지만, 즉 ‘기본은 안 되어 있으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영역이 존재함으로써 ‘중간은 가는 나’라는 자기 평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성적으로 환산되는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그 격차를 좁혀보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실패의 경험으

로 뺏음을 하고 있었다.

제일 싫어하는 건 수리 쪽. 요쪽은 제가 계산을 되게 못 해요. 초등학생들보다도 계산을 잘 못해요. 기본적인 덧셈 뺄셈도 잘 안 돼가지고. 수리 쪽이 너무 싫고.

제가 잘하는 건 대부분 역사 같은 거였어요. 역사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못하는 건 대부분 기본적인 거죠. 국영수를 잘해야지 대학을 간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못했어요.

제가 일본어를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일본어만, 그 과목만 반에서 1, 2등? 네. 백 점 맞고, 하나 틀리고 그리고 약간 예체능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예체능을 좋아하고 잘해서. 체육, 제가 체육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수행평가나 그런 거에 정말 진심으로 했고

근데 점점, 제가 제대로 공부를 흥미롭게 한 건 아니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경계선 지능이 편차가 다르긴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의심을 못 하죠. 하고 싶은 거는 잘하고 하니까.

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전반적인 성적들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도 전혀 안 나오고, 초등학교 때는 좀 나머지, 맨날 보충 수업이나 그런 좀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학습 능력 부진반을 따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제가 계속 속해 있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똑똑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악바리로 했죠. 악바리로 어떻게든 해서 따라가긴 했는데,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결국엔 놓쳤어요.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3) 다수의 부정적 경험과 소수의 긍정적 경험의 충돌

성적이나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의 대부분은 부정적 경험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한 두 영역에서 칭찬 받은 경험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유지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평판과 평가를 역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부적절한 시도는 상황이 더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공부에 더 이상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노력으로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기도 하였다. 여성 청년의 경우 살을 빼거나 외모에 집착하기도 하고 소수지만 긍정적인 친구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이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혹은 정서적 착취를 감수하고 있었다. 결국 의도와는 다르게 ‘깎치거나 나대는 아이’라는 평판을 형성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일기를 좀 잘 써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되게 많이 받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쓴 글이 교내 문집에 실리기도 해가지고. 그런 소설, 단편 소설 같은 것.

저 중학교 때는 대부분 밝았다고. 그 성격 그대로 중학교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애들이 사춘기가 겹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제, 나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생겼던 친한 친구가 저랑 같은 중학교에 올라왔더라고요. 개 때문에 겨우 다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중학교 중퇴했을지도.

먹는 것도 강박 관념이 심했고 운동에 대한 강박 관념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마른 몸에 대한 강박 관념이 심해서. 그래서 병적인 수준이었죠. 그냥 마르면 되게 예뻐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예뻐지게 되는, 자기만족이 크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친구, 주변 사람 말로는 저는 너는 하면 되는데 안 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여서 저는 더 안 했죠.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공부해서 나중에

커서 써먹을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대학 가도 제 일은 다 똑같이 할 건데 대학 왜 가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지금도 솔직히.

당시만 해도 제가 너무 괴로워서 집 밖에 나가서 밑을 멍하니 내려다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도 그렇고, 가족이 슬퍼할 걸 생각하면 쉽게 결정하지를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다가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아요.

(4) 자기 합리화 혹은 혼란 애착관계 형성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낮은 학업수준에 대해서는 능력부족이 아닌 적성의 문제로, 부정적인 교우관계 경험 역시 '한창 싸우한 나이'로 자신의 '흑역사'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또한 공식적이고도 축적된 평가기록으로서의 생활기록부는 단지 '기록된 나'로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합리화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혼란애착관계 패턴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처기술은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었으나 이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쪽 하고, 싫어하는 과목을 제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을 안 하다 보니, 그 점수에 대한 것도 약간 더 낮아지고,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아지고

학교생활은, 거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되게 걱정했거든요. 제가 당하고 살고 살까 봐. 근데 친구들이 약간 되게 많이 잘 챙겨주고 친절하더라 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크게 없이는 잘 지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다 모르니까. 이제 한창 막 싸움을 좋아하고. 그런 시기니까. 저는 그냥, 계속 그때는 살았죠. 몸조심하고.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학교가 되게 멀었어 가지고 잘 못 다닌 게 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또 안 좋은 것도 많고 해서 더 가기 싫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남자가 못 미덥기는 한데,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좀 못 믿을 존재라는 인식이 좀 생기는 했어요. 사귀려고 한게 아니라 친구로 지내려는 목적에서부터 출발. 어, 아무래도 막 함부로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든가, 함부로 약간 좀 꺾어내려고 약간 그런 가스라이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눈치를 잘 못 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처음에는 되게 선량하고 저밖에 모르는 것처럼 다가왔어 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미안할 정도로 저에 대해서, 뭘 해도 괜찮다, 네가 장애인이어도 괜찮다, 라고 하거나. 뭐, 자기가 뭘 지켜줄게 이런 거라든가. 그랬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더 부각됐어가지고, 저는 약간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계선 지능 청년의 일차적이고 가장 강력한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생활, 학교라는 공간, 학업, 그 안에서의 관계경험은 “악몽과 미몽 사이”로 의미화 하였다. 즉 의무화된 공교육시스템 하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에서 요구되는 활동은 ‘학교 도그마’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경계선 지능 청년의 삶에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었다.

즉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와 가족의 보호라는 경계 안에서 머물다가 학교 밖의 세상에서는 적극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가족의 영향력도 효과적으로 미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공교육 정책 하에서의 지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의 특성에 따라 대학진학까지 가능했어도 대학교육이라는 절대 장벽에 부딪혀 성공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업과 관련한 좌절적 경험의 확대를 막기 위한 대안적 진로 혹은 경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경계선 지능 인식 경험 : 준 장애인이라는 판정패

연구 참여자들은 경계선 지능임을 인식하거나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성인기에 들어서서 공식적인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는 추측은 하지만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유예된 판정결과 이전까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추측케 하는 평가와 스스로 혹은 소수이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의 긍정적인 평판으로 인해 반복되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일깨우기도 하고 부정하게 하기도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와 일부의 긍정적 평판 사이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드디어 삶의 주기에서 피할 수 없는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빠진 퍼즐조각이 들어맞는 듯 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판정에 패배한 자신과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 ‘평가’와 ‘평판’이 엇갈리는 혼란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이나 다양한 발달과업에 대한 관심 있는 것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관심 없는 것은 중간 이하일 뿐 최하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 대한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학교에서의 평가가 과정평가나 성장중심평가를 통해 객관적 혹은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열심히 하지 않았을 뿐’이고 ‘적성에 맞지 않았을 뿐’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전반적인 성적들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도 전혀 안 나오고, 초등학교 때는 좀 나머지, 맨날 보충 수업이나 그런 좀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학습 능력 부진 반을 따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제가 계속 속해 있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똑똑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평균이라고는 생각을, 그래도. 초등학교 때 지능, 약식으로 지능 검사를 받으면 저도 평균 하 이렇게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똑똑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계선 지능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경계선 지능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멍청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에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남들보다, 거의 장애인은 아니지만, 거의 준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했지.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걸 집에서 환경 때문에 그게 성장하지 못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이 좀 많았어요.

친구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냥 공부 체질 아니다. 그냥 나가라고. 너는 빨리 그냥 그만두는 게 낫다고.

(2) 자기 한계 인식과 부정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거나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제자리인 나, 아무리 애를 쓰고 무리하게 관계 맺기를 시도해도 서서히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고립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닐 뿐이고 공부란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일 뿐이고, 성적은 단순히 종이에 남은 결과지일 뿐이라는 인식을 통해 자기한계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사람이며 누군가의 코칭이 부족한 사람일 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때 성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저... 하요. 근데 하가 돼도,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하가 아니고, 그냥 흥미가 없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나오고,

교우관계는 제가 너무 까탈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써져 있고,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친구 연락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고립이 돼 있다고. (음, 왜, 어떤 기준으로 까탈스러워요?) 기준이 너무 강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게. 분류를 하고 막 하니까 융통성이 없고 조금 심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요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너무 확립이 돼 있고.

다들, 근데 다 제 나이 애들 군대 제대하고 다 바쁘잖아요. 실상 이제 못 보는 나이고, 이제 방학 되면 보겠는데, 저는 휴가를 다 쓰고, 주말에도 잘 집에 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국가고시 보시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친구랑은 거의 만남이 없으세요?) 네,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조만간에 볼 것 같고, 저도 이제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받았는데. 검사는 했는데 (결과를)들은 적이 없어요. 종이 결과지는 봤을 거예요. 제가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나왔나 보지. 왜냐하면 안 좋을까 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까 봐. 흘려보냈어요. 제가 나쁘게 체크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쁘게 나왔을까 봐.

(3) 피해갈 수 없는 길, 피할 수 있었어도 좋을 길

아무리 애를 써도 사회적인 판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군복무나 자살시도로 인한 정신과 진료 등 불가피한 상황, 막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정의 결과는 지금까지 부정해 왔던 시간이 닫히고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생소함과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라도 하고 있는 경우는 ‘확인 사실’ 당하는 심정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지속적인 자기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는 생애의 퍼즐조각이 오히려 온전하게 맞춰지는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판정 혹은 결과는 ‘몰라도 좋았을 일’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공식화된 경계선 지능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조심스럽게 대하던 가족들이 명청하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비하의 면죄부가 되기도 한다.

아니, 그건 처음에 몰랐고, 이게 나중에 알았던 게, 검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타 기관. 근데 그 병무청에서 이게 그냥 다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거기 2차, 의사 선생님이 그냥 병무청에서 해준다고, 이게 비용이 비용 이잖아요. 웨슬러 검사가 3~40만 원 하잖아요. 그냥 병무청에서 해주고, 뭐 지능 같은 건 모르고, 그냥 병명만 나중에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의뢰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이게 크니까 그냥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알 때 그니까,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이유가 경계선 지능을 알고 한창 방황하고 할 때 많이 힘들었고.

경계성 지능이라는 건 몰랐고, 이제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문제 있다고만

얘기해 갖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애는 군대를 보내면 폐급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대수롭지는 않아요. 제가, 제 성격대로, 이제 지내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몰라도 좋았던. 그게 제가 자살 시도를 안 했었더라면, 그쪽 보건소 쪽에서 연계가 안 됐을 거고, 종합심리 검사도 안 받았을 거고, 평생 모르고 지냈을 텐데. 지금 뭐, 다시 지능 검사 받으라고 그러면 저는. 어, 진저리가 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똑똑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계선 지능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경계선 지능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멍청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에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남들보다, 거의 장애인은 아니지만, 거의 준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빠한테는 결과를 숨겼는데, 나중에 알게 되고 그냥 가끔가다가 화나면 뭐, 저능아 소리 나오기는 하는데.... .알고 난 후에 서로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저능아 소리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연락을 취해보고, 이런. 약간 좀, 그래, 내가 경계선 지능. 뭐라도 할 만한 일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내 미래를, 미래가 걸린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엄청 찾게 되더라고요.

경계선 지능 청년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관련한 상황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 연구 참여자를 포함한 20대 경계선 지능 청년은 현행 학교 교육에서 절대평가나 석차 등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며, 심리 평가나 상담 지원의 부재, 다양한 역량의 강조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 혹은 혼란의 대처방안으로서의 자신의 지적 수준에 대한 부정 등 다양한 대처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애전환기에 이를 수용하는 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거나 혼란스러웠던 경험
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험 등 내적 자원에 따라 다르게 체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고통과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면,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를 제거
하기 위한 노력과 통합적 지원체계를 전제로 하는 객관적인 검사 지원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일 경험 : 나도 밤나무, 나도 호모 라보르

공교육시기 이후 청년들은 어떠한 일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예외 없이 경계선 지능청년들
은 ‘일머리’와 ‘눈치’ 없다는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 상위학위 취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경제적
여건과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댈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 들어서
게 되었다. 그러나 일자리의 특성이나 일의 내용이 다양해도 대부분은 일머리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동료나 고용주로부터 과도한 간섭과 인격모독 혹은
권리침해가 반복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간섭은 일을 가르치거나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이름의 선의와 호의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기보호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회피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경험이 반복될지
라도 ‘일하지 않는 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에 대한 가족의 불안감이 더해져 ‘내몰린
일’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데 필수적이었다. 더구나
일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과 함께 새롭게 열리는 기회와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일하는 나’라는 만족감과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 단순한 ‘일자
리’에서 ‘삶 자리’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험이기도 하다.

(1) ‘일머리’와 ‘눈치 없음’으로 점철된 평가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아르바이트나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노동시장
에 진입을 한 경우 모두 그곳에서 기대하는 업무 능력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더욱 더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복잡한 일’과 ‘빠른 일처리 요구’, ‘동시다발적으
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에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의 무력감과 긴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
키고 있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성장에 대한 과정평가나 정성평가를 통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혹은 잘하는 것이 있다는 자기 확신을 부분적으로라도 가질 수 있었으나 일 경험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내몰리거나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으며 부모나 가족이 챙겨주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용돈 벌이는 되고 있으나 스스로 평가해도 낮은 숙련도와 뒤처지는 성장속도에 대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계산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문을 제대로 못 받는다가나, 뭐, 세팅 같은 거를, 홀 서빙 같은 경우에는 세팅 같은 걸해야 되는데 제가 잘 손님 유형들을 잘 파악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못 나간다던가, 메뉴를 잘 숙지를 못 한다던가. 그런 일머리 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몇 칸씩 띄어 달라, 몇 센티씩 띄워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그거를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되묻는다든지, 이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손님이 많이 몰릴 때, 제가 빨리빨리 못해가지고 좀 느린 편이어서, 그리고 또 손님이 많이 몰리면 그걸 주문을 하나하나 받아내는 걸, 제가 이게 동시에 잘 안 돼가지고, 그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기는 해요.

집중력 부족, 집중력 부족이라고, 자꾸 집중력이 없다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어디에 정신이 좀 팔려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디에?) 조금 멍 때리고. 그냥 핸드폰 보고 멍 때리고, 약간 소리가 핸드폰 소리밖에 안 들린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일적 부분에서 트러블이라든가, 아니면 좀 거의 잘릴 뻔한, 잘렸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무적인 훈련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그런 직무적인 훈련이라는 게, 막 그런 자격증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직무 기술 훈련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일머리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일 힘든 시기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라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았었을 때라서 고등학교 때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성인기 때 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스물다섯. 그 작년까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더 힘들었던 것 같으세요?) 네, 사회적응을 할 때부터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내몰리는 ‘자립’, 선의와 호의로 포장된 간섭과 권리침해

그래도 학교에서는 소수지만 유지되고 있는 친구나 교사나 부모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부분적으로도 있었으나 사회에 나오면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었다. 학력을 불문하고 최소한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써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과 지지체계가 전무한 경우를 포함하여 경제적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부적응이나 저 능력은 고용주만이 아니라 동료로부터 더욱 가혹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간섭과 따돌림이 일상화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일을 가르쳐준다거나 협업을 해야 하는 일의 특성이나 팀워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 즉 선의와 호의로 포장되어 있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 매장인 경우 고용주와의 직접적 접촉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 관계가 훼손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고용주와 동료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과 영세한 업소나 공장의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공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었다.

집에서 나오고 나서, 뭔가 혼자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버텼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전에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때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프집이다 보니까, 좀 말을 안 좋게 하는 손님도 있고, 힘든 것도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 관두기는. 아무래도 좀 압박이라든가, 이런 좀 간섭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쪽 직원 분들 중에 간섭이 여성분들하고 사이가 좀 굉장히 많이 틀어진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직원 분들하고 더 이상 이렇게 일을 같이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장님은 가게나 이런 데 잘 안 나오셔서. 매니저 분들이랑, 직원 분들하고 트러블이 조금 심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 사회 부적응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내가 적응 못 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만 못해도 되게 이런 간섭이, 간섭과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가지고. 심한 말도 좀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일부러 더. 그런 게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근데 일을 못 하니까 더 심하게 괴롭히시더라고요.

제가 주휴수당을 안 받았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야간 수당?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근데 기분 그래도 나빠하실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봐서 알게 된 사실인데, 혹시 이런 거 아시냐. 저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갑자기 뭐냐 그러면서, 그냥 저도 몰랐는데 제가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그래도 사장님은 이런 거 안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엄청 화들짝하면서 나는 진짜 딸처럼 예쁘게 생각했는데 역시 정을 너무 많이 줬다 이러면서 되게 황당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못 주겠다고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셔서

공장은 좀 시끄럽잖아요. 제가 시끄러운 걸 정말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약간 큰 소리를 안 좋아해서, 귀마개를 끼고 일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무직은 좀 조용하고.

힘들고 시끄럽고 막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빠져요.

벌레가 너무 많고, 너무 외진 곳에 있는데. 바퀴벌레도 많고. 저는 벌레가

너무 싫은데, 벌레가 너무 많고. 손님들도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라서, 좀
진상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도 좋은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거기서
별 일이 다 있어요. 애기라면서. 그만 됐는데 저 찾는 사람도 있어요.

(3) ‘불안완화제’로서의 경제활동

아무리 시달려도 경제적 압박과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 ‘일하지 않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학교생활에서의 실패에 더하여 일자리에서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역설적으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일을 유지하는 동력이자 ‘불안완화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돈을 쓰는 즐거움이나 특히 수입에 비해 상당한 저축을 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월급제라는 근로형태나 급여형태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에 대한 소소한 자부심 등은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동력이 되고 있었다.

그냥, 이거 아니면 불안이죠. 미래가 불안하다. 내가 이런 거 못 찾으면
경계선 지능인 내가, 이게 아무 일도 못 하고 나이만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가지고.

제가 너무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약간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알바 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작년에는 아예 일을 안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돈의 압박이 조금 있고, 가족들한테 용돈을
많이 받는 처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처음 회사는 한 달 다녔는데 일단 거리도 **이고, 약간 좀 불안하다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오래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약간. 심적 부담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불안했어요. (직장분위기가 안 좋았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첫 직장인데 뭔가 많이 힘들다. 일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힘들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회사에 합격했을 때. 약간 일에 대해서 제가 약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을

안 하면 백수잡아요. 근데 또 나가야 되는 돈은 많고, 저는 약간 다른 사람들 그 시선을 좀 많이 받아서, 약간 다른 사람들 시선이 좀 두려워서. 너 회사 왜 안 다녀? 너 어디 회사 다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쉬는 동안에는 좀 힘들었어요. 빨리 회사 취업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회사 취업하고 나서부터 좀 좋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웃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면 뭐 요즘 청년은 아니지만 요즘 mz 세대들은, 돈 안 벌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하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약간 좀, 좀 힘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고깃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알바보다 이제 아예 거기서 일하는 거죠. 직장으로. 거기서 이제 서비스직으로 하고 있죠. 월급제로.

(4) 새로운 경험과 관계 확장의 기회로서의 삶 자리

일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일을 통해 혹은 새로운 정보와 관계경험을 통해서 어릴 때 꿈꿔왔던 일, 자부심이나 성공경험과 연결된 일이나 활동을 구체화시킬 기회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을 통한 관계와 기회가 확장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꿈을 구체화 혹은 현실화하는데 좌표가 될 수 있는 명확한 혹은 객관적인 자기평가나 인식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체계의 부재는 경계선 지능 청년이 꾸는 꿈 자체가 더 나은 가능성을 향한 해방이자 구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적절한 수위로 자기노출을 하지 못하고 과도한 자기노출에 따른 다양한 착취의 위험과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경우이거나 ‘위험한 세상’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불신에 따른 폐쇄적인 삶의 전략 모두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

제가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안 하고, 응급실에서 바로 퇴원하는 조건으

로 보건소에 연계가 돼서 보건소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그렇게 됐었죠. 여기 경계선 프로그램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다 돌려가지고 기관들마다, 각 지역의 기관들마다 전화 다 돌리고. 그때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즐거웠던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생각해보면, 즐거웠던 기억이 되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단기 알바, 친구랑 단기 알바 했었을 때 즐거웠고. 그나마 올해가 그나마 조금 나은. 네, 그래서 올해 그나마 좀.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2급 자격증도 따고, 모르는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10만 원을 받고.

최고점은 지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원했던 꿈을 찾았고, 더군다나 친구도 많이 생겼고, 적긴 하지만 자격증도 생겼고.

올해는 그래도 힘든 점도 되게 많기는 해도. 올해는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올해 그래도 이 카페에서 일을, 그래도 나름 잘한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하고 있어서.

일단 친구가 많이 생겨서 제가 집 밖으로 자주 나돌아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막 대화할 상대가 생기다 보니까 언변 능력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비슷한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 위안이 상당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목표가 국어 관련해서 직종을 잡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근데 현재 좀 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게 수월치가 않아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힘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국어 관련해서. 지금 제가 그래도 언어 능력이 유일하게 세 자릿수가 나오는 지능이어서

“악몽이자 미몽”이기도 한 학교생활과 달리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일 경험은 소위 말하는 [일머리와 눈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재앙처럼 도움과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직장 내 폭력이나 따돌림, 괴롭힘,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방식과 강도로 청년의 자립을 장벽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일하는 인간, [호모 라보르]로 자처하고 있었다.

5) 필요한 도움 : 유대와 연대를 통해 경계에 다리 놓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생애경험을 통해 어떠한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살아오면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그동안 받았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도 그 도움을 받으면서 혹은 받은 이후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도움의 경험으로 의미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바라는 삶과 미래설계의 핵심적인 구조이자 삶의 방식의 근간으로 표현되는 것은 ‘단순하고 평온한 삶’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삶의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특별히 그 도움의 방식은 안전하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도움’ 경험

과거 이들이 받았던 도움의 가장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부모의 도움일 것이다. 그 울타리가 주는 편안함이나 당연함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희생이나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성취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이외의 도움이 많지는 않지만 주로 고등학교 이전까지의 다양한 학교기반의 상담과 치료적 도움, 가족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 혹은 가해경험과 관련한 경찰이나 사법적 도움, 시설보호와 관련한 경험으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했다거나 실제로 벌어진 경우이든 피해의식이든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노출 혹은 유출됨에 따라 다른 주변사람과의 관계에 손상을 준 경험이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더구나 어렵게 연결된 도움조차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골든타임을 놓친 경험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도움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도움이며,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사소하더라도

참여나 상호보완적 활동을 통한 도움에 대한 만족감과 실제적인 도움의 기억으로 꼽고 있었다.

제 시절에는 없었어가지고. 위클래스나 이런 상담 게 없어서. 네, 다 사실, 사비용 들어 가지고 클리닉 센터에서 상담 받고 이랬었어 가지고. 기분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당시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제 기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나아져서 어느 정도 생겼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감당하는 게 힘든데, 그거 감당하고 나면 또 관촬아지니까. 저 스스로 감당 하죠. 그런 힘든 거를 표현 안 하는 이유는 약간 공감을 못 해 줄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누가 또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까 봐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내가 힘들다. 나 정말 힘들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그냥 혼자. 혼자 삭히고 혼자 해결하는 스타일 이라서 저의 진심이나 진실 이런 거를, 솔직한 그 감정을 친구들, 어른들한테 는 잘 얘기 안 해요... 이유는 약간 공감을 못 해 줄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누가 또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까 봐

그때 당시에 상담사의 얼굴을 보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상담사의 꿈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에 오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자신의 슬픔이나 그런 것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상담사처럼 상담 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2) 미래설계, 단순하고 평온하게 사는 삶

경계선 지능 청년이 꿈꾸는 미래, 혹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 사실 멀고 큰 것에 대한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며,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 잘 모르겠다는 솔직한 고백이 공통적이었다. 특히 청년기의 이행과업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직업, 결혼, 주거, 저축이나 투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삶, 견디기 힘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소소하지만 나의 강점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이 발휘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그 어떤 활동이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로서, 현재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

제가 생활 능력이 너무 없어서. 요리나 집안일 이런 것도 너무 못해서, 결혼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생활 능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결혼을 하면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엄마로서 이 가사 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가사 일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계속 예금 이거다, 적금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전혀 모르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년 하면, 계속 1년 통장들마다 하면 돈이 들어오고 이렇다. 막 이런 얘기를 친구가 해주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에는 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눈치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식에 올라가는 거나 그런 것들 자체를 잘 못하겠거든요. 도박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터지면 내가 돈 많이 버는 거고, 아니면 공공 대는 거고. 기껏 해봤자 제가 도박으로 하려면 로또 정도인 것 같아요. 사본 적은 없지만

연애는 지금 생각이 없고요. (왜 없어요?) 제 본인이 모든 게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거는, 근데 주거는 너무 큰, 왜냐하면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주택 청약

이니 뭐니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비용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는 못했는데

저는 집순이에요. (집에서 뭐하고. 뭐 하면서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TV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예능,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고 만약에 활동적인 걸 한다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거나

일단은 아직은 계획이 없어 갖고. 돈을 일단 많이 벌고 싶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라서, 제가 아직 더 생각을 못 했고. 일단 여기서 좀 잘 지내보자, 그냥 이런 마인드라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 벌어서, 좋은 일,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드리게 하고 싶고. 네. 부모님께는 갚지 못할 빚이 크니까. 저를 밥 먹여 살리는. 그래도 이렇게 잘 컸으니까. (어머님이 정말 이 소리 들으면 엄청 부듯하시겠어요) 항상 부듯해하시죠. 아들이 말썽이어서, 이런, 이런 걸 좀 좋아하시니까.

제가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되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잘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고, 손님, 고객이란 이제 웃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보람을 좀 느낄 것 같아요.

(3) 여전히 필요한 도움, 안전하게 시행 착오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흥미를 보이거나 과거의 성공경험으로 강화된 관심사들이 있었다. 이는 경계선 청년들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타쿠’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취미나 관심사

를 발견하고 이것이 살아가는데 강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도 자긍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함과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계선 지능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 등 지원체계만이 아니라 지원방법과 원칙에도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오히려 별도의 지원체계만이 아니라 기존의 지원체계 안에서의 개입방법으로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저는 이제 체력 많이 쓰는 데를 좋아하니까. 약간 많이 움직이고, 그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냥. 적성이 맞는 거죠.

취미가 겹치는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타쿠입니다. 애니메이션 겁나 좋아하는 오타쿠인 데요. 취미를 겹치는 사람들까지 붙여놓으면요. 취미가 겹치다 보니까 쉽게 친해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돈이 제일. 이제 학원비나 이런 게 제일 크고, 이제 혼자 살게 된다면 폰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다 좀 그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좀 게으르다 보니까 일찍 못 일어난다던지? 이런 거.

저는 이거 집 할 때는, 그 집 해준 도와준 선생님이 같이 거주했어요. 회사는 제가 보고, 제가 회사는, 친구랑 같이 간 회사일 때는 같이 했었고, 혼자 했을 때는 대기업이라서 믿음직한 회사라서 계약했었고. 지금은 제가 다 알아보고 나서 회사를 들어간 거라.

그래도 단기. 친구랑 같이 단기 알바 했었을 때는, 행사장에서 간단한 안내 요원? 이런 거 했었을 때는 재밌었어요. (친구랑 같이 해서 더 재미있었나요?) 네, 그래도 친구랑 같이 했어서. 그래도 친구가 좀. 친구는 좀 잘 알아듣는 편이어서, 일반인이고 그래서.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아 가면서 해서. 그래서 그때는 재미있어요.

손님이 많이 몰릴 때, 제가 빨리빨리 못해가지고 좀 느린 편이어서, 그리고 또 손님이 많이 몰리면 그걸 주문을 하나하나 받아내는 걸, 제가 이게 동시에 잘 안 돼가지고, 그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팀장님이 주로 도와주시거나, 복지사 선생님들이 도와주면 저는 샷을 내리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복지사 선생님이나 팀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카톡은 엄청 잘 떠들거든요. 저랑 친해지기 힘들었던 그 친구 있잖아요. 톡창에서 엄청 잘 떠들었어요. 직접적인 얼굴을 맞대고서 얘기하는 건 못하는데 톡창 같은 비대면으로 하는 건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대면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 그런 사교성 스킬을 기르는 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과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걸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임 같은 곳에서 사교성을 기르는 게 자존감 올리는 데는 최고잖아요.

집이나, 뭐 약간 서류 같은, 작성할 때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있었으면.

저를 예로 들자면 기본적으로 저는 남을 돕거나 아니면 뭘 만드는, 커피를 만들거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 쪽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학습 쪽으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몇 번 있긴 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정 직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직업 방면으로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찾을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커피에 관한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즐겨워하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즐겨워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일을 찾는다고보다는 자신

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기 전까지만 해도 꿈이 상당히 모호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꿈을 가졌지만, 이것도 즐거워서 한다거나 좋아해서 한다기보다는 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조금이나마 흥미를 가진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모호하게 하는 게 아닌 지금의 저처럼 진심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리 상담. 아빠도 이제 알코올, 이제 솔직히 나이도 많고, 좋은 감정은 없지만, 아무튼 걱정이에요. 그래도 어떤 심리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하는 거일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물라주는 것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힘이 없으니까. 어른들이라 해봤자 좀 다 모르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위 분석결과와 같이 수단과 지원 없는 무방비한 청년들의 일과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큰 욕심 없이 오늘을 중심으로 단순하고도 평온한 삶을 설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는 경계선 지능청년들의 삶에 역설적인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특성인 관심사를 세심하게 고려,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인력, 안전하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획 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 소결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지능으로 ‘사회적 판정’이 이루어진다는 경험은 청년들의 삶에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확한 자기이해에 의해 일상화된 무한경쟁의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내몰리거나 경계선 지능이 공식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스티그마로 인한 자기비하나 자존감 하락 등을 고려한다면 유연한 판정이나 공식화된 판정결과를 강제하는 서비스 자격심사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계선 지능은 정태가 아닌 동태적인 상태로 개념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로 마주하는 발달과업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과 맥락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하기도 혹은 현저하게 낮은 기능수준으로 발휘하기도 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처음 시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능수행에 기복이 많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고정불변의 혹은 불가역적 특성으로 인식되는 ‘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준 장애인’으로 그 특성에 대한 이해나 지원방안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계선 지능 청년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던 개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공통점을 유사한 범주안의 지능수준이라는 이외에는 표출되는 기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여부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에 구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평가할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분석결과에서와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시기와 상황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회성 지원이나 특정시기에 국한한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식화된 경계선 지능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등 일차안전망 단위에서의 경계선 지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원체계만이 아니라 일차안전망과 비공식

적 지원체계의 기능이 중요하며 이들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이해하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합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행동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공통적 특성과 개별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범죄피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연구결과 및 본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분석된 바와 같이 경계선 지능인들은 다양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와 가해가 얹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다양한 관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에서 대인관계를 맺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들의 특성으로 인해 가장 어려운 과업이 되고 있었다.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일상화된 공간 안에서의 관계 맺기 경험을 통한 경계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기회에 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성)착취적 관계에 노출될 우려가 많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범죄 피해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지원체계안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제 V 장 경계선지능청년 관계자 초점집단면접

- 1. 종사자대상 초점집단면접
- 2. 부모대상 초점집단면접
- 3. 소결



경계선지능청년 관계자 초점집단면접8)

1.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1) 조사개요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지원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은 경계선지능청년의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종사자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종사자의 초점집단면담은 경계선지능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천현장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종사자 집단의 조사참여자들은 총 6명이며, 현재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유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성별은 여성 5명과 남성 1명, 연령은 30대 2명, 40대 3대, 50대 1명이다. 기관 소재지는 서울 4명, 경기 1명, 충남 1명, 지방 2명과 서울 4명이며, 기관 유형은 자립지원기관과 민간단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종사자들의 실무 경력은 최소 6개월부터 8년미만 등으로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종사자 초점집단면담은 참여자들의 지역적 환경과 시간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다. 종사자의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 <표 V-1>과 같다.

8) 이 장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 작성하였다.

표 V-1. 초점집단면접 종사자 일반적 정보

구분	성별	연령	기관유형	기관 소재지	경력
1	여성	30대후	자립전담지원기관	충남	10개월
2	여성	40대후	경계선지능인 관련 협동조합	서울	3년
3	남성	30대초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4년 10개월
4	여성	50대초	자립지원관	경기	2년 4개월
5	여성	40대후	경계선지능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서울	6개월
6	여성	40대초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8년 6개월

2) 조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4개 대주제와 12개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4개의 대주제는 종사자가 인식하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지원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대주제에 대한 12개의 하위주제 및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표 V-2>와 같다.

표 V-2.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대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경계선 지능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	어린시절부터 축적된 대인관계 트라우마 지속된 실패로 새로운 관계맺기 두려움
	암담한 미래준비	밑도 끝도 없는 미래 계획 당사자의 비주도성, 비자발성
	사각지대에 위치한 존재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장애인도 아닌 비장애인도 아닌

대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지원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공식적 지원 부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낮은 이해와 무관심 공식적 지원 체계 없음
	동기와 지속성 부족	경계선지능인들의 동기 부족 지속적인 지원 어려움
	환경에 따른 편차	심터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 가중 가족의 이해 및 지원에 따른 차이
사급하게 요구되는 지원	심리정서적 지지와 지원	학습된 무기력과 쉽게 꺾임 낮은 자존감, 회복되지 않은 상흔
	경계선 지능인 개념 정립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전제 요건
	가족 지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도 필요
경계선지능인 제도 개선 방안	별도의 지원체계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지원 제도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반영
	맞춤형 지원	장기적, 체계적, 연속선상의 지원
	자립 위한 고용 필수	자립이 가능한 수준의 고용과 경제적 지원 경계선지능인에게 적합한 직무개발

(1) 경계선지능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①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

○ 어린시절부터 축적된 대인관계 트라우마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어려움으로 그들이 학령기 이후 경험한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를 꼽았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들은 성장과정에서 교우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해나가게 된다. 그에 반해 경계선지능 아동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구를 사귀기 어렵게 되고 점차 대인접촉을 기피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됨에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 경계선지능인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미숙함이나 사회적 관계기술의 취약성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저희가 청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학창 시절 때 그걸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왕따라거나, 대인관계에 기본적인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문제가 대개 축적돼서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지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나오는 반복됨? 이런 것들은 계속 걱정스러운 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청년 시절뿐만이 아니라 그전 시절부터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관계 수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약한 게 맞습니다. ..(중략)..저희 경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말을 했었을 때는 오히려 오해를 받고, 그다음에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았었을 때도 오해를 받고.. (참여자 3)

○ 지속된 실패로 새로운 관계맺기 두려움

경계선지능청년들이 학령기 때 경험한 교우관계 어려움, 친구유지 실패 등은 이후 생애 발달단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친구 맺기나 관계유지의 실패가 반복되고 축적되어 청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사회적 관계형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계선지능청년들은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친분을 유지하는 데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기거나 대인기피증이 나타나 새로운 만남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지금은 저희가 청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학창 시절 때 그걸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왕따라거나, 대인관계에 기본적인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문제가 대개 축적돼서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지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나오는 반복됨? 이런 것들은 계속 걱정스러운 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청년기 후기로 갈수록 그 문제가 누적되어서,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인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대인 접촉을 하지 않게 되고, ...(중략)...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필요하거나 일을 할 때 이제 변화를 줘가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쌓여있었던 것 때문에 시도하거나 두려움에 갇혀서... (참여자 5)

② 암담한 미래준비

① 밑도 끝도 없는 미래 계획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준비와 진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계성지능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므로 미래준비도 구체적이지 못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생겨났다. 실천현장의 종사자들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을 대면하고 지원하면서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미래준비를 이해시켜야할지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빵 업무 중에서도 정말 단순한 파배기를 만드는 업무만 하는데도 본인은 6개월 후면 파리바게뜨보다 더 큰 대기업에 가서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의 급여가 부족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자기를 받아주고 기숙사도 있는 공장에 가면, 자기는 평생 자기의 업을 그걸로 삼아 갖고 평생 먹고살 수 있다고...(참여자 4)

아까 그 자퇴한 청년을 최근에 만났는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3년 후에 나는 창업을 할 거다, 레스토랑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3년 뒤에 난 사장이 될 거다. 계획 없이 보내는 측면에서 볼 때, 미래 준비를 이 친구들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지? 라는 고민이 일단 되고요. (참여자 1)

미래, 이걸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미래 준비를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할 때 경계선 지능의 가장 고민은 미래에 대한 대비나 준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요, 현재는. (참여자 5)

○ 당사자의 비주도성, 비자발성

미래를 설계할 때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에 상응한 노력이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중요하지만 경계선지능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신이 주도하기가 어려워 미래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입학한 대학의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사일정을 부모가 모두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종사자들은 부모의 과도한 지원 사례가 경계선지능 자녀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고 수동적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청년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원하는 일을 찾아내고 몸소 부딪치고 터득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우려하였다.

선생님 저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요점은,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는 게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네가 하고 싶은 건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네가 해야, 그러니까 할 수 있어서 해야 되는 거지에 접목시키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하죠. 걱정 많이 해요. (참여자 1)

대학을 가더라도 그 대학에 가서 성적을 챙기거나 교수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느린학습자다, 학점을 특별히 다르게 챙겨줘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중략).. 그런데 이게 특히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되면, 주도성이나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평생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참여자 4)

③ 사각지대에 위치한 존재

○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부족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로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들은 자신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특정 상황을 접했을 때도 상당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은 학령기부터 경계선지능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은 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부합한 교육과 문제해결 지원 등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지를 모르구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저희 이제 사후 관리를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한 6개월 만나는데 좀 애가, 애가 왜 이리지? 하다 보면 그 친구가 경계선 지능인 걸 알게 되는.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지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거나 뭔가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고 미숙해요..(참여자 1)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성취감을 가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자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스스로도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거꾸로 외부에서 나를, 장애인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돼야지, 근데 사회가 그게 안 되면 개인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참여자 5)

○ 장애인도 아닌, 비장애인도 아닌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위치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으나 다른 부분이 있고, 장애인은 아니고 개인차가 상당하므로, 그들의 존재성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경계에 접해 있는 경계선지능장애인은 삶의 제반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보통 사람도 사실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어려운데, 특히 그 부분이 느린 학습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수행을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사장을 할 수 있다가 ... (중략).. 아시다시피 발달장애나 장애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계속 누수 되는 상황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청년이 되는 거죠. (참여자 5)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인과 그 비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분하기 더 힘들어서 더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재는 이상해야라고 하는 아이도, 정말 티가 많이 나는 아이도 있어서, 구분이 힘들어서 훨씬 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4)

(2) 지원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① 공식적 지원 부재

○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낮은 이해와 무관심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한 어려움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매우 낮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함께 하는 사람들도 적응하는데 시간을 소요되며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지원 체계의 미흡함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는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나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저희는 경계선지능청년이면서도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건 사회적으로 이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이 이 친구들한테 이런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자원 사업비가 필요하고, 기업이 지원을 해야 되고 사회적 기업이 이 사업을 같이해야만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태어나서 경계선 지능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요라는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참여자 4)

아직 사회적 인식도 좀 낮은 게,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또 사실 사회적 인식 상 그렇게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과 어떤 것들을 들이고. 청년들도 많이 노력했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을 때, 너무 어려웠고.(참여자 3)

저도 이쪽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거는, 법적 근거하고 느린 학습자, 즉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하고 일을 했었을 때는 경계선 지능이라 그러면 장애 아닌가요? 이런 식의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참여자 2)

○ 공식적 지원체계 없음

종사자들은 현재 시스템 내에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계선 지능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실효성 없이 한시적 또는 단회기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심 부재와 법제화의 미비로 종사자들이 지원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방법을 찾기도 효과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인들의 특성에 부합한 체계적인 방안 모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질문지 목록을 펼쳐놓고 정부 지원이 진행되는가? 수준이 적절하나? 여기에

제가 아주 미비함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 사업비라는 게 나라에서 나와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돈을 내기 위해서는, 지침이든 법령이든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겠죠? 현재 그게 없는데 돈이 나올 수가 없고, 사업비가 없는데 저희는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여자 4)

보통 사람도 사실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어려운데, 특히 그 부분이 느린학습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을 했듯이 자기가 사소한 일을 행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사장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노력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그냥 나는 뭐가 될 거예요라는 것만 있지 그것의 중간 과정에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등등의 지도들이 이 친구들은 더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 5)

일단 요즘 청년 사업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느린 학습,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 청년 카테고리가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뭔가를 갖다가 해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야가 크잖아요. 그러면 일단, 핀 포인트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참여자 2)

③ 동기와 지속성 부족

○ 경계선지능인의 동기 부족

종사자들에 의하면, 학령기 때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계선지능청년들은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에 대한 동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의 경계선지능청년을 심각

하게 억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존감이 낮은 경계선지능청년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성취까지 이끌어내는 과업은 매우 중요하다. 종사자들은 지원과정에서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호소하였다.

대상자한테 접근했을 때는, 이 대상자가 물론 어린시절부터 뭐 학교폭력이든 또래 집단의 부적응이든 대인기피든 열등감이든 낮은 자존감이든 뭐 이런 것부터 다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만났을 때 그런 아이들을 다독다독 시켜갖고 동기 부여시키고 일 시켜서 성취감까지 가는 거, 사실 이게 지원할 때 제일 힘든 문제 같습니다. (참여자 4)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를 별로 이제 두려워, 두려움을 갖고 동기가 낮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 지속적인 지원 어려움

종사자들이 경계선지능청년의 지원 과정에서 직면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을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꼽았다. 장기적인 지원의 어려움은 공식적인 지원체계 부재, 개념 정립,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인식 등의 요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지원이 전제되어 유관 사업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기관이, 만약에 하다가 이거 뭐 사업성별로야. 이래서 떠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뭘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자조 모임으로 끝나는 거지 복지관에서 도움을 주기도 주지만 저게 꾸준히 지속이 되는지 사실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래요. (참여자 2)

지원을 하면서 힘든 추가 플러스 걱정은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떡하지? 이 돈을 계속 누군가 민간 자본이 대주지 않는다면, 외부 지원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이대로 지원하라고 도와주지 않는
다면 그다음은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적으로 되게 힘든 것 같고요.
(참여자 4)

③ 환경에 따른 편차

○ 쉼터 경제선지능인의 어려움 가중

경제선지능청년이 쉼터에서 생활하는지, 원가정과 생활하는지 등의 환경 이 지원과정
에서 명백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제선지능청년
의 경우 시설퇴소 단계에서 이미 단절을 경험하였고 가족들의 정서적지지가 부재한 상황
이므로 재가 청년들보다도 훨씬 어려우 여건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설에서 생활하
는 청년들에게는 사회적 관계기술의 취약성이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심리지원도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은 쉼터 또는 시설 경제선지능청년들에게 보다 세심한 지원
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쉼터에서 살다가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더 열악한 건 맞아요. 옹호해 줄 부모도 없고, 이 친구
들을 지도할 때 제일 힘든 건, ...(중략)... 지원을 할 때도 힘든 게 이 아이를
그래서 뭘로 증빙해요? 장애인, 뭐 예를 들면 뭐 생계유지에 대한, 그러면
수급 증명서, 부모의 수입은 얼마가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참
여자 4)

아무래도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
요.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지만 거기서 부딪히는.. 예를 들면 모 기업에 갔는
데 팀장님인지 뭐 계장님인지 그분이 너무 옥박을 질러가지고 마상 입었어
요, 마음의 상처. 근데 또 이 친구들은 사실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체계

도 부족한 친구들이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어루만져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참여자 1)

○ 가족의 이해 및 지원 따른 차이

재가인 경계선지능청년에게 가족구성원의 존재는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의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독립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혼자인 경계선지능청년이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부딪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청년이 점차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청년을 보호 위주로 지원할 것인지, 도전과 모험 위주로 지지할 것인지의 여부가 경계선지능청년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준비가 적절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립이 좀 더 잘 되는 친구는,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혼자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고등학교 때부터 치이고 훨씬 더 많이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라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2)

또 하나가 보호자분들이 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옳지는 않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둬놓는 경우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참여자 3)

(3)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

① 심리정서적 지지와 지원

○ 학습된 무기력과 쉽게 꺾임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으로 공통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지를 꼽고 있었다. 특히 왕따, 학령기의 관계형성, 학습 지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은 청년기의 일상생활에서 트라우마나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조사 참여자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다른 지원보다도 심리정서적 지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심리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통해 과거의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청년들이 만약에 어린 시절에 적절한 지원을 못 받았다면, 심리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된 실패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 뭔가를 해 나갈 때의 어려움. 또 선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고,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도전하거나 이러기도 어렵고요.(참여자 3)

자존감 굉장히 낮아져 있고, 무기력의 수준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고,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도 진짜 쉽지가, 그러니까 그게 다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여자 6)

지금은 저희가 청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학창 시절 때 그걸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왕따라거나, 대인관계에 기본적인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문제가 대개 축적돼서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지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나오는 반복됨. 이런 것들은 계속 걱정스러운 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 낮은 자존감, 회복되지 않은 상흔

종사자들에게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의 학령기 때의 상처는 과거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계선지능청년이 경험한 학교폭력이나 집단부적응 등은 대인기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은 경계선지능청년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저희 경계선 지능 쪽 친구들이 또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들이 없잖아요. 근데 또 막상 장애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또 거기에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배려를 받아야 하지만 저희도 배려하는 법들을 가르치기도 해야지 되는 게 경계선 지능 청년들인 것 같아요. 너무 복합적이긴 하지만. (참여자 2)

외부 지원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이대로 지원하라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적으로 되게 힘든 것 같고요...(중략)... 이 대상자가 어린시절부터 뭐 학교폭력이든 또래 집단의 부적응이든 대인기피든 열등감이든 낮은 자존감이든 뭐 이런 것부터 다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만났을 때 그런 아이들을 다독다독시켜주고 동기 부여시키고 일 시켜서 성취감까지 가는 거, 사실 이게 지원할 때 제일 힘든 문제 같습니다. (참여자 4)

② 경계선지능인 개념 정립 :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전제 요건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청년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모호한 개념은 대중의 관심이나 사회적 주목을 끌지 못하며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명확한 개념은 사회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필요하다.

그런 면의 약간 그 인식개선, 이야기들, 이런 담론이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흐름이 예전에 그 산업사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저는 그냥 좀 더 크게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참여자 5)

이게 교육을 한다고 우리가 경험을 부여한다고 사회적 인식이 만약에 개선되지 않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돼서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3)

③ 경계선지능인 가족 지원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원도 필요

가족과 생활하는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당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 등 가족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은 경계선지능인의 삶에서 가장 밀착된 대상자이며 가정은 기본적인 생활공간이고, 일상적인 생활환경이다. 따라서 가족들의 사고와 인식과 태도는 경계선지능인의 생활과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는 심리적, 사회적 지원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족들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들도 가족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가족지원 매우 필요하고요. 저희가 학교 일단 부모님이 수용이 안 되셔 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 되게 많고요.(중략)...부모님들께 가능하면 경계선 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천천히 수용하실 수 있게 하고, 이게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아이의 상황으로는 기존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참여자 6)

부모 자체가 스스로도 자기성찰을 하고 아이랑 거리감도 두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모의 지원이 일단 필요하고, (중략)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빠 모임을 시도해 본 적도 있는데 아버지들이 그렇게 우세요, 말도 많아지고요. 여자들은 그래도 그 같은 부모들끼리 이제 뭐 치료실도 같이 다니고, 뭔가 같이 프로그램도 하면서 이게 같이 털어낼 데가 있는데, 아빠는 회사에 가서 그 말을 입도 뽕끗 못 하는 거예요.
(참여자 5)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아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미숙한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나름의 해석을 하고 스탱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정말 청년들이 그 부분에서 본인은 조금 더 하고 싶긴 하지만 가족들로 인해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도 힘들고 가족에서도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참여자 2)

(4) 경계선지능인 제도 개선 방안

① 별도의 지원체계

○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지원 제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종사자의 초점 집단면담에서 제기되었다.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며 경계선지능청년들은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와 가족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청소년 지역안전망, 이 지역안전망처럼 제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회관계 안전망이든 이런 지원 안전망이 조금 체계적으로 잡혀있으면 이게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참여자 4)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를 별로 이제 두려워, 두려움을 갖고 동기가 낮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반영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때는 사전에 그들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지원시스템은 발달장애나 기존의 일반적인 지원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상황이 적극 고려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장애는 아니지만 비장애인과도 특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한 내용이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라는 이름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트랙이 있어야합니다. 그냥 발달장애나 기존에 있는 거에 포함시키게 되면 느린학습자 당사자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실제로 그거를 지원하지만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만족스러울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여하튼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적인 트랙이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참여자 5)

느린학습자의 특성도 되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의 느린학습자라고 정의를 한다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라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자 3)

② 맞춤형 지원 : 장기적, 체계적, 연속선상의 지원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체계적이고 연속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는 것이 강조되었다. 경계선지능인 각자의 수준에 적합하며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의미한다. 특히 맞춤형 지원은 청년기에만 적용되는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생애 주기별, 발달단계가 입체적으로 연동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한 개인의 삶이 연속선상에서 고민되고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애 아동이라고 하면 장애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도 받고,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경계선 지능은 청년기까지의 과정에 하나도 시스템이 없잖아요.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는 계속 실패하면서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온전히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참여자 3)

청년 사업을 위한 거점이라기보다는 저희처럼 초중고 청년을 연결하는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점이면 훨씬 풍성하게 얘기가 되면서 입체적으로 이 사안이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청년 사업만 하는 거점,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학령기는 또 부재하고, 학령기만 하는 거점 그러면 또 청년은 또 부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참여자 6)

③ 자립 위한 고용 필수

○ 자립 가능한 수준의 고용과 경제적 지원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고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고용은 청년기의 주요 과업이기도 하다. 고용 쟁점은 성인기 과업인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참여자들은 고용을 단지 취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자립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수준까지 포함시켜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욕구와 부합하는 특화된 형태와 이해도를 고려한 교육과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취업을 하기 전에, 취업에 필요한 경험 교육.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됐었을 때, 인턴십 교육도 되게 중요했었던 게, 한 번 실패하면 말 그대로 진짜 회복탄력성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작은 성취감을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려면, 제도가 개선이 돼야겠죠. (참여자 2)

근데 우리 경계선 지능 청년들한테는 직무 교육을 할 때 ...(종락).. 그전에 애네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체계를 잡고 교육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습득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를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려면, 조금 세분해서 정말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 체계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4)

○ 경계선지능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제도 개선으로 종사자들은 고용 못지 않게 경계선지능청년에게 적합한 직무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이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현장에서 경계선지능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개발이 급선무라 하겠다.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욕구를 수렴하는 기회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아무래도 청년을 만나다 보니까, 본인의 적성과 일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 계획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약간 떠밀리듯이 하다가 이것 해봤더니 적성에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해요. 그렇게 헤매다가 5년이 끝나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적성에 맞는 일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여자 1)

자립을 하려면 경제적 능력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뭘 필요로 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자립 위한 경제적 지원, 취업을 지원한다거나 등의 경계선청년에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3)

2. 부모 대상 초점집단면접

1) 조사 개요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지원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GI)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은 경계선지능청년의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종사자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모 대상의 초점집단 면담은 가정을 배경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인 자녀와 가족 구성원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의 참여자는 총 6명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었다. 조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5명, 경기 1명이다. 어머니들의 연령대는 모두 50대이다. 경계선지능인 자녀들의 성별은 여성 2명, 남성 4명이다. 연령은 모두 20대초반과 중반이며,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 3명, 전문대 재학 1명, 고졸 2명이다. 자녀 5명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며 1명은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다. 자녀들의 직업은 학생, 무직,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대상의 초점집단면담은 참여자의 지역적 환경과 시간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다. 부모의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 <표 V-3>과 같다.

표 V-3. 초점집단면접 부모 참여자 일반 정보

구분	부모의 일반적 정보			자녀의 일반적 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동거 여부	최초 진단
1	여성	50대 중	서울	여성	20대초	전문대 재학중	학생	동거	초3

구분	부모의 일반적 정보			자녀의 일반적 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동거 여부	최초 진단
2	여성	50대초	서울	남성	20대초	전문대 졸업	무직 (서비스 이용)	동거	20세
3	여성	50대초	서울	남성	20대초	고등학교 졸업	학생	동거	17세
4	여성	50대초	경기	남성	20대중	전문대 졸업	무직	동거	20세
5	여성	50대초	서울	여성	20대초	고등학교 졸업	학생	동거	14세
6	여성	50대후	서울	남성	20대초	고등학교 졸업	직장인	비동거	21세

2) 조사 결과

경계선지능인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4개 대주제와 15개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4개의 대주제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어머니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자녀 차원 vs 가족 차원)이 경험하는 어려움, 사회적 지원 요구, 발달장애 제도 편입, 경계선지능인 제도 개선이다. 대주제에 대한 15개의 하위 주제 및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표 V-4>와 같다.

표 V-4. 부모의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대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자녀 차원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 벽을 치는 대인관계
		높은 긴장과 불안	트라우마로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된 생활
		미래를 꿈꾸기 어려움	암담하고 절망적인 취업과 미래준비
	가족 차원	이해와 소통의 제약	자녀와의 소통, 이해 모두 어려움
		자립에 대한 우려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대한 걱정과 염려
		상존하는 갈등	가족 간 거리감과 소원한 관계

대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사회적 지원 요구	자립 목적의 고용 지원	자립에 필수적인 직업훈련 느린 학습자에 맞는 직업교육
	사회적 관계 지원	소통할 수 있는 지인 만들기
	심리 정서적 지원	소외되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경험들 위축되고 자신 없는 마음상태
발달장애 제도 편입	발달장애 등록 시도	마음은 절실하나 발달장애는 아님
	고용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기대	필요하고, 바라는 직업교육 발달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절실
경계선 지능인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경계선지능인을 이해하는 사회
	전담 지원기관	보호하고, 필요할 때 지원가능한 기관
	부모 지원	부모들을 위한 지원도 병행
	취업 기반 마련	최고의 지원은 취업

(1)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①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

경계선지능청년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요한 어려움으로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점을 들었다. 자녀들은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하여 학령기부터 친구가 없었으며 우울하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긴장하여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는 것이다. 경계선지능인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울증의 원인 등 마음의 병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친구가 없었고요. 6학년 때도 친구가 없었고 중학교 와서는 갑자기 학제가 바뀌면서 담임도 없고 굉장히 막 복잡해졌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가 없으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데 어떤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왕따에 휘말리게 되면서 투병 인간 취급을 좀 많이 받았고..(중략) .. 그래서 장애인이다, 바보

다, 병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게 우울증과 마음의 병이 좀 심해졌고. (참여자 3)

생각보다도 애네들이 항상 교우생활이나 어디서 소외되고 이랬잖아요. 친구들한테도 같이 끼임을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불안, 초조. 이게 더 강해요. 사실은. 우울 이런 것보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뭘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요걸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친구를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내가 전화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너무 크니까. (참여자 4)

그리고 가장 큰 또 어려움은 너무 외로워해요. 외롭고 옆에서 보면 안쓰럽고. 저희 아이도 그렇게 불안과 긴장이 많지만 남하고 너무 어울리고 싶어 해요. 근데 막상 모르는 애 있으면 다 얼음이 돼버리죠. 근데 카톡은 안전하니까 계속 애들 내용을 또 보고 또 보고, 애들을 보고,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로 못 만나니까 카톡을 계속, 애들의 지나간 대화를 계속 보는 거죠. (참여자 3)

○ 벽을 치는 대인관계

어머니들은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자녀의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구가 많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으나 먼저 선을 긋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는 친구관계에서 자신이 상처받거나 소외당하는 경험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벽을 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외로움을 타고 친구를 그리워하지만 힘든 대인관계 반복된 경험으로 인해 생겨난 대처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친구는 본인이 벽을 치더라고요. 학교에 맞지 않는 친구들하고 사귀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싶지 않다고, 아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비슷한 성향의 만화를 좋아하는 성향의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서. 딱 한 명씩.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안 가지고 갔다 그러면 옆 반에서 빌릴 친구가 한 명 정도 있다. 이 정도. 절친한 개념은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시험 끝나면 놀이동산 가는 정도의 모임 계속. (참여자 1)

우리 아이는 친구가 없었고요. 같아요. 조금 친구 될 만한 애가 있었는데 서로 관심사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중학교 와서는 중학교 와서 문제가, 그렇게 갑자기 학제가 바뀌면서 담임도 없고 굉장히 막 복잡해졌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가 없으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개는 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3)

그러니까 친구 만들어주는 거랑,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친구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일자리를 거기서 어떻게 연결을 해주든지 교육을 해서 배출을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직장을 갖는 거. 그 목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순위가 바뀌었죠. 친구는 이거는 죽어라 해도 안 되고, 애가 워낙에 사회성 그게 낮기 때문에 안 되고. (참여자 4)

② 높은 불안과 긴장 : 트라우마로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된 생활

경계선지능청년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과 특정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으로 인해 긴장도가 높아지고 적응을 어려워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령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심각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희 아이도 불안이 되게 심하고 긴장이 워낙 심해서 일단 처음 가는 곳,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때 뭘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지, 이런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전 날부터 이제 잠을 못 자고 이런 스타일인데...그리고 힘들어하는 게 긴장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같이 떠올리면서 그 트라우마로 계속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여자 1)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때가 제일 심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학교라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지옥. 최악의 지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중략). 그 때 힘들었던, 학교라는 대학교 강의실도 애는 힘들어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숨이 좀 막히고, 시험 보러 갔다 오면 그 공간 자체, 학교라는 그 공간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고 트라우마가 있어서...(참여자 2)

③ 미래를 꿈꾸기 어려움 : 압박하고 절망적인 취업과 미래준비

경계선지능청년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요한 어려움으로 미래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학령기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청년기에 접어든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 진로 설정은 매우 의미있는 과업이다. 그러나 상존하는 긴장과 불안감 그리고 취업의 어려움이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심층적인 지원방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저는 사실은 다 어려워요. 진짜 취업 부분이 제일 걱정이긴 해요. 지금 가장 걱정은 스무 살이 넘었잖아요. 만 스무 살이 넘었는데, 애가 미래에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앞으로 미래의 제가 같이 고민해 줄 숙제.(참여자 5)

취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기술이나, 학교도 그만두고 다시 복학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걱정이고 고민이죠. 그러니까 미래 준비라는 게 애한테 맞는 미래 준비가 지금 뭐지 해서 남편과 매일 상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마음 편해야 된다. 마음이 편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너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참여자 3)

⑤ 이해와 소통의 제약 : 자녀와의 소통, 이해 모두 어려움

경계선지능청년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언어적 소통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언어적 소통문제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단순히 이해하는 단어의 개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전체 맥락에서의 소통을 의미한다. 이해한다는 의미는 가족들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의 차원이다. 가족이지만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충분히 또는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가족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언어가, 어릴 때부터 늦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중략).. 나랑도 소통이 100% 안 되다 보니까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불이익에 처할까봐 항상 노심초사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소통할 때 단어로만 얘기를 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단어로 명사로 던져 놓으면 그거를 구슬 꿰듯이 제가 이렇게 꿰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맞니? 안 맞니? 맞으면 그게 언어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참여자 2)

그런데 애가 긴장과 불안이 겹쳐져야 자기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조금의 역량이라도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근데 조금의 역량이 나왔을 때 선생님들은 재가 되는 애구나. 그러면 이제 더 푸시를 하죠. 넌 할 수 있어. 그런데 애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최선을 다한 건데,...(중략) 하면 될 것을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컸고요. 아직도 내 아이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 (참여자 3)

⑥ 자립에 대한 우려 :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대한 걱정과 염려

경계선지능청년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차츰 자녀의 욕구를 이해하게 되지만, 자녀가 원하고 바라는 게 직업으로 연결되고 자립이 가능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쉽게 믿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가 이용당하지 않을까하는 점을 염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나름의 홀로서기 방법을 터득해나가지만 경계선지능청년에게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아이가 성장하는 건 보이고 그다음에 아이의 욕구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게 실제 일상에서 직업이나 좀 안정적인 자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사실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돼요. 저는 기다리면 된다 라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저도 기다리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단계가 보여야 그게 이제 조금 더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게 많이 답답하고요. (참여자 1)

자립한다고 해도 걱정이죠. 다 걱정인데, 일단은 애가 약간 부족하니까 사회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솔직히 음식이나 빨래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가서 해줘도 되고, 요즘 시켜 먹을 거 많으니까 시켜 먹으면 되는데, 혹시 애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주위에서 괴롭힘이나 이용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가장 사실은 걱정이예요. (참여자 4)

아직, 니가 좋은 걸 못 찾은 것 같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좀 찾아봐라. 그래서 이렇게 좀 본인이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나는 도와줄 그게 다 되어 있는데, 애가 요청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참여자 4)

⑦ 상존하는 갈등 : 가족 간 거리감과 소원한 관계

경계선지능청년의 가족구성원들은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개별적 성향의 차이, 상호 신뢰의 차이, 자매 간 성격 차이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이유이든 가족 1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선지능인 가족들이 경험하는 거리감과 갈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희가 네 식구인데 기질이 조금 극명하게 좀 갈리는 편이에요. 저는 아들이랑 기질이 비슷하니까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는데.. 아빠랑 딸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빠른 성향의 기질 쪽이다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빠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잠깐 잠깐 보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머리는 인정을 했는데, 가슴이 못 받아들여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저희는 사실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애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었던 걸 보면. 저희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었지만 얘기를, 엄마 나 힘들어 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관계가 되게 안 좋았구나. 그걸 알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참여자 3)

언니랑 관계는 안 좋아요. 둘째가 언니에 대한 부러움? 언니를 모방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안경. 언니가 쓴 걸 자기도 고르고. 그렇지만 그림 그리고 심리 치료받을 때 언니를 저희 가족 안에 그리지 않더라고요. 언니는 또 동생을 이해 못했어요. 재 왜 저러냐고. 왜 재는 공부 안 하냐고. 왜 재는 저렇게 밖에 못하냐고 해서...(참여자 5)

(2) 사회적 지원 요구

① 자립 목적의 고용 지원

○ 자립에 필수적인 직업 훈련

연구에 참여한 경계선지능청년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공되는 지원이 경계선지능청년이 습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나 속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계선지능청년 대상의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훈련의 필요성은 조사참여자들이 시급한 사회적 지원으로 일관되게 호소되고 있다.

직업 훈련이 이런 내일 배움 카드라든지 보통 모든 청년들을 위해 열려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애네들의 속도에 안 맞고, 애네들의 특징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에게 맞는 직업 훈련 커리큘럼이 국가에서, 내일 배움 카드 과정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직업 훈련의 다양화라든지 직업 훈련의 개별 맞춤화. 이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방법은 정말 모르겠고요.(참여자 3)

아이들이 일을 원하면 아르바이트 자리도 좀 알아봐 주시고, 훈련도 하고, 취업처를 좀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조금만 이해받으면, 아, 좀 느리게 해도 돼 이것만 되면 일하거든요. 애네들 8시간도 참고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취업처를 함께 개발해 줄 기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참여자 5)

○ 느린학습자에 맞는 직업교육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녀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직업 교육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들이 기대하는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녀들의 자립이며 이를 위해 자녀의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느린 속도로 이해하고 파악하므로 이러한 특성과 눈높이에 부합한 직업교육을 기대하였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인정해주는 세심한 교육, 존중하는 교육을 고대하였다.

그래도 결국에는 직장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립을 하려면 경제적인 자립이 일단 1차적이니까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하지 않더라도 느린 학습자에 맞는 직업 교육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거의 없기는 하지만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

그게 정말, 편견을 없애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조적인 역할 말고, 뭔가 생각해내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우리가 처음부터 원하는 그런 학습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 이 사람들만의 언어가 있고, 이 사람들만의 눈빛이나 태도,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고용 교육프로그램이 사실은 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6)

② 사회적 관계 지원 : 소통할 수 있는 지인 만들기

어머니들은 경계선지능자녀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의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술이나 관계유지방법 등은 경계선지능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경계선지능인들은 많이 외로워하고 새로운 만남을 간절히 원하지만 사회적 관계기술의 부족으로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맹목적이 되기도 하여 결국에는 외톨이로 남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사람을 너무 집착하죠. 그러니까 제가 니가 너무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널 싫어하게 된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가 겉으로 보면 전혀 경계선 티가 안 나요. 처음에 막 친절하고 웃고 막 다가가서 말 걸고 하니까, 처음에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애 참 밝은 애구나. 이렇게 기억하다가, 근데 계속 말 시키고 계속 다가가고 이러면 어느 순간 여자애들이 애만 밀쳐내는 거죠. (참여자 6)

딸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거든요. 누군가가 잘해줬을 때, 저희 애는 그냥

온전히 그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워하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알지 않았던 사람들을 새로 만나려고 할 때, 제가 되게 제가 불안감을 느껴요. 저희 애가 너무 방어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거든요. 그리고 조금 친해지면 이제 자기를 막 시키고 다 사라 그러고 그래요. (참여자 4)

③ 심리·정서적 지원

○ 소외되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경험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자녀들이 친구관계나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소외를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심리적 취약성은 대인관계에 그치지 않고 직장을 구하기 위한 시도나 도전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었다.

애네들이 항상 교우생활이나 어디서 소외되고 이랬잖아요. 친구들한테도 같이 끼임을 받지 못하니까, 불안, 초조. 이게 우울보다 더 강해요. 불안하니까 뭘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요걸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친구를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내가 전화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정보지 같은 거 보고 워크넷 보고 자기가 일자리를 이렇게 구해서 사실은 전화 걸어서 면접도 보러 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해. 전화를 못 거는 거예요. (참여자 4)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를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 했어요. 그나마 지금 조금 나아진 게, 그런 일을 좀 많이 겪다 보니, 한 서너 명한테 겪었죠. 서너 명한테 따도 당해보고, 막 외면당해 보고 막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집에 와서도 많이 울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아이들과 다 끊겼

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그 아이는 나쁜 애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여자 5)

○ 위축되고 자신없는 마음상태

어머니들은 경계선지능청년인 자녀가 이전의 반복된 실패나 실수 경험으로 매우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관계나 직장생활에서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스스로 외부 활동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지원이 절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는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데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왕따에 휘말리게 되면서 투명 인간 취급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재는 사귄 애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다, 바보다, 병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도 들었고, 그게 우울증과 마음의 병이 좀 심해졌고 그 다음에 휴학한 다음에 1년 동안 집에서 같이 지냈고, (참여자 3)

빨리 하는 사회와는 얘네는 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일자리, 샌드위치들 빨리 싸야 되는데 그걸 천천히 싸고 있는 얘네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항상 빨리 안 하면 혼내잖아요. 근데 겁이 많아요. 사람들이 화내거나 사람들이 욕박지르면 그때 더 위축돼요. 겁먹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한 번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완전히 무섭게 하면 공포에 떨 만큼 무서워해요. (참여자 5)

(3) 발달장애 제도 편입

① 발달장애 등록 시도 : 마음은 절실하나 발달장애는 아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여타의 비장애인 청년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 있으나 발달장애는 아니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를 발달장애로 등록하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어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발달장애는 아니라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자녀들의 특수한 상황과 발달장애인 대상의 서비스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마음은 절실하나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여겨 등록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차이가 사회적으로 공감되어 경계선지능인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이 마련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저희가 애한테 속여가면서까지 그 검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중학교 때 주변 엄마들이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저희는 애가 발달장애가 아닌데 왜 그걸 받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랬죠, 애 미래를 위해서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사실 후회해요. (참여자 5)

근데 발달장애랑 또 경계선이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발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둘이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발달장애나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알 수 있는 부처에서 선생님들을 조금 많이 배출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아이를 지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알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없어요. (참여자 2)

저는 아이 진단받을 때부터 장애 등록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염두에는 뒀어요. 염두에 뒀지만 모임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파르르 떨면서 아니야, 우리 아나는 경계선 지능은 장애는 아니야. 이렇게 선을 좀 긋긴 했었는데요. (참여자 3)

② 고용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기대

○ 필요하고, 바라는 직업교육

어머니들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고용 목적의 교육이나 훈련이 경계선지능인 자녀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고용지원을 통해 적합한 취업처를 모색하고, 상담 후 고용으로 연계된다. 또한 고용현장에서도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지만,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타까워하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체계가 갖추어진 것처럼 경계선자녀들에게 적합한 직업교육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정말 아무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근데 장애인 등급을 받은 친구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개네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취업처도 다 알아봐주고, 옆에 도우미 선생님이 애네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부모랑 의논해서 다 맞춰서 해주더라고요. 개네하고 애하고 정말 한 끝 차이인데, 애도 지금 일반 직업을 구할 수 없는데, 애네는 너무 방치돼 있어요. (참여자 1)

왜냐면 우리 애가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요. 너무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거기 발달장애들은 다 취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해도 이해받으면서 취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애는 다들 그냥 그런 지원을 해줄 생각조차 안 해요. 근데 개네들하고 애는 너무 잘 놀고, 그 엄마들이 볼 때는 저희 애가 사회성이 없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다 아세요. 그냥 보면 멀쩡하지만 직장에 가서는 분명히 많이 구박 당하고 혼날 건데. (참여자 5)

○ 발달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절실

어머니들은 자녀의 발달장애 등록은 안하더라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치료나 심리상담

같은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참여자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면, 자녀들이 기능을 향상시키고 적응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서비스처럼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토대가 마련된다면, 경계선지능인도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1년에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생애 한두 번 정도라면 이런 검사나 상담, 본인을 위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진단받는다고 해도 삶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세상에 나오고 사회 속에 나오고 이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진단을 받기 전과 후에 심리적인 게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참여자 1)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조적인 역할 말고, 이 사람이 뭔가 생각해내고,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근데 하다 보면 이 사람들만의 언어가 있고, 이 사람들만의 눈빛이나 태도,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6)

그런데 처음보다 지능이 자꾸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이거는 뭐가 학습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친구들은 아무리 이걸 해도 지능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애네들은 조금씩 상상을 하더라고요. 분명하게 어떤 체계적인 게 있으면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4)

(4) 경계선지능인 제도 개선

① 사회적 인식 개선 : 경계선지능인을 이해하는 사회

경계선지능청년의 어머니들은 시급하게 요구되는 제도 개선으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이나 고용주 등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계선 특성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근로현장의 분위기, 근로자 간 지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취업 알선은 취업은 될 수 있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애네들을 어디 가서 일을 시키려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고요. 그게 돼야지 그 다음이 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죠.(참여자 4)

발달장애나 자폐들은 많이 인식들이, 이제는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마스크에 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저희 경계선아이들은 초기 단계고 알리는 단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발달장애도 그 정도까지 사회에게 인식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초기 단계니까. 근데 발달장애랑 또 경계선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참여자 2)

② 전담 지원기관 : 보호하고, 필요할 때 지원 가능한 기관

조사결과, 어머니들은 경계선지능인 자녀들을 위한 특화된 형태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경계선지능인 자녀가 장애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장애인과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설립되어 경계선지능인들과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사람은 그 범주에 넣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사는 동안에는 조금은 장애 같은 여튼간 일반인은 아니야. 비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무슨 일에 노출됐을 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되어야지. (참여자 6)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분리화 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취업, 진학 아니면 또래 친구랑 가서 의논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직접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5)

③ 부모 지원 : 부모들을 위한 지원도 병행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부모나 보호자들을 포함한 가족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와 심리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어 경계선지능청년 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심리적 좌절감을 어머니들과 유사한 강도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 강화와 탄력성 회복을 위해서도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대상의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연결이 돼 있어서.. 내 인생,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막 애만 염두에 있고 이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피폐해지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심리 지원 이런 거. 상담도 하고 심리 치료도 받고 그럴 수 있는 지원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참여자 4)

저도 애한테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가끔은 뻘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애를 욕박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독립할 나이 잼아요. 스무 살이 넘었는데. 부모지원이 단순히 경제적인 걸 떠나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한 모임이 있다면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 갔다 와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많이 울었거든요. (참여자 5)

④ 취업 기반 마련 : 최고의 지원은 취업

경제선지능인 자녀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경제선지능청년의 어머니들은 취업을 주요하게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은 생애주기의 발달단계 중 청년기의 주요한 과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연한 관심사라 할 것이다. 특히 성인기 초입에 접어들고 장기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은 주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선지능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어머니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은 앞으로도 감감한 절벽이에요. 취업을 생각하면 감감해요. 특히 미래를 생각하면요. 정말 장애인의 부모님들이 자기가 하루만 더 살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제가 요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오래 살아야 해. 나 건강해야 해. 우리 둘째 내가 천덕꾸러기 안 만들려면 내가 건강하고 오래 돈도 모을 거야. (참여자 5)

최고는 무조건 취업이죠. 그게 돼야지만 애네들이 자립을 하든, 독립을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50대고...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애네들을 거둬서 한평생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취업적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참여자 4)

3. 소결

1) 종사자의 부모의 초점집단면담결과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제선지능청년을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두 집단인 부모와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초점집단면담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3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경제선지능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 경제선지능인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두 집단의 초점집단면담의 내용분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분석 결과이다.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인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과 압박한 미래준비 그리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부족을 꼽았다. 어머니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두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자녀 차원의 경우 대인관계기술의 부족, 높은 긴장과 불안,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족 차원의 경우 제한받는 소통, 자립의 버거움, 상존하는 갈등 등으로 도출되었다. 어머니들은 가족이라는 미시 환경 특성 상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보다 상세하게 호소하였다.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의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에 기인한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과 미래를 꿈꾸기 어려움 등을 일관되게 지적하였다. 발달단계 상 청년기의 주요한 과업은 취업과 자립과 진로 등 미래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과업과 대인관계기술과 사회적 관계망 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경계선지능청년의 발달도 생애주기를 따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는 있음이 입증되었다.

둘째, 현재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이다. 조사참여자인 두 집단 모두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 긴장, 초조 등의 심리적 우울과 트라우마를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종사자들이 언급한 학습된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 등은 어머니들이 언급한 소외되고 위축되고 자신없는 마음상태 등은 모두 현재 경계선지능청년의 심각한 심리상태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신감 부족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므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지와 지원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 개선방안의 내용분석 결과이다.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된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이 아니나 비장애인 동년배 청년들과도 확연히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기관이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종사자들과 어머니들은 현재 사회적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기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 등이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취업은 자립을 위한 기본 요소이자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청년에게 적합한 직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기에 최고의 지원은 취업이라는 명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시사점

경제선지능청년의 부모와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초점집단면접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선지능청년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비장애인들과도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기존의 제도로 단지 편입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비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이나 제도는 경제선지능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본 연구는 두 집단의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경제선지능인은 삶의 제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경제선지능청년이 직면하는 사회적 관계망 부재와 낮은 자존감 외에 취업이나 자립 등 미래 준비의 취약성은 결과적으로 삶의 질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선지능인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두 집단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개선방안이기도 하다.

경제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체계는 청년복지의 일환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현행 전달체계의 연속선상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을 확장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제선지능청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식적이고 명확한 개념이 정의가 없다보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하고 대중의 관심도 얻지 못하고 이해 수준도 매우 저조하다. 명확한 개념 정립은 경제선지능인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요소이자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도 경제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경제선지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 두 집단 모두 경제선지능인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제선지능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과 대인관계 기술부족을 제기하였다. 사회적 관계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단지 지원망(circle of support)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먼저 경제선지능인에게 내재된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는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심라정서적 지원은 경제선지능청년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이나 도전을 시도할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넷째, 경계선지능청년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성에 부합한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은 성인기의 주요한 과업에 해당되며, 자립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은 주도성과 자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추 수 있다. 초점집단 면담의 참여자들은 경계선지능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고 주도성의 부족 등 진로 준비를 버거워한다고 인식하였다. 성인기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고의 지원은 고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기 경계선지능인의 미래를 위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려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계선지능청년의 어려움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경계선지능이 무엇인지, 내가 해당되는지, 나는 발달장애가 아닌지 등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지원이나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인식부족이 여전하다면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는 교육이나 훈련 등의 기회가 제공되고 제반 지원이 병행된다면 경계선지능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시행착오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은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으로 가족지원을, 경계선지능청년의 어머니들은 부모지원을 강조하였다. 가족구성원 간에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원함과 갈등관계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을 위한 세부지원을 모색할 때에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제Ⅵ장 경계선지능청년 정책과제 및 지원체계

-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 과제
- 3.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연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전반적으로 일반청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차별화된 삶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은 특정 계기(예: 군 입대, 기관 권유 등)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조차 없는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보니 당사자와 가족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어도 경계선지능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련 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어떠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유명무실한 결과에 불과하였다. 현재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 71-84로 정의되고, 실전 현장 및 일부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고 있으나 합의된 법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지능지수로만 경계선지능을 개념화하고 있어 지능 외에 고려해야 할 심리정서, 대인관계, 사회성 등 청년의 복합적 양상을 고려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정책 지원에 앞서 경계선지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으로 접근 용이한 서비스 진입 창구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복지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이용할 서비스가 전무하다보니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는 장애인등록을 할 의사는 없지만 자신에게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있다면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를 나타냈다. 현 상황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접근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생애주기별 물리적,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와 보편적 서비스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갈 수 있고, 또는 생활하는 주된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용에 있어 경계선지능청년의 심리적 장벽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청년 중에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서비스 진입과 이용의 장벽은 낮추되, 개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애주기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은 경계선지능 등으로 인해 생애주기 과업 수행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또는 학령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돌봄과 지원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 청년기 생활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생애주기별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생애주기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연령별 지원이 상호 연계된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개별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경계선지능청년은 청년별로 청년기 생애과업을 수행하는 수준과 어려움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청년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유사한 생활 방식과 정책 필요 수준을 보이거나 어떠한 청년은 일반청년과 매우 유사하게 별도의 특화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의 특성과 생활수준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삶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 각각의 삶의 어려움과 정책 필요수준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청년과 발달장애인 정책 및 지원서비스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있다면 서비스 진입을 위해 해당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제도 재설계 및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고려한 촘촘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보호기반(가정, 시설보호)에 따라 어려움의 수준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청년기 주거, 소득 및 경제생활, 정신

건강, 인권 침해 등 여러 방면에서 가정보호 청년보다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자립준비 이후 지지 기반이 부재하거나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었다. 정책 지원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청년 중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년의 생활 실태와 지원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또 다른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종료) 경계선지능청년의 보다 큰 취약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들이 지역 전환 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설보호 또는 자립준비 시기 관련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자립준비 이후 연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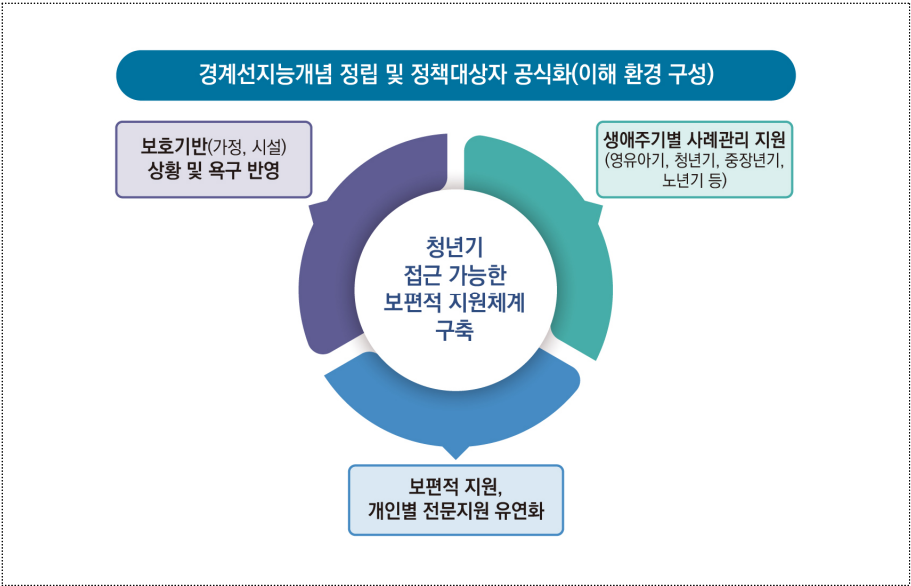


그림 VI-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 과제

이러한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경계선지능청년 개념 정립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기존 지능 중심의 단편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성, 정신건강 등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복합적 개념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정책지원에 앞서 또는 동시에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 확립을 위한 과업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경계선지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논의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공식적인 진단체계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홍보 및 진단 검사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술하였듯이 경계선지능청년은 개별 청년에 따라 청년 시기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또는 조금 더 차별화된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개별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삶의 전 영역에서 개인별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 확립에 따라 정책지원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에서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는 반드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청년 지원에 대해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정책지원과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청년 개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생애주기별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에 따른 산발적인 법적 근거보다는 진단에서부터 생애주기별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표 VI-1.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구분	주요 내용
1안 청년기본법개정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명시,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제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 진행 필요 -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제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
2안 경제선지능인지원법(가칭) 제정	- 독립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경제선지능청년이 타 지원영역 및 제도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및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부 정책 및 지원서비스를 마련할 때 경제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을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 관련 제도의 중립적 예산 내에서 기존 정책대상자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진입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선지능청년의 개별화되고 다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고용정책 및 제도를 경제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2. 기존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예시)

구분	관련 법률	개정 사항
고용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 동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권리구제 및 사법 지원 : 진술조력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수사과정 참여)

3) 세부 정책 및 지원서비스 확충

기본적으로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은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되, 동시에 국가 주도의 삶의 영역별 필요한 정책 및 지원서비스를 개발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의 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 방식과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독립된 제도를 신설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먼저 지원 영역별로 정책대상자 확대 및 제도 재설계 방식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표 VI-3. 경계선지능청년의 주요 지원 욕구

필요지원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생애주기별 일상지원(사례관리)	일상생활 및 생애주기별 과업수행을 위한 개별 지원, 위기 청년 긴급 지원	
평생교육지원	진로 및 자립준비를 위한 성인기 지속학습 필요	
고용지원	직업 준비(체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및 유지를 위한 다각적 개별 지원	
주거지원	주택 확보 및 환경 개선, 주거 전환 등에 필요한 지원	
관계망지원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옹호 및 지지 관계망 형성 지원	
정신건강지원	은둔형(고립) 청년 발굴, 전문적 상담 및 정신과적 진료, 상시 모니터링 지원	
권리구제 및 사법지원	인권침해 예방 및 옹호, 진술조력인 및 법률지원, 전문 권리구제 지원	
자산관리지원	금전관리 교육,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청년)정책 접근성 지원	(청년)정책 정보 인지 및 이용 역량 강화, 서비스 접근성 지원	

(1) 고용지원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직업상담 및 교육, 취업알선, 직무지도 등 고용지원에 대한 정책 욕구가 발달장애 청년과 일반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경계선지능 청년은 취업진입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개인별 다양한 고용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 대상 고용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도 지원 내용과 접근 수준 등에 있어 욕구에 맞지 않거나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계선 지능청년은 취업을 시도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때 정보 제공 및 단순 취업 알선 중심의 지원이 아닌 일반 청년과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개인별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업 및 사회기능에 따라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장애인 고용정책 및 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사 정책대상자로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지원과 기업지원으로 대별하여 세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지원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단계별 취업지원을 제공하며, 현장 배치 후 지원을 통해 취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으로는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근로환경과 편의 조성을 위해 시설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부 제도 및 지원서비스를 경계선지능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고용지원의 욕구를 ‘고용지원필요도 검사’를 통해 판정하는데,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경계선지능청년의 고용지원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는 청년 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기존 정책 및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취업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할 경우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수 있다. 또는 별도의 장려금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사업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계선지능청년이 기존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이용자 발굴 및 서비스 홍보 등 서비스 접근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서비스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거지원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고용에 대한 정책지원과 함께 주거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 욕구를 나타냈다. 특히 부모 또는 시설로부터 자립한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계선지능청년이 청년 주거 정책을 인지한 비율(39.4%)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기존 청년 대상 주거 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시급한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상품을 설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일부 경계선지능청년은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확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지원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권리구제 및 사법 지원

연구 전반에서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협소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관계망 안에서 정서적 학대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14.8%) 사기, 성범죄 등에 연루(6.1%)되기도 하였다. 이에 경계선지능청년은 대부분 혼자서 침묵하거나 가족, 지인 등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권리구제가 부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침해에 노출된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인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옹호하거나 전문적인 옹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의 권리구제는 전문적으로 접근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원할 지원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영역 내 설치된 장애인권익옹

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권리구제 서비스와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정책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에서 금전관리에 대한 지원과 미래준비 차원에서 노후 준비 및 자산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경계선지능청년들이 관계형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기회와 경험이 없다보니 온라인을 매개로 하여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기, 착취 등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자립생활에 있어 금전 및 자산관리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청년정책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관리 지원이 포함된 제도로 재설계할 수 있다.

(5) 평생교육 지원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 및 사회참여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제시되는 과업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청년 시기 본격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학습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발굴, 학력보완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평생교육,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등의 자립지원, 경계선지능인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은 집중적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청년이 보편적인 평생교육 차원의 생애주기별 학습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몇 개 지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확대가 예상되지만 온전히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우려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경계선지능청년의 평생교육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센터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6) 정신건강 지원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에서 높은 우울 수준을 나타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한 비율(31.5%)과 최근 1년 내 자살을 생각한 비율(27.6%)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적어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 등에서 매우 낮은 자기 효능감(그렇지 않음+매우 그렇지 않음 90.0%)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은둔형 고립 경계선지능청년의 비율(8.6%)이 일반청년보다 8배 이상 높게 나타나 심각한 고립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왔거나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 또는 자신에 대해 수시 상담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과주치의제도’ 혹은 ‘전담 상담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청년센터 등에서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은둔형(고립) 경계선지능청년을 발굴하고, 주치의 혹은 상담사를 지정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진료 및 상담 개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관계망 지원

연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의 관계망은 매우 협소하였다.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19.8%)이 일반청년(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종료)청년의 경우 해당 비율이 37.1%로 나타나 신뢰에 기초한 관계망 형성이 매우 원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의 경우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가족’이라고 응답(60.8%)해 사회 참여에 의한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가 있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의 관계 형성 및 교류 특성을 고려한 관계망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또래 등 사람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다수 겪어오면서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역할 기대를 향상시키고, 자신을 옹호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정책 등에서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경계선지능청년 간의 동료지지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옹호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 지원서비스를 신설할 수 있다.

표 VI-4. 주요 지원 영역별 제도 재설계 및 신설

지원영역	지원 내용
	고용지원 - 개인별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필요 - (장애인복지정책)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부 제도 및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청년정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취업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할 경우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재설계 또는 별도의 장려금 설계 - (청년정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사업 별도 신설
제도 재설계	주거지원 - (청년정책) 청년 대상 주거 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물량 할당 고려 : 단기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시급한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도 - (청년정책)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상품을 설계하여 지원 - (청년정책)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확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 마련(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지원 모델 마련)
	권리구제 및 사법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의 권리구제는 전문적으로 접근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원할 지원인력 배치 필요 -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권리구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정책대상자 확대 필요 - (장애인, 아동 권리구제정책)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정책대상자 확대 필요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대상자 확대 고려 - (청년정책)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관리 지원이 포함된 제도로 재설계 필요

지원영역		지원 내용
제도 신설	평생교육 지원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경계선지능청년의 평생교육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에 근거하여 전국 평생교육센터가 확대 필요
	정신건강 지원	- 은둔형(고립) 청년 발굴, 정신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과주치의제도' 혹은 '전담 상담사제도' 신설
	관계망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 -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서비스 지원

4)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환경 조성

최근 학령기 대상의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정도가 시작되었을 뿐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공식적 진단체계 및 정책 지원이 부재하고, 당사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 학업, 취업, 결혼 등에서 차별을 경험(3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필요한 개인별 정책지원 외에도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내 경계선지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경계선지능청년과 가족도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정책지원에 대한 옹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5) 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함'(37.9%),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름'(17.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대상을 타겟화 하여 전략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며,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정책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또는 기존 플랫폼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예: 청년센터 등)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정보제공 등을 조력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I-5.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	주요 내용
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정기적인 정책 홍보 필요 -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정책 플랫폼' 구축 - 청년관련 기관(예: 청년센터 등)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정보제공 등을 조력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

3.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진단에서부터 생애주기별로 교육, 고용, 일상생활, 가족관계, 출산 및 양육, 권리구제 등 전반적인 삶에서 개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별지원은 일반적 정보 및 학습을 지원하는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 내용 및 방식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사례관리주체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별도의 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된다하더라도 지역 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청년센터: 청년센터의 기능 재정립(정책소외청년 지원 강화)

경계선지능청년은 개인별로 지원 욕구와 자립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전술하였듯이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보 및 학습 제공 등의 수준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접근이 필요한 청년까지 다양한 지원 욕구를 나타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곳이 필요하다.

1안은 지역 내 청년센터를 경계선지능청년의 사례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자

체는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상호 교류,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각 지역별 청년에 대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 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국 18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 주거안정 지원, 문화 및 참여지원, 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기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는 심리적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청년센터의 개소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선지능 청년 등 정책 소외 및 위기 청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 및 연계 등에 주력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를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사례관리 기관으로 고려할 경우 집중적인 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관이 경계선지능청년의 전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청년기 집중 지원을 위해 청년센터와 적극 협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센터에서는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등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VI-6.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구분	주요 내용
1안 청소년센터 기능 재정립	- 전국 185개소(2021년 기준) 설치 - 취업 및 창업 지원, 주거안정 지원, 문화 및 사회 참여 지원, 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청년기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확보 -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는 심리적 이용 접근성 강점 - 경계선지능청년 등 정책 소외 및 위기 청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 및 연계 등에 주력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인력 배치 필요 - 집중적인 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필요

(2) 사회복지관: 경계선지능지원 목적사업으로 편입

2안은 지역 내 사회복지관을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사례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사회복지관은 전국 477개소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평균 2.1개소씩 설치되어 접근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재가복지, 교육훈련, 가족기능 강화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상호 간 연대를 통해 지역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조직화와 관련된 세부 사업을 지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접근성과 사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정 복지대상이 아닌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사례관리와 필요한 교육문화, 자립생활, 가족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2항 각 호에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표 VI-7.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화

구분	주요 내용
2안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화	- 전국 477개소(2021년 기준) 설치 -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문적인 사례관리 수행 가능 - 특정 복지대상이 아닌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 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 수행 가능 - 생애주기별 사례관리와 필요한 교육문화, 자립생활, 가족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2항 각 호에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경계선지능인 대상 사례관리를 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포함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사정책대상자 지원 확대

3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유사정책대상자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계선지능청년 중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유사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다(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

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개인별지원, 권리구제, 공공후견인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개인별지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집중 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의 전 생애주기별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별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에 제한이 있으며, 인력 및 예산 부족, 서비스 연계 및 자원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인력 및 예산지원, 서비스 연계에 대한 권한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표 VI-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사정책대상자 지원 확대

구분	주요 내용
3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사정책대상자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근거, 경계선지능인(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안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전국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설치(2022년 기준) -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수행 -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별로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 제한 - 경계선지능인의 사례관리 수행하기 전 반드시 인력 및 예산지원, 서비스 연계에 대한 권한 확보 등이 전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후 경계선지능청년의 서비스 진입 창구(gateway)를 청년센터로 하고, 전문 사례기관(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청년정책 외 타 정책 및 서비스 기관과 협업하는 구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청년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정책소의 청년 대상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 인프라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가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소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종사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은 청년센터를 통해 기본적으로 청년기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조금 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년의 경우 청년센터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모니터링 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청년센터는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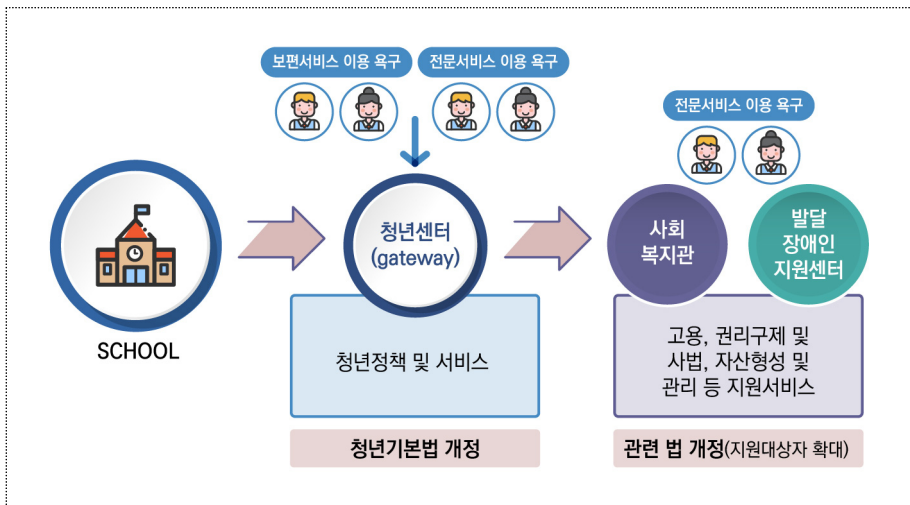


그림 VI-2.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옥려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 권정민 (2014). 경계선지능 학생 관련 정책 제언.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9-36.
- 김고은, 김혜리 (2018). 경계선 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1, 137-168.
- 김동일, 안예지, 이연재, 최서현, 박지현, 한은혜, 황지은, 최가람 (2021). **서울시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서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성길, 김채안 (2008).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 향상 상담사례의 배움학적 함의. **미래교육연구**, 6(2), 1-20.
- 김자경, 강혜진, 서주영, 장성욱 (2018). CRA기반 수감각 검사도구 개발: 느린 학습자 초기 진단을 위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2(4), 87-107.
- 김혜정, 김도연 (2017). 통합적 독서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적 기술 증진 효과- 경계 선지적기능 아동을 중심으로. **발달지원연구**, 6(1), 21-38.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20). **경계선지능청년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 박찬선, 장세희(2018).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이들**. 이담북스
- 박현숙 (201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타당화와 하위특성 연구**. 성균관 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관석, 신진숙 (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 (1), 79-10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경계선지적기능아동 자립 지원체계연구: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 서울특별시 (2020).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2020.10.5. 공포).
- 서재욱, 홍재은, 윤상용, 박혜진, 김동건 (2019). **청주시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 연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청주: 청주시 복지재단.
- 서해정, 박현숙, 이혜수 (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송하웅, 김현성, 원석현 (2020). **느린학습자의 병영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 좋은동네 연구소 협동조합.
- 신혜령, 주보라 (2013).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염경남, 이재경, 문정희 (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학습권 보호 및 자립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 유경, 정은희, 김락형 (2007). 이야기활동을 통해 살펴본 학령기 경계선 지능 언어발달장애아동의 쓰기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31-247.
- 윤영란, 임성은, 구병두, 안병환, 유정, 김경순, 전형진, 조덕진 (2021).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서울특별시·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금진 (2011).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성숙도와 자존감향상을 위한 멘토링 효과성 분석- 대학생 멘토와 경계선 아동의 상호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4, 137-165.
- 이명순, 박현 (2015).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언어 및 학습 능력과 센터 종사자들의 언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강원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24(3), 137-148.
- 이새별, 강옥려 (2020).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작업기억 특성 분석. **학습장애연구**, 17(2), 1-27.
- 이선희, 이재경, 조경애, 조현기 (2018). **동북권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관한 기초조사**. 서울: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 이수진, 김화수 (2016). 설명담화에 나타난 경계선 지능 언어장애 아동의 화용 특성. **지적 장애연구**, 18(2), 49-68.
- 정대영, 임성미, 하창환 (2018). FIE-B(EM)프로그램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17(2), 63-89.

- 정희정 (2006). **경계선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은미, 최승숙 (2021). 경계선 지적 기능 청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경험에 대한 당사자와 관련인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6(1), 1-30.
- 진현정 (2016). **경계선 지적 기능 성인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정숙 (2017). 경계선 지능아동을 위한 연산 프로그램의 중재효과-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연구**, 33(4), 273-296.
- 황지은 (2022). **부모인식에 따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 홍미영, 박혜림 (2020). **경계선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 성매매 피해 예방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Allen, G. (2011). *Early Intervention: The Next Steps, an Independent Report to Her Majesty's Government by Graham Allen MP*. The Stationery Office.
- Bonta, J., Blais, J., & Wilson, H. A. (2014). A theoretically informed meta-analysis is of the risk for general and violent recidivism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3), 278-287.
- Brown, I. & Radford, J. P. (2015). The Growth and Decline of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ntario: 1876-2009. *Journa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1, 7-27.
- Catalunya, G. (2018).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 Dekker, M. C. & Koot, H. M. (2003). DSM-IV disorders in children with borderline to 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y. I: Prevalence and impa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2(8), 915-922.
- Developmental Services Ontario. *Developmental Services Ontario*. <https://www.dsontario.ca/>에서 2022년 6월 17일 인출.
- Disability Secrets (2022a). SSDI and SSI Basics. <https://www.disabilitysecrets.com/topics/social-security-disability-basics.htm>에서 2022년 6월 29일 인출.
- Disability Secrets (2022b). Does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Qualify So

meone for Disability Benefits? <https://www.disabilitysecrets.com/resources/social-security-disability-coverage/borderline-intellectual-functioning-benefits.htm>에서 2022년 6월 29일 인출.

Douma, J. C., Dekker, M. C., de Ruiter, K. P., Tick, N. T., & Koot, H. M. (2007). Antisocial and delinquent behaviors in youths with mild or borderline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12(3), 207-220.

Dubé, P. (2016). Nowhere to turn. Investigation into the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response to situations of crisis involvi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ronto: Office of the Ombudsman of Ontario. <https://www.ombudsman.on.ca/Resources/Reports/Nowhere-to-Turn.aspx>에서 2022년 6월 29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2).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Accessed via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2&intPageId=4988&langId=en>에서 2022년 7월 29일 인출.

Firn, M. & Brenton, K. (2015). *(Flexible) ACT in the English context*. In: *Handbook (Flexible) ACT [Manual (Flexible) ACT]* (eds. R. van Veldhuizen, D. Polhuis, M. Bähler, N. Mulder & H. Kroon) (pp. 481-488). De Tijdstroom, Utrecht.

Hassiotis, A., Brown, E., Harris, J., Helm, D., Munir, K., Salvador-Carulla, L., Bertelli, M., Baghdadli, A., Wieland, J., Novell-Alsina, R., Cid, J., Vergés, L., Martínez-Leal, R., Mutluer, T., Ismayilov, F., & Emerson, E. (2019). Association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with adult psychiatric morbidity. Findings from a British birth cohort. *BMC Psychiatry*, 19(1), 1-9.

Herrington, V. (2009). Assessing the prevalence of intellectual disability among young male prisoner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3(5), 397-410.

Logsdon, A. (2021).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Overview. <https://www.verywellmind.com/what-is-borderline-intellectual-functioning-2161698>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Luckasson, R. & Schalock, R. L. (2013). Defining and applying a functionality approach to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7(7), 657-668.
- Martínez-Leal, R., Folch, A., Munir, K., Novell, R., & Salvador-Carulla, L. (2020). The Girona declaration on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he Lancet Psychiatry*, 7(3), e8.
- Neijmeijer, L. J., Didden, R., Nijman, H. L. I., & Kroon, H. (2018).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for people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mental health problems or challenging behaviour: state of the art and implementation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5(4), 329-342.
- Neijmeijer, L. J., Korzilius, H. P. L. M., Kroon, H., Nijman, H. L. I., & Didden, R. (2019). Flexible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for individuals with a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results of a longitudinal study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63(8), 1015-1022.
- Nouwens, P. J., Lucas, R., Embregts, P. J., & van Nieuwenhuizen, C. (2017a). In plain sight but still invisible: A structured case analysis of people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42(1), 36-44.
- Nouwens, P. J. G., Smulders, N. B. M., Embregts, P. J. C. M., & van Nieuwenhuizen, C. (2017b). Meeting the support needs of person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till a long way to go.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61(12), 1104-1116.
- 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2015). About social assistance in Ontario. <https://www.ontario.ca/page/policy-guidelines-adult-protective-service-worker-program>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Reeve Foundation (2022). Social Security and Disability. <https://www.christopherreeve.org/>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 Salvador-Carulla, L., García-Gutiérrez, J. C., Gutiérrez-Colosía, M. R., Artigas-Pallarès, J., Ibáñez, J. G., Pérez, J. G., ... & Martínez-Leal, R. (2013).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onsensus and good practice guidelines. *Revista de Psiquiatría y Salud Mental (English Edition)*, 6(3), 109-120.
- Thompson, J. R., Bradley, V. J., Buntinx, W. H. E., Schalock, R. L., Shogren, K. A., Snell, M. E. et al. (2009). Conceptualizing supports and the support need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7, 135-146.
- Van Straten, A., Hill, J., Richards, D. A., & Cuijpers P. (2015). Stepped care treatment delivery for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dicine*, 45, 231-246.
- Van Veldhuizen, J. R. (2007). FACT: a Dutch version of ACT.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3, 421-433.
- Wieland, J., Haan, S. K. D., & Zitman, F. G. (2014). Psychiatric disorders in outpati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omparison with both outpatients from regular mental health care and outpati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9(4), 213-219.
- Wieland, J. & Zitman, F. G. (2016). It is time to bring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ack into the main fold of classification systems. *BJPsych Bulletin*, 40(4), 204-206.
- Woittiez, I., Eggink, E., Putman, L., & Ras, M. (2018).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ar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https://www.scp.nl/publicaties/publicaties/2018/07/06/an-international-comparison-of-care-for-people-with-intellectual-disabilities>에서 2022년 9월 29일 인출.



부록

부록

1. 설문지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조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수탁을 받아 「경계선지능청년의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경계선지능청년이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과 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 참여자를 이해하는 조사원이 직접 대면하여 진행**됩니다. **소요 시간은 40분 이내이며**, 조사에 참여해주신 답례로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응답해주신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지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 참여 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조사 문의

000연구원 (☎ 010-****-****)

000연구원 (☎ 010-****-****)

☛ ☐ 조사원 작성 부분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의 일반정보는 기관의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해주시시오.

조사일자 언제입니까?	월 일	조사원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원의 연락처(휴대폰)는 어떻게 되십니까?	연락처 () - () - ()

응답자 일반정보 (조사원이 작성)	응답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응답자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년 ____월 ____일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 시도 ____ 시군구.		
	검사결과 응답자의 지능지수(IQ)는 몇 점입니까?	____ 점	응답자가 지능지수(IQ) 검사를 한 것은 몇 년도입니까?	____ 년

A. 가구 형태 및 주거

A1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같이 살고 있음

→

A1-1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총 몇 명입니까?

(응답자, 부모를 포함한 동거 인원)

총 _____ 명

② 같이 살고 있지 않음

→

A1-2

귀하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까?

① 예 → A1-3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A1-4번으로 이동

→

A1-3

귀하는 지금까지 혼자 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필수작성)

_____ 개월

A1-4

귀하는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시설 동료(시설 거주자)
- ②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③ 형제, 자매
- ④ 자녀
- ⑤ 조부모
- ⑥ 친구
- ⑦ 기타()

A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거주지가 두 곳 이상이라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주지 기준

- ① 원룸(다가구)
- ② 아파트
- ③ 단독주택
- ④ 다세대/빌라
- ⑤ 고시원
- ⑥ 오피스텔
- ⑦ 기숙사
- ⑧ 하숙
- ⑨ 시설
- ⑩ 기타()

A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A2)은
공공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 단기공공임대 아파트 및 주택 등)입니까?

☞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자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 및 주택을 의미함.

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도 포함됨

- ① 예
- ② 아니오

A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A2)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 ⑤ 무상
- ⑥ 잘 모르겠음
- ⑦ 기타()

A5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A2)의 주거비용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지불함 ➡ A5-1번으로 이동
- ② 본인이 대부분 지불하고, 부모님이 일부 지불함 ➡ A5-1번으로 이동
- ③ 부모님이 대부분 지불하고, 본인이 일부 지불함 ➡ A5-1번으로 이동
- ④ 전부 부모님이 지불함
- ⑤ 기관에서 지원받음
- ⑥ 잘 모르겠음
- ⑦ 기타()

A5-1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A5-1-1

주거비용 중 본인 명의의 금융 대출금액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 %

A6

귀하는 집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주택비용 부담(매매, 전세, 보증금 등)
- ② 주거 유지비용 부담(월세, 대출이자 납부 등)
- ③ 주거 관련 계약 체결 및 분쟁 시 해결 어려움
- ④ 주거 환경 개선 및 보수
- ⑤ 주거 관련 정보 부족
- ⑥ 특별한 걱정이 없음
- ⑦ 기타 ()

A7

귀하는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 ① 혼자서
- ② 배우자(자녀 포함)와 함께
- ③ 부모와 함께
- ④ 형제, 자매와 함께
- ⑤ 친구나 동료와 함께
- ⑥ 기타 ()

B. 교육 및 훈련

B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최종학력 기준으로 응답)

- ① 초등학교 졸업
- ② 초등학교 중퇴 ▶ B1-1번으로 이동
- ③ 중학교 졸업
- ④ 중학교 중퇴 ▶ B1-1번으로 이동
- ⑤ 고등학교 졸업
- ⑥ 고등학교 중퇴 ▶ B1-1번으로 이동
- ⑦ 전문대학 졸업
- ⑧ 전문대학 중퇴 ▶ B1-1번으로 이동
- ⑨ 대학교 졸업
- ⑩ 대학교 중퇴 ▶ B1-1번으로 이동
- ⑪ 대학원 졸업
- ⑫ 대학원 수료
- ⑬ 대학원 중퇴 ▶ B1-1번으로 이동
- ⑭ 학교에 다니지 않음

B1-1**귀하가 중퇴를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 ② 학교에서 따돌림, 괴롭힘이 심해서
- ③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및 가족 사정 때문에
- ④ 경제활동 등 개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 ⑤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 ⑥ 기타 ()

B1-2-1**귀하가 주로 다니던 **중학교**의 **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반학교(인문, 실업, 특성화고 등)
일반학급 | ② 일반학교(인문, 실업, 특성화고 등)
특수학급 |
| ③ 특수학교 | ④ 대안학교 |
| ⑤ 기타() | |

B1-2-2**귀하가 주로 다니던 **고등학교**의 **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반학교(인문, 실업, 특성화고 등)
일반학급 | ② 일반학교(인문, 실업, 특성화고 등)
특수학급 |
| ③ 특수학교 | ④ 대안학교 |
| ⑤ 기타() | |

B2

귀하는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해당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B2-1_이용 경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B2-1_이용 만족도					B2-2_필요 여부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있음	없음
①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② 진로와 직업 수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진로, 직업 체험 (현장견학, 현장 실습, 직업실무체험,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④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체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⑤ 진로, 직업 특강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⑥ 취업처 연계(취업 알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B3

귀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시 어떠한 어려움(문제)을 겪었습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학업 수행의 어려움(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 ② 또래를 사귀기 어려움
- ③ 괴롭힘, 왕따 등을 당함
- ④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의 갈등
- ⑤ 비행 청소년과 어울림(가출, 무단결석, 또래 괴롭힘 등)
- ⑥ 사이버 범죄 연루
- ⑦ 기타()
- ⑧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

① 예



B4-1 대학 전공은 무엇입니까?

B4-2 대학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② 만족하지 않음
- ③ 만족함
- ④ 매우 만족함

B4-3 대학생활에서 겪은 가장 **주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학업 적응 어려움 (학습동기 부족, 자기조절능력 부족, 학업스트레스 등)
- ② 개인 정서적 적응 어려움 (신체적·심리적 안녕감, 중독·위기 관련 안녕감 등)
- ③ 사회 적응 어려움 (관계형성능력, 자기주장성, 타인배려·소외, 갈등관리 등)
- ④ 진로 적응 어려움 (진로자기인식, 진로정보탐색, 진로설계, 진로실행 등)
- ⑤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
- ⑥ 기타 ()

② 아니오 →

B4-4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 대학 입학 등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 ⑥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계획하지 않아서
- ⑦ 기타 ()

B5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어디에서(누구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까?

- ①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 ② 복지기관(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청소년 쉼터 등)
- ③ 공공기관(고용센터 등)
- ④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 ⑤ 보호자나 친인척
- ⑥ 친구, 선후배 등 지인
- ⑦ 지원을 받은 곳(사람)이 없음 → B6번으로 이동
- ⑧ 기타()

B5-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지원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정보제공
- ② 교육훈련
- ③ 상담
- ④ 일자리 알선
- ⑤ 금전적 지원
- ⑥ 기타()

B5-2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받은 지원은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② 도움이 되지 않음
- ③ 도움이 됨
- ④ 매우 도움이 됨

B6

귀하는 성인이 된 후(만19세 이후)

교육(교육 프로그램 포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B6-1

성인이 된 후(만19세 이후)

받은 교육(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학력보완 교육 (검정고사 대비 강좌, 학점은행제 등)
- ② 성인 기초 및 문자해독 교육 (한글 읽기, 쓰기, 수 계산 등)
- ③ 직업능력향상 교육 (기초작업능력, 직장예절, 직업준비, 자격증 취득 등)
- ④ 인문교양 교육 (수준 높은 자립 달성을 사회재활, 생활소양, 문화//철학 등의 인문학적 교양 등)
- ⑤ 문화체육예술 교육(요리, 노래, 스포츠, 전시회, 영화, 여행 등)
- ⑥ 시민참여 교육(인권교육, 자기결정 기술, 투표참여, 봉사활동 등)
- ⑦ 자립생활훈련 교육(자기관리, 금전관리, 주거관리 등)
- ⑧ 정보화 교육(컴퓨터 교육 등)
- ⑨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운전, 조리 등)
- ⑩ 기타 ()

B6-2

성인이 된 후(만19세 이후) 받은 교육(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아동복지시설
- ② 청소년지원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립지원관, 청소년 쉼터 등)
- ③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
- ④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기관
- ⑤ 사설기관의 평생교육기관 (학원 등)
- ⑥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 ⑦ 원격 형태의 평생교육 (인터넷 사이버 교육 등)
- ⑧ 기타 ()

B6-3

성인이 된 후(만19세 이후)

받은 교육(교육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② 만족하지 않음
- ③ 만족함
- ④ 매우 만족함

② 아니오

B7

귀하가 일상 또는 취업 등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고 원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1순위	아래 해당하는 보기번호 작성	원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작성해주시오	
2순위		원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작성해주시오	

- ① 학력보완 교육(검정고사 대비 강좌, 학점은행제 등)
- ② 성인 기초 및 문자해독 교육(한글 읽기, 쓰기, 수 계산 등)
- ③ 직업능력향상 교육(기초작업능력, 직장예절, 직업준비, 자격증 취득 등)
- ④ 인문교양 교육(수준 높은 자립 달성을 사회재활, 생활소양, 문학/역사/철학 등의 인문학적 교양 등)
- ⑤ 문화체육예술 교육(요리, 노래, 스포츠, 전시회, 영화, 여행 등)
- ⑥ 시민참여 교육(인권교육, 자기결정 기술, 투표참여, 봉사활동 등)
- ⑦ 자립생활훈련 교육(자기관리, 금전관리, 주거관리 등)
- ⑧ 정보화 교육(컴퓨터 교육 등)
- ⑨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운전, 조리 등)
- ⑩ 기타 ()

C. 건강

C1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C2

귀하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C3

귀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성질환 : 의사의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투병중이거나 투약 중인 질환
예) 고혈압, 저혈압 / 당뇨병 /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모든 질병 등

① 예



C3-1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병명은 무엇입니까?

② 아니오

C3-2

귀하는 만성질환을 치료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① 예 ➡ C4로 이동

② 아니오 ➡ C3-3으로 이동

C3-3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이유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서
- ④ 치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 ⑤ 근처에 진료를 받고 싶은 병원이 없어서
- ⑥ 귀찮아서
- ⑦ 기타 ()

C4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항	매우 드물다 (일주일 에 1일 미만)	가끔 그렇다 (일주일 에 1-2일간)	종종 그렇다 (일주일 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에 5일 이상)
①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②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③ 상당히 우울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④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잠을 설친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⑥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⑦ 큰 불만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⑧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⑨ 마음이 괜히 슬프다.	①	②	③	④
⑩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⑪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C5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로 관련 전문가(예: 의사, 상담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C5-1

최근 1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로 관련 전문가(예: 의사, 상담사)를 **찾아가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C6

귀하는 현재 정신과 약물(뇌전증, 행동조절, 수면장애 등 관련)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C6-1 정신과 약을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 약물이 여러 개의 경우 가장 오래 먹은 약을 생각하면서 작성함(연령 또는 년도)

_____ 세 (또는 _____ 년)

② 아니오

C6-2 정신과 약을 먹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우울증, 조울증 | ② 조현병 |
| ③ 불안, 공포, 강박 | ④ 수면 문제 |
| ⑤ 행동문제(행동과다, 공격, 자해, 충동 등) | ⑥ 뇌전증(간질) |
| ⑦ 기타() | |

C7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C8 귀하는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를 말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

① 예



C8-1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 | ②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
| ③ 일주일에 5번, 6번 정도 | ④ 매일 |

C8-2 가장 자주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 | ②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 운동 |
| ③ 맨손체조 또는 스트레칭 | ④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
| ⑤ 수중 운동
(수영, 수중걷기, 수중체조 등) | ⑥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
| ⑦ 라켓 스포츠
(탁구, 배드민턴 등) | ⑧ 등산 |
| ⑨ 요가, 필라테스 | ⑩ 골프(파크골프 포함) |
| ⑪ 기타() | |

② 아니오



C8-3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①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지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서 |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 ③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
| ④ 이용하고 싶은 운동 프로그램이 없어서 |
| ⑤ 관련 시설이 주위에 없어서 |
| ⑥ 운동이 필요 없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
| ⑦ 기타 () |

C9

귀하는 건강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에**

다음 사항들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분	생각해본 적 있음	생각해본 적 없음	잘 모르겠음 / 해당사항 없음
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싶다.	①	②	③
②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③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담배를 끊고 싶다.	①	②	③
⑤ 음주를 중단하고 싶다.	①	②	③
⑥ 몸에 해로운 약물을 중단하고 싶다	①	②	③

D. 일상생활 및 만족도

D1

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모든 일상생활에
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일정 부분의
②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D1-1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합니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가사생활(요리, 세탁, 청소 등)
- ② 물건 구입
- ③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 ④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 ⑤ 필요 행정 서류 발급 등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이용
- ⑥ 금융 거래 및 금전 관리
- ⑦ 이동(낮선 장소 이동 등)
- ⑧ 각종 계약 체결
- ⑨ 안전 및 위험 시 도움 요청
- ⑩ 지역 내 편의 시설 이용
- ⑪ 기타 ()

D1-2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③ 배우자
- ④ 형제·자매
- ⑤ 조부모
- ⑥ 자녀
- ⑦ 기관 종사자(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기관 등)
- ⑧ 선배, 친구 등 지인
- ⑨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
- ⑩ 기타 ()

③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D2

귀하는 평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까?

① 전혀 표현하지 않음



D2-2

평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표현하지 않는 편임



- ① 나의 의견을 이야기해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 ②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들어서
- ③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를 몰라서
- ④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더 나아서(원해서)
- ⑤ 지금까지 다른 사람(부모 또는 시설 선생님 등)이 결정해왔기 때문에
- ⑥ 기타 ()

③ 표현하는 편임

④ 매번 표현함

귀하는 여가 시간을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냅니까?

- ① TV시청
- ② (온라인)게임
- ③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활동
- ④ 운동, 체육, 미술, 음악 활동
- ⑤ 독서, 음악, 영화, 스포츠 등 관람
- ⑥ 여행, 나들이
- ⑦ 등산, 산책
- ⑧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음
- ⑨ 기타 ()

귀하는 평상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렇함	매우 그렇함
① 나는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② 나는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③ 나는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쳐도 당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④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⑥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⑦ 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나는 보통 몇 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⑧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⑨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D5

귀하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D5-1번으로 이동
- ② 만족하지 않음 ➡ D5-1번으로 이동
- ③ 만족함
- ④ 매우 만족함

D5-1

일상에서 가장 만족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경제수준 | ② 건강 |
| ③ 가족관계 | ④ 사람관계 |
| ⑤ 직장생활 | ⑥ 주거 |
| ⑦ 결혼생활 | ⑧ 기타() |

D6

귀하는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까?
걱정이 되는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직업생활
- ② 생활비
- ③ 이성교제 및 결혼
- ④ 집 마련
- ⑤ 건강
- ⑥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 ⑦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 ⑧ 기타()
- ⑨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음

E. 소득 및 경제 활동

E1 귀하는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일을 해서 벌고 있음 | ②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음 |
| ③ 부모님 외 가족(형제자매, 사촌 등)이 지원하고 있음 | ④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음
→ E1-1로 이동 |
| ⑤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음 | ⑥ 이웃, 지인 등이 지원하고 있음 |
| ⑦ 타인에게 빌리거나 은행 등에서 대출받음 | ⑧ 기타 () |

E1-1 귀하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생계급여
- ② 의료급여
- ③ 교육급여
- ④ 주거급여

E2 **평균 한 달 지출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이 사용하는 비용 기준으로 응답)

- | | |
|-----------------------|-----------------------|
| ① 20만원 미만 | ②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
| ③ 4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④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
| ⑤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⑥ 10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
| ⑦ 120만원 이상 - 140만원 미만 | ⑧ 140만원 이상 |
| ⑨ 모르겠음 | |

E2-1

귀하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 ① 식비
- ② 주거비
- ③ 대출상환금
- ④ 교육비(자기개발비)
- ⑤ 여가 활용비(문화, 예술, 체육, 여행 등)
- ⑥ 친목교제, 유흥비
- ⑦ 기타()

E3

귀하는 은행이나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예 →

E3-1 채무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② 아니요

- ① 500만원 미만
- ②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③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④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⑤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⑥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⑦ 5,000만원 이상
- ⑧ 모르겠음

E3-2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자금 마련
- ② 주거비 마련 (전·월세자금 대출 등)
- ③ 생활비 마련 (식비 등)
- ④ 창업 자금 마련
- ⑤ 명의도용, 사기 등 타인(가족 포함)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
- ⑥ 기타()

E3-3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은행
- ② 제2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③ 대부업체
- ④ 기타 ()

E4 귀하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자영업, 가족사업체 등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① 예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는 경우 ⑭번 선택)

E4-1

귀하는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에서 왜 그만두었습니까?
가장 주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 | |
|---------------------------------|-------------------------------|
| ① 낮은 임금 수준 | ② 열악한 근무환경 |
| ③ 계약기간 만료 | ④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해서 |
| ⑤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 ⑥ 나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
| ⑦ 직장에서의 부적응
(근태 및 대인관계 문제 등) | ⑧ 나의 근로의지 부족
(흥미를 갖지 못함 등) |
| ⑨ 도와줄 사람이 없음 | ⑩ 출퇴근의 어려움 |
| ⑪ 건강의 악화 | ⑫ 가사, 돌봄, 이사 등 가족적 사유 |
| ⑬ 다른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 | ⑭ 현재까지 일하고 있음 |
| ⑮ 기타() | |

② 아니오

☞ B8번으로 이동

E5 귀하는 현재(조사시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자영업, 가족사업체 등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질병, 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휴직(일자리 복귀 가능)의 경우도 일하는 것도 포함

①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 B6로 이동

② 일하고 있지 않음 ☞ B8로 이동

E6 귀하는 총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① 1개

② 2개

③ 3개 이상

귀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음식배달앱, 대리운전앱, 유튜브 등)을 통해 일거리를 받고 수당을 받는 일을 **주업으로** 일한 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주세요.

[illegible]

E7-7 귀하의 기술이나 교육수준에 비해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직무 수준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술/교육 수준보다 직무수준이 낮다 나의 기술/교육 수준보다 직무수 준이 유사하다 나의 기술/교육 수준보다 직무수준이 높다																						
E7-8 월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약 _____ 만원																						
E7-9 취업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직접 채용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입사 지원 ② 공공, 민간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및 취업 알선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등), 직업소개소 등) ③ 학교, 청소년지원기관, 지역복지관 등의 소개 및 취업알선 ④ 가족, 친구, 선후배, 일자리 동료 등 주변 지인의 소개 및 추천 ⑤ 기타()																						
E7-10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1순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2순위</th> </tr> </thead> <tbody> <tr> <td>① 출퇴근의 어려움</td> <td></td> </tr> <tr> <td>② 근태관리(지각, 결근, 근무지 이탈 등)의 어려움</td> <td></td> </tr> <tr> <td>③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td> <td></td> </tr> <tr> <td>④ 근로능력의 부족, 업무 성과 미흡</td> <td></td> </tr> <tr> <td>⑤ 근무환경의 열악함</td> <td></td> </tr> <tr> <td>⑥ 직장 내 괴롭힘</td> <td></td> </tr> <tr> <td>⑦ 대인관계의 어려움 (의사소통 포함)</td> <td></td> </tr> <tr> <td>⑧ 어려운 업무를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음</td> <td></td> </tr> <tr> <td>⑨ 기타 (</td> <td></td> </tr> <tr> <td>⑩ 특별히 없음</td> <td></td> </tr> </tbody> </table>	1순위	2순위	① 출퇴근의 어려움		② 근태관리(지각, 결근, 근무지 이탈 등)의 어려움		③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④ 근로능력의 부족, 업무 성과 미흡		⑤ 근무환경의 열악함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대인관계의 어려움 (의사소통 포함)		⑧ 어려운 업무를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음		⑨ 기타 (		⑩ 특별히 없음	
1순위	2순위																						
① 출퇴근의 어려움																							
② 근태관리(지각, 결근, 근무지 이탈 등)의 어려움																							
③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④ 근로능력의 부족, 업무 성과 미흡																							
⑤ 근무환경의 열악함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대인관계의 어려움 (의사소통 포함)																							
⑧ 어려운 업무를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음																							
⑨ 기타 (																							
⑩ 특별히 없음																							
E7-11 현재 일자리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만족함 ④ 매우 만족함																						
E7-12 현 직장에서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일 자체를 그만두길 원한다.(향후 일을 할 생각이 없다)																						

E8



E8-1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직업군인
⑪ 기타()

E8-2

E8-3

- ① 전일제 ② 시간제(주당 시간)

E8-4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습니까? (**※창업 준비도 포함**)

**D8-4-1. 지난 4주 내에 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했습니까?**

→

- ① 구직정보 탐색 후 직접 지원 및 면접
- ② 정부 취업 기관 연락 및 방문
- ③ 민간 취업 기관 연락 및 방문
- ④ 가족, 지인 등의 소개 및 도움
- ⑤ 구인 관련 사이트에 구직 등록
- ⑥ 취업 연계되는 직업훈련
및 프로그램 참여
- ⑦ 기타()

**D8-4-2. 지난 4주 내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 ③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 ④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 ⑤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 ⑥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 ⑦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⑧ 진학이나 취업교육 준비 중이어서
- ⑨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 ⑩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⑪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 ⑫ 기타 ()

E8-5

일 자리를 구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 ② 나를 채용하려는 일자리(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
- ③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에서 자주 탈락함
- ④ 임금, 근로시간 등 내가 원하는 계약조건에 맞는 일자리(사업체)가 없음
- ⑤ 나의 취업 의지가 약해지거나 없어짐
- ⑥ 자기관리, 사회적응 등의 나의 취업 준비가 부족함
- ⑦ 기타()
- ⑧ 특별히 없음

② 아니오 →

E8-6

지금 또는 향후에 취업하여 일하기 싫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서
- ② 일하는 게 싫어서
- ③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나를 안 뽑아 줄 것 같아서)
- ④ 괴롭힘, 차별 등이 우려되어서
- 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 ⑥ 일할 필요가 없어서(현재 경제적 안정 상태)
- ⑦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 ⑧ 기타 ()

F. 결혼 및 가족 관계

F1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 F2로 이동
- ② 현재 배우자 있음(기혼, 사실혼 동거) ➡ F4로 이동
- ③ 사별 ➡ F4로 이동
- ④ 별거 ➡ F4로 이동
- ⑤ 이혼 ➡ F4로 이동
- ⑥ 미혼모/부 ➡ F2로 이동

F2 현재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F2-1 앞으로 연애하기를 원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F3 귀하는 앞으로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F3-1 (미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지원 받기 어려움 등
-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 ⑥ 가족, 지인 등 주위의 반대로
- ⑦ 기타()

➡ 응답한 후 F5로 이동, 미혼모/부의 경우 F4-4로 이동

F4

(F1의 '현재 배우자 있음(기혼, 사실혼 동거)', '사별', '별거', '이혼'으로 응답한 사람만 해당) 결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기본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F4-1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별거의 경우 배우자와 실 동거 기간)	_____ 년 (필수작성) _____ 개월				
F4-2 결혼(동거) 당시 연령은 몇 세입니까?	_____ 세				
F4-3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table border="1" data-bbox="449 590 1033 638"> <tr> <td>1순위</td> <td></td> <td>2순위</td> <td></td> </tr> </table> ① 경제적 어려움(생활비 부족 등) ② 배우자와의 갈등 ③ 배우자의 폭력, 외도 등 문제 ④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⑤ 가사생활 수행 및 관리의 어려움 ⑥ 본가 또는 배우자 가족 등과의 갈등 ⑦ 기타 (_____) ⑧ 어려움 없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F4-4 자녀 유무	① 자녀 있음(총 _____ 명) ② 자녀 없음				
F4-5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정의 주된 어려움	※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table border="1" data-bbox="449 1079 1033 1127"> <tr> <td>1순위</td> <td></td> <td>2순위</td> <td></td> </tr> </table> 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몰라서 ②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주위 지원이 없어서 (맡길 데가 없어서) ④ 양육비 등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⑤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워서 ⑥ 자녀와의 관계 맺기에서 어려움 ⑦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데 힘들어서 ⑧ 기타 (_____) ⑨ 어려움 없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F5 귀하는 가족 구성원 중 현재 누구와 가장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형제자매
- ④ 배우자
- ⑤ 자녀
- ⑥ 특별한 갈등이 없음
- ⑦ 기타 ()
- ⑧ 가족이 없거나 교류가 전혀없음

F5-1 그 가족구성원과 주로 어떠한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F6 귀하의 부모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F6-1 부모님은 장애가 있습니까?	① 아버지가 장애가 있음 ② 어머니가 장애가 있음 ③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장애가 있음 ④ 모르겠음 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장애가 없음 ⑥ 부모가 안 계시거나 만난적이 없음
F6-1-1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유형이 무엇입니까?	① 아버지 (주 장애: _____) ② 어머니 (주 장애: _____) ③ 모르겠음
F6-2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F6-3 부모님은 이혼이나 별거 중 이십니까?	① 이혼을 했거나 별거를 하고 있음 ② 이혼이나 별거를 하지 않음

G. 관계 및 참여

G1

귀하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또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명

G2

귀하가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포함된 보기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가족(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 ② 친구, 학교 선후배
- ③ 직장 동료
- ④ 교회, 절, 성당 지인
- ⑤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 ⑥ 기타 ()
- ⑦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음

G3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가족 제외)과 귀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의사소통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오해가 발생, 의견이 상충됨 등)
- ② 돈 문제 때문에(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을 때 갚지 않음 등)
- ③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어서(다른 사람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함 등)
- ④ 내가 또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 ⑤ 내가 심리, 정서적으로 감정 기복이 커서
- ⑥ 다른 사람과 큰 갈등이 없음
- ⑦ 기타 ()

G4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 학교, 여가생활, 친
목 등을 위해 매일 또는
주 3-4일 외출함

② 취미생활, 생활물품을
구입할 때만 인근 지
역 중심으로 외출함 →

③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음 →

④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

G4-1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 | |
|-----------------|------------------|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

G4-2 현재의 상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한 이유 제외

- | | |
|-----------------------|-------------------------------|
| 학업, 대학진학, 취업 등 | |
| ① 계속되는 실패의 경험 | ②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
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
| ③ 외부 활동에 대한 두려
움으로 | ④ 할 일이 없거나 만날 사
람이 없어서 |
| ⑤ 정신과적 질환으로 | ⑥ 기타() |

G5 다음 중 귀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가장 소속감을 느끼시는 집단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나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 ②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 ③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 ④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환경활동, 구호활동, 정치활동 모임 등)
- ⑤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직업 기반 협회 또는 조합 등)
- ⑥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 ⑦ 종교기관
- ⑧ 기타 ()
- ⑧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G6

귀하는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주로 어떠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②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부착하기
- ③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 ④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⑤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올리기
- ⑥ 정당 활동에 참여하기
- ⑦ 기타 ()
- ⑧ 참여한 적이 없음

G7

(※응답자가 남자의 경우에만 응답)
귀하는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① 예



G6-1 군대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② 아니오

- ① 군 생활방식의 부적응
- ② 대인 관계 어려움
- ③ 폭언, 폭력 등 괴롭힘
- ④ 성적 괴롭힘
- ⑤ 상사 지시, 훈련, 과업 수행의 어려움
- ⑥ 기타 ()
- ⑦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음

H. 인권 및 사법

H1 귀하는 **지난 2년 간**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H1-1 지난 2년 간 어떠한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정서적 괴롭힘
(무시, 욕, 따돌리기 등) | ② 신체적 괴롭힘
(때리기, 가두기 등) |
| 성적 괴롭힘
③ (성희롱, 강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 경제적 착취
④ (금전 갈취, 사기, 근로대가
미제공, 명의 도용 등) |
| ⑤ 기타() | |

H1-2 지난 2년 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다양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가장 긴 시간 겪은 괴롭힘을 기준으로 응답)

()년(세)부터 ()년(세)까지

H1-3 지난 2년 간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가족(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 ② 친구, 학교 선후배, 연인
- ③ 이웃
- ④ 직장 동료나 상사
- ⑤ 군대 선임, 후임
- ⑥ 교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 ⑦ 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 ⑧ 교회, 절, 성당 지인
- ⑨ 기타()

H1-4 괴롭힘을 당할 때 주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었다.
- ②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다.
- ③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 ④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 ⑤ 경찰, 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 ⑥ 욕을 하거나 저항했다.
- ⑦ 기타 ()

② 아니오

H2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주로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또는 만약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누구와 주로 상의할 것입니까?

- ① 가족(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 ② 친구, 연인, 이웃, 선후배 등 지인
- ③ 직장 동료, 상사
- ④ 학교 교사(교수)
- 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 ⑥ 교회, 성당, 절 등 종교기관 관계자
- ⑦ 공무원(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직원)
- ⑧ 성폭력, 학대 권리구제 전문기관
- ⑨ 기타 ()
- ⑨ 특별히 상의할 사람(기관)이 없음

H3

귀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H3-1

연루된 범죄는 무엇입니까?

2건 이상의 경우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사기(보이스피싱 등)
- ② 절도, 강도
- ③ 횡령
- ④ 폭력
- ⑤ 마약
- ⑥ 성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 ⑦ 방화
- ⑧ 기타 ()

H3-2

누구와 어울리다가 연루되었습니까?

2건 이상의 경우 해당되는 사람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가족(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 ② 이웃
- ③ 친구, 연인, 선배
- ④ 직장 동료, 상사
- ⑤ 교회, 절, 성당 지인
- ⑥ 온라인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
- ⑦ 모르는 사람
- ⑧ 기타 ()

H3-3

연루된 범죄로 인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으셨습니까?

2건 이상의 경우 해당되는 처벌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벌금
- ② 금고
- ③ 집행유예
- ④ 실형
- ⑤ 기타()
- ⑥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음

② 아니오

H4

귀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H4-1

어떠한 상황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두 선택)

- ① 학교생활
- ② 취업 진입, 승진, 보수 등 직업생활
- ③ 일상생활
- ④ 지역 편의시설 이용
- ⑤ 청년지원 및 기타 복지서비스 이용
- ⑥ 결혼
- ⑦ 기타 ()

② 아니오

I. 정책 및 지원

11

다음과 같은 청년대상 정부 정책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용한 적이 있으며, 이용한 경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책 및 서비스	11_ 인지 여부		(인지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11-1_이용 경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1-2_이용 만족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음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음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장학금 지원 (국가,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③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④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⑥ 청년내일채움공제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⑦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⑧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⑨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넌마음건강서비스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⑩ 청년 주택 (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⑪ 청년 주거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⑫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⑬ 임신, 출산 의료비 및 장려금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⑭ 자녀 아동수당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⑮ 성매매 피해자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⑯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후기 청소년 포함 위기상담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①	②	④	⑤

12

귀하는 앞서 살펴본 청년정책과 같은 정부 정책 및 서비스 정보를 **주로** 어디를 통해 알게 됩니까?

- ① 복지서비스기관(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립지원관, 청소년 쉼터 등)
- ② 정보매체(언론매체, 인터넷 등)
- ③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 ④ 자조모임 등 네트워크
- ⑤ 학교
- ⑥ 가족(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 ⑦ 친구, 선후배 등 지인
- ⑧ 복지 관련 정보지
- ⑨ 스스로 알아 봄
- ⑩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어려운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기관)이 없음
- ⑪ 기타 ()

13

귀하는 앞서 살펴본 청년정책과 같은 정부 정책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된 어려움 1개**를 선택해주세요.

- ①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지 모름
- ② 어떻게(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 ③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 ④ 신청했으나 자격이 제한적이어서
- ⑤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모름
- ⑥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⑦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 ⑧ 기타 ()

14

귀하에게 필요한 정부의 정책 지원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교육
- ② 진로 및 훈련(직업, 자립생활 등)
- ③ 고용
- ④ 소득보장
- ⑤ 주거
- ⑥ 건강
- ⑦ 관계 및 사회참여
- ⑧ 출산 및 자녀 양육
- ⑨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 ⑩ 인권 보장 및 사법 지원
- ⑪ 기타 ()

15

귀하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인간관계 고민 등)
- ② 소득·생계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생계급여, 청년수당 등)
- ③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 ④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 (취업준비, 일자리 알선 등)
- ⑤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 ⑥ 직업·자립 등 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 ⑦ 건강검진 서비스 (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 ⑧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 공간 제공, 주거비 지원 등)
- ⑨ 기혼 가족 서비스(출산, 가사, 자녀 양육 등 지원 서비스 등)
- ⑩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독서, 영화, 취미 지원)
- ⑪ 인권침해 권리구제 서비스 (학대, 차별 등 인권침해 시 권리 회복 및 필요 지원 등)
- ⑫ 위법 시 법률 서비스 (위법 또는 연루 시 법률 지원서비스 등)
- ⑬ 기타 ()

16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16-1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을 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아니오



16-2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② 다른 사람에게 장애인이라고 알려지기 싫어서
- ③ 장애인이라고 차별받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 ④ 이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별로 없어서
- ⑤ 청년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 ⑥ 기타 ()

③ 잘 모르겠음

지금까지 긴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심층면접지

본 연구는 다양한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귀하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시는지, 필요한 국가의 도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귀하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2. 살아오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제였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는 언제였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이 무엇이며, 왜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반대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도움 중에서 별 도움이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귀하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 혹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5. 귀하가 가장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일 혹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6.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7.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8. 앞으로 더 기쁘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까?
9. 나랑 비슷한 청년을 위해 국가나 사회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까?

3. 초점집단면접지(부모용)

1. 자녀가 경계선자능인(느린 학습자)임을 알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알게 되었습니까?
2. 요즘 자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학교, 직장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3. 자녀가 삶에서 어떠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특히 자녀의 대인관계 수준은 어떠하며, 자녀는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습니까?
 - 자녀가 자신의 미래준비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여갑니까?
4. 청년기에 접어든 자녀가 이전의 학령기(초중고)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5. 성인인 경계선자능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6. 자녀와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의견차이나 갈등이 있다면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ex. 친구 사귀기, 진학, 취업, 미래 준비 등)
7. 현재 자녀가 이용하는 정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있습니까?
 -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며, 그 수준은 충분합니까?
8. 성인 자녀에게 필요한 가장 시급한 지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 경계선자능청년 대상의 국가 지원은 어떠한 부처(전달체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그렇다면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0. 자녀의 장애인등록을 위해 실제 등록 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신청했으나 장애인등록이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애인등록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그 외 경계선자능청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지원은 무엇입니까?

4. 초점집단면접지(종사자용)

1. 귀하는 경계선지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또는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 경계선지능청년들은 삶에서 어떠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특히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 형성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경계선지능청년들은 자신의 미래준비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여깁니까?
3. 귀하가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4. 현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으로 어떠한 정부 지원이 진행됩니까?
 - 지원 내용이나 수준은 적절하다고 여기십니까?
 -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정보접근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까?
5. 경계선지능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경계선지능청년 대상의 국가 지원은 어떠한 부처(전달체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경계선지능인도 발달장애인 대상의 제도나 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계선지능청년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7. 그 외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지원은 무엇입니까?

국문초록

이 연구는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분석과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 정책과 지원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책대상자를 공식화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정책지원 필요, 둘째, 심리적으로 접근 용이한 서비스 진입 창구와 지원체계 필요, 셋째, 생애주기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 필요, 넷째, 경계선지능청년의 개별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 다섯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고려한 촘촘한 정책지원 필요 등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 과제로는 경계선지능의 개념 정립,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부 정책 및 지원서비스 확충,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환경조성, 정책 리더러시 및 접근성 강화,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세부 정책 및 지원 서비스는 조사결과 매우 취약한 실태에 기초하여 고용지원, 주거지원, 권리주제 및 사법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 평생교육지원, 정신건강지원, 관계망지원 등의 정책 및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licy exclusion of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and to develop necessary policies. For this purpo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alysi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for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were performed,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direction of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policy support and related policies and tasks were suggested. Firstly, four policy support directions for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were propos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formalize policy targets and provide policy support accompanied by an understanding of borderline intelligence. Second, it is essential to have a psychologically accessible service entry window and support system. Third, providing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policy support for each life cycle is necessary. Fourth, policy support considering the individuality of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is needed. Fifth, dense policy support is required for thinking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which can be placed in a blind spot.

Proposed policy tasks for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borderline intelligence, preparation of legal basis for youth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policy support, expansion of detailed policies and support services, creation of social understanding and environment for borderline intelligence, strengthening of policy literacy and accessibility, the establishment of youth with a borderline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detailed policies and support services were based on the very vulnerable situation, and policies and services such as employment support, housing support, rights subject and judicial support, asset formation and management support, lifelong education support, mental health support, and network support suggested.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황여정·임희진·오승근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정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김지연·백혜정·김미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지원정책 평가 / 홍성효·장수명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욱·오옥찬·조양진
-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위 크 쑈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위원단 ◆

김 동 일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특수교육 전공 교수)

김 용 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현 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박 현 숙 (경계선지능인연구소 소장)

변 금 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정 민 (지울 S&C 변호사)

심 수 현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유관기관 협력 전문가 ◆

서 미 연 (동대문사회복지관 과장)

심 창 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장)

우 수 정 (대전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조 용 화 (청년재단 맞춤사업팀장)

조 윤 경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협동연구총서 22-80-05
연구보고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85-5 94330

979-11-5654-380-0 (세트)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85-5
ISBN 979-11-5654-380-0(세트)